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A Study on Ethnic Enclaves Through the Lens of CPTED

임보영 Im, Boyeong
최창성 Choi, Changseong
허재석 Her, Jaeseok

(a u r i

일반연구보고서 2023-6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A Study on Ethnic Enclaves Through the Lens of CPTED

지은이 임보영, 최창성, 허재석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3년 12월 26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453-6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임보영 부연구위원

| 연구진

최창성 부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 연구보조원

권윤 조사원

김연경 조사원

성유현 조사원

최홍석 조사원

|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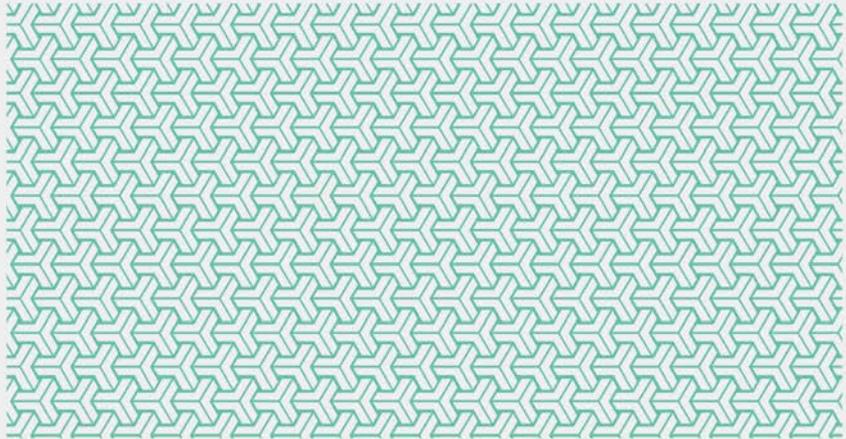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민범식 한아도시연구소 부회장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구요약

Summary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는 경제 활동인구,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생활 및 정주인구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유입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 체류 및 정착 외국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점차 장기적으로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조기 적응이 아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안전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제도의 동향 파악을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국내 법제도 및 사업,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는 대표 사례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는 총 4단계에 걸쳐 도출되었으며, 최종 선정 대상지는 ①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②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③농어촌 중심지역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인구사회 현황, 물리사회 현황, 산업경제 현황, 외국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섹테드 관점에서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각 대상지의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3개 대상지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98명, 외국인 217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 범죄 피해 두려움, 주요 공간별 이용행태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물리환경 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하며,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서의 내외국인간의 인식 차이, 행태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주거 공간 개선과 함께 내외국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비 및 여가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내국인이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지의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 각 유형별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여 내외국인 모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범죄 불안감, 근린환경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5. 연구 흐름도	15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제도 동향	17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문헌고찰	18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 고찰	18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20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사업 동향 분석	28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28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5
3) 해외 외국인 대상 정책 지원 사례	44
3. 소결	52
제3장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53
1. 현황 분석의 개요	54
2. 대상지 현황 분석	61
3. 소결	80

차례 CONTENTS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분석	83
1. 심층 분석의 개요	84
1) 심층 분석의 틀	84
2) 심층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85
2.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87
1) 실태 진단 개요	87
2)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88
3)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102
4) 농어촌 중심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114
3.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주민 인식조사	123
1) 설문조사 개요	123
2) 설문조사 결과	125
4. 소결	144
제5장 결론	149
1. 연구의 요약	150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53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부록	169
1. 범죄취약도 분석 평가기준	170
2. 설문조사지	172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의 범주	7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표 2-1]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및 효과 관련 이론 주요 선행연구	19
[표 2-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특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21
[표 2-3] 외국인 밀집지역 인식·행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23
[표 2-4]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특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25
[표 2-5]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선행연구	27
[표 2-6] 외국인 관련 법 현황	28
[표 2-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9
[표 2-8]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2
[표 2-9]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33
[표 2-1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34
[표 2-11]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34
[표 2-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결과	35
[표 2-13] 2011년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개선 사업 지원규모	36
[표 2-14] 의사 안전구역 지정 현황	40
[표 2-15] 의사치안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41
[표 2-16]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43
[표 2-17] 예테보리시 외국인 적응 담당 부서	49
[표 3-1] 시·도별 외국인 현황	54
[표 3-2] 현황·분석 대상지역 도출 과정	55
[표 3-3] 외국인 시군구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57
[표 3-4] 권역별 외국인 현황	57
[표 3-5]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외국인 집중거주구역 선별	58
[표 3-6] 대상지 현황 분석 주요 내용	61
[표 3-7] 관악구 연령별 인구구조	62
[표 3-8] 관악구 연도별 인구 변화	62
[표 3-9] 관악구 신사동 가구 수 증감률	63
[표 3-10] 관악구 지역안전지수 현황	63
[표 3-11] 관악구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63
[표 3-12] 관악구 용도지역 현황	64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13] 주택 유형별 현황	65
[표 3-14] 관악구 유형별 노후주택(30년 이상)	65
[표 3-15] 관악구 사업체 현황	66
[표 3-16] 관악구 외국인주민 현황	66
[표 3-17] 관악구 신사동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67
[표 3-18] 김해시 동상동 연령별 인구구조	68
[표 3-19] 김해시 연도별 인구변화	69
[표 3-20] 김해시 동상동 가구 수 증감률	69
[표 3-21]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현황	69
[표 3-22]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70
[표 3-23] 김해시 용도지역 현황	71
[표 3-24] 김해시 주택 유형별 현황	71
[표 3-25] 김해시 유형별 노후주택(30년 이상)	71
[표 3-26] 김해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72
[표 3-27] 김해시 외국인주민 현황	72
[표 3-28]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73
[표 3-29] 음성군 연령별 인구구조	74
[표 3-30] 음성군 연도별 인구변화	74
[표 3-31] 음성군 대소면 가구 수 증감률	75
[표 3-32] 음성군 지역안전지수	75
[표 3-33] 음성군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76
[표 3-34] 음성군 용도지역 현황	76
[표 3-35] 음성군 주택 유형별 현황	77
[표 3-36] 음성군 노후주택(30년이상) 유형별 현황	77
[표 3-37] 음성군 사업체 현황	78
[표 3-38] 음성군 외국인주민 현황	78
[표 3-39] 음성군 대소면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79
[표 3-40] 대상지 현황 분석 주요 내용	82
[표 4-1]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항목	87
[표 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개요	88
[표 4-3] 관악구 신사동 5대 범죄 발생 현황	90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4]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개요	102
[표 4-5] 김해시 동상동 일원 5대 범죄 발생 현황	104
[표 4-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114
[표 4-7] 음성군 대소면 5대 범죄 발생 현황	115
[표 4-8] 내국인 및 외국인 개인 특성	125
[표 4-9] 지역별 외국인 체류 유형	126
[표 4-10] 지역별 외국인 거주지역 변화 현황	127
[표 4-11] 지역별 동네의 무질서도 및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인식	135
[표 4-12] 지역별 이웃 주민 간 유대 관계	139
[표 4-13] 범죄 소식을 접하는 매체	139
[표 4-14] 범죄 유형에 따른 지역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143
[표 4-15]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분석 결과 종합	147
[표 5-1]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예시	154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다문화사회의 단계별 도시사회의 변화전망	6
[그림 1-2]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8
[그림 1-3] 3세대 CPTED의 근린 거주적합성 위계	9
[그림 1-4]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31
[그림 2-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활동 모습	37
[그림 2-3] 김해다문화치안센터	42
[그림 2-4] 외국인들을 위한 모듈 임시 주택	50
[그림 3-1] 전체 외국인 대비 국적별 비율 변화	56
[그림 3-2] 관악구 생활권 계획	64
[그림 3-3] 난곡 생활권	64
[그림 3-4] 관악구 국적별 외국인 현황	67
[그림 3-5] 김해 생활권 계획	70
[그림 3-6] 김해시 외국인 국적별 현황	73
[그림 3-7] 음성군 생활권 계획	76
[그림 3-8] 음성군 외국인주민 국적별 비율	79
[그림 4-1] 심층 분석의 틀	84
[그림 4-2] 실태 진단의 조사 대상	85
[그림 4-3] 관악구 신사동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90
[그림 4-4]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 한 공동현관(좌), 별도 출입 통제 시설물이 없으며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실제 절도범죄가 발생한 공동출입문, 우)	91
[그림 4-5] 범죄자의 은닉 및 침입·도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택 사이 공간	92
[그림 4-6]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이적공간(좌), 야간 낮은 조도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공간(우)	92
[그림 4-7] 시장 내부에 위치한 주택 출입구	93
[그림 4-8]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93
[그림 4-9] 집중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 내부와 달리 CCTV 설치가 부족한 시장 주변 공간	94
[그림 4-10] CCTV가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장 내부(좌), 날치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CCTV 설치가 필요한 시장 입구 ATM 기기 주변(우)	94
[그림 4-11] 주간(좌)에 비해 불안감이 높은 야간(우) 시장 내부 환경	95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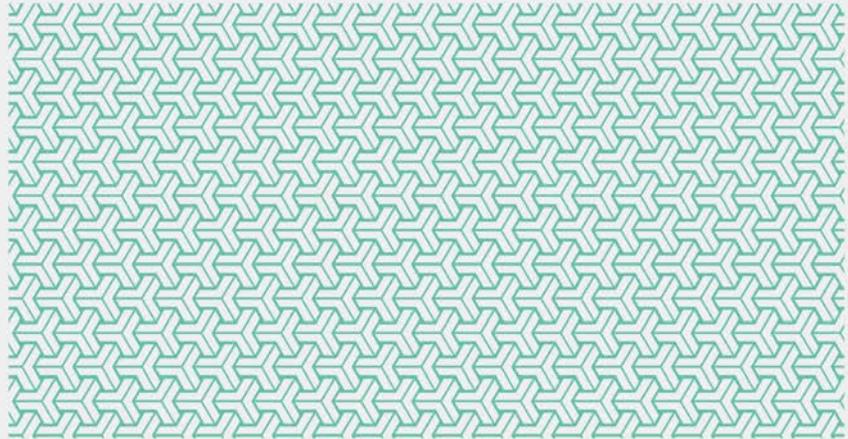
[그림 4-12]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동일한 디자인의 시장 출입문 형태	96
[그림 4-13] 관악신사시장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점포	96
[그림 4-14]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여있는 주택가 거리	99
[그림 4-15] 폐원한 유치원 주변 어두운 거리	99
[그림 4-16] 무단투기 적치물로 인해 비상벨이 가려져 있는 거리(좌), 안내 사인이 부착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거리(우)	101
[그림 4-17] 김해시 동상동 일원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104
[그림 4-18] CCTV와 조명이 설치된 골목길(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고 CCTV와 조명이 없는 골목길(우)	105
[그림 4-19]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물과 낮은 담장	106
[그림 4-20] 출입통제가 되지 않고 열려있는 공간(좌) 출입통제가 잘 되어있는 공간(우)	107
[그림 4-21] 비어있는 상가와 관리되지 않은 외관	108
[그림 4-22] 외국인주민들의 자체 종교시설	108
[그림 4-23]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좌)과 내국인(우)	109
[그림 4-24] 외국인의 교육과 한국적응을 위한 공간(좌),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우)	109
[그림 4-25] 주민이 실 수 있는 벤치와 같은 시설이 부족한 광장	110
[그림 4-26]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 및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움직이게 함	110
[그림 4-27] 상업시설의 보행로 침범	111
[그림 4-28] 거리의 쓰레기 배출 관리	111
[그림 4-29] 민간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공간	112
[그림 4-30] 낙후된 이주민지원시설	113
[그림 4-31] 2023년 음성군 대소면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115
[그림 4-32] 대소면 일대 단독주택(위), 원룸(아래)	116
[그림 4-33] 나대지, 불법 쓰레기 투기 현황	117
[그림 4-34]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상업시설 현황	118
[그림 4-35]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방범시설 설치 현황	118
[그림 4-36] 주말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가로 현황	119
[그림 4-37] 주거지 내 쉼터 공간 현황	119
[그림 4-38] 대소면 시장 주차장	120
[그림 4-39] 대소면 일대 공영주차장(좌), 공동정류소(우)	12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40] 범죄 두려움과 환경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124
[그림 4-41]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분석 결과 해석 예시	127
[그림 4-42] 주거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128
[그림 4-43] 소비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129
[그림 4-44] 여가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130
[그림 4-45] 노동 및 업무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131
[그림 4-46] 공공 및 가로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132
[그림 4-47]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이미지	133
[그림 4-48]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	134
[그림 4-49] 지역별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변화	136
[그림 4-50] 지역별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	136
[그림 4-51] 지역별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	137
[그림 4-52] 지역별 내국인 및 외국인 친교 모임 참여 여부	138
[그림 4-53] 지역별 내국인 및 외국인 친교 모임 장소	138
[그림 4-54] 지역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140
[그림 4-55] 지역별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및 안정감	141
[그림 4-56]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및 안정감	142
[그림 4-57]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142

제1장 서론

Chapter.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 흐름도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유입 및 장기 체류·정착 외국인 증가에 대한 공간 측면에서의 대응 필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단일민족'¹⁾이라고 배워왔으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탐구의 대상이자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다²⁾. 이러한 단일민족 프레임은 비로소 2006년 즈음이 되어서야 변화하였다. 각종 매스컴, 정부 부처 보도자료 등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4월에 다문화 정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기본방향'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박승우, 2019, pp.16-17).

2007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불과 722,686명이었으나, 2009년도 1,106,884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8년도에는 2,054,621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외국인 수는 2,134,569명, 우리나라 총인구의 4.13%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여³⁾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⁴⁾.

외국인 증가는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외국인을 경제활동인구로, 인구감소지역에는 활력을 창출하는 생활인구, 정주인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2022년도 기획재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법무부·행안부·지자체 합동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서는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가칭 이민청 설립을 법무부 최우선 순위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이민청은 부처별로 분산

1) 국사편찬위원회. (2023). 역대 국사 교과서, 민족 국가로의 발전,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a/view.do?levelId=ta_e52_0020_0010_005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7C0%29+%7D(검색일: 2023.06.01.)

2)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2015). 반다문화 주범 '단일민족' 주입 사라졌지만...미래세대 교육 '차별 코드' 여전. 국민일보, 8월 5일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 ew.asp?arcid=0923187683&code=11132400&cp=nv>(검색일: 2023.05.15.)

3)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2015). 반다문화 주범 '단일민족' 주입 사라졌지만...미래세대 교육 '차별 코드' 여전. 국민일보, 8월 5일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 ew.asp?arcid=0923187683&code=11132400&cp=nv>(검색일: 2023.05.15.)

4) OECD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국제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분류된다(김양은, 2009, p.14)

되어있는 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유치, 이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이민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⁵⁾.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가?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결혼 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이 특정 외국인 유형을 대상으로(이혜경, 2012, p.134-135), 체류, 고용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 외국인 유입과 더불어 국내에 10년 이상 장기 체류 정착 외국인들이 증가⁶⁾하고 있어 이들의 '적응'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초국가적 외국인의 이주, 정착,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는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박배균, 2010, p.90). 따라서 외국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단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이혜경, 2012, p.134).

□ 범죄예방, 안전 강화와 더불어 거주적합성⁷⁾ 향상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 수요 증가
외국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박세훈, 2009, p.35). 이러한 양상은 과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비수도권 도시, 농·어촌지역에서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해 문화적인 차이, 편견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가지는 이질감과 긴장감이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내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 치안·안전 문제와 같은 키워드를 연관 지어왔다. 실제 내국인 범죄 발생률에 비해 외국인주민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최영신·강석진, 2012, p.21-83; 김지선, 2020, pp.1-2), 외국인 밀집지역에

5) 김민중. (2022). 한동훈의 '빅피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 중앙일보. 5월 28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931#home>(검색일: 2023.05.15.)

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12년 34%→'15년48%)하고, 5년 미만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12년 27%→'15년 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Saville과 Mihinjac는 도시 및 커뮤니티 생활 속의 거주적합성(liveability) 원칙을 통합하여, 현재 제 3세대 CPTED의 이론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주적합성이란, 자연환경, 건축 환경, 다양한 주택 선택과 경제 잠재력, 사회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원칙이다(류허, 2022, pp.3-24)

대한 논의도 치안 활동 강화, 범죄예방, 안전 부문에 치우쳐온 것이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은 범죄 예방, 안전 강화와 더불어 외국인이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2020, p.6).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수의 외국인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내 유입 외국인들은 노후 주택이 밀집하여 더 이상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또는 저렴 주택이 분포해 있는 원도심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백일순, 2019, pp.21-27).

이와 같이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생활 만족도와 가족 동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8, p.29; 한기용, 2023, p.45). 특히 외국인들은 생활환경 내 다국어 기반의 생활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주거, 교육, 여가 및 문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법무부, 2008, p.29), 외국인 정책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 밀집지역 실태 파악을 통한 세부 공간별 근린환경 개선 사항 도출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있어 ‘외국인의 유입과 통합의 연계’를 주요 기조로 삼았다⁸⁾. 즉,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인식과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외국인들의 생활환경 전반 인식,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기반 정책이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다(조영희 외, 2021, p.329).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행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조영희 외, 2021, pp.35-36).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 단위에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각 공간은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적응과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이혜경, p.134).

8) 성도현. (2023). [인구절벽&이민] ③ “유입·통합 체계적 연계”...尹 정부 정책 기조. 연합뉴스. 1월 9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04700371> (검색일: 2023.05.15)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기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안전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밀집지역 심층 사례분석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세부 공간별로 내·외국인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만족감 등의 인식, 공간별 이용 시간, 이용 빈도 등의 행태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내·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범죄예방, 안전, 거주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간과 신규로 확충이 필요한 공간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장기 체류·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 및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및 조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근린단위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관련 분야의 학술적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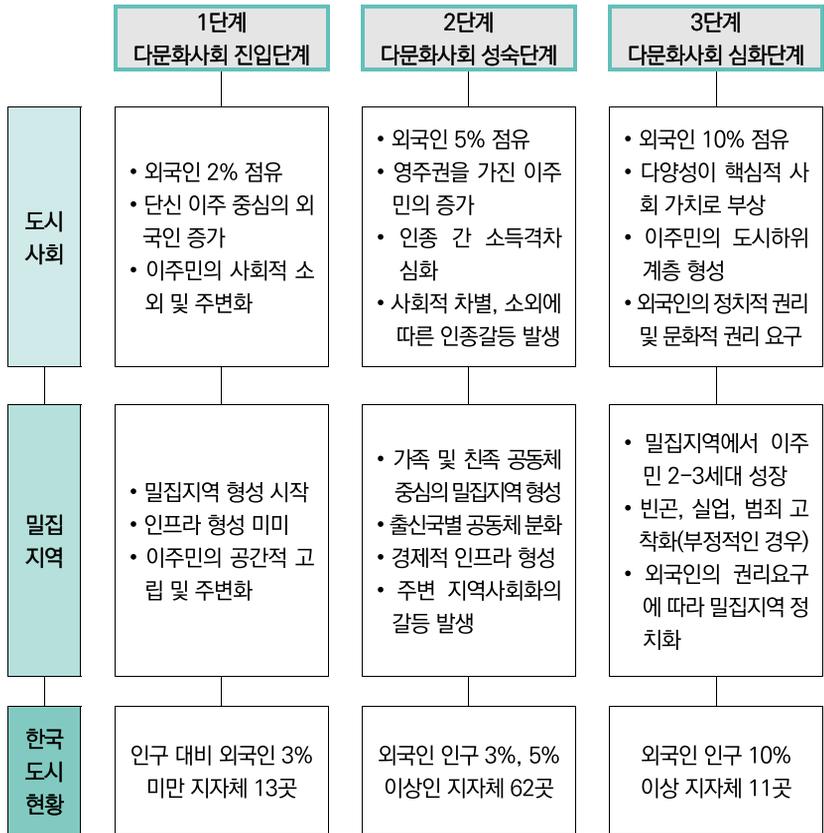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

200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 등과 같이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외국인 규모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문화사회 진입단계에서 성숙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박세훈 외, 2009, pp.99-100; 최영신·강석진, 2012, pp.128-129).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6곳으로, 비수도권에서 음성군, 진천군, 영암군이 전체 인구 대비 10% 이상이 외국인주민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안시, 아산시, 김해시, 경주시, 경산시, 논산시 등은 전체 인구 대비 5%

이상이 외국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간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별 내·외국인들의 인식과 행태를 분석하여 지역별 근린환경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1] 다문화사회의 단계별 도시사회의 변화전망

주 : 한국도시 현황은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p.18을 참고하여 작성함.
출처: 박세훈 외(2009, p.198)

□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생활하는 내국인·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연구 수행

본 연구에서 외국인이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주민 자녀, 다문화 가구를 의미하며, 이들은 ‘외국인주민(이하 외국인)’으로 부른다⁹⁾. 다시 말해 주민들과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시간이 적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불법 입국자, 외국인 관광객 등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1]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의 범주

범주	대상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교수등취업본아(E-1-E7, E9-E10), 방문취업(H-2)인자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기타	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외국인 주민자녀	*미성년자만 집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 ※ 다문화가구는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집단가구의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기타동거인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동거인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lId=96092, 검색일: 2023.06.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내 외국인들의 정주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생활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화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하는 한국인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실태 파악에 참고하고자 한다.

9)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확장된 CPTED 관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심층 분석 수행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하여 9개 언론기관의 14년간(2010.02.~2023.02.) 기사를 분석한 결과, 사고, 안전, 관리, 상황 등 부정적 키워드들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¹⁰⁾, 여전히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예방, 생활안전 확보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함을 시사한다.



[그림 1-2]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출처: NetMiner4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CPTED는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건조 환경의 이용을 통해 범죄 두려움과 범죄 발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Crowe, 2000, p.46).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별로 내·외국인 인식 조사를 통해 불안감, 두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감, 안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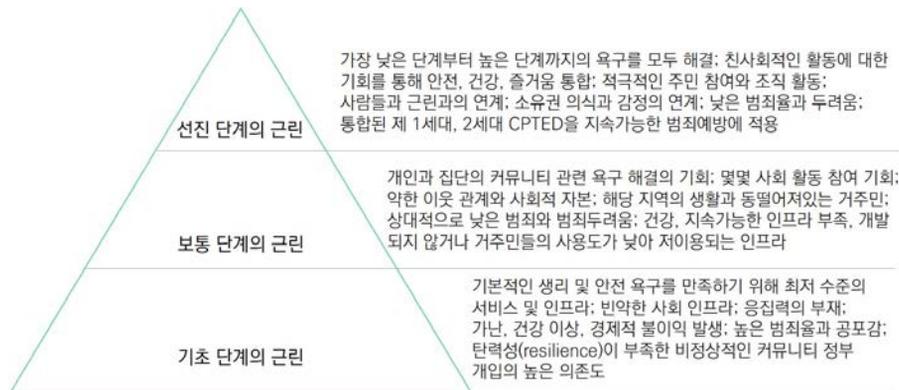
CPTED 개념은 사회여건 변화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세대 CPTED는 범죄 감소에 초점을 맞춰 방어적인 물리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Jacobs, 1961; Jeffery, 1971; Newman, 1972). 2세대 CPTED는 물리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이웃 교류 증진을 강조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Mihinjac & Saville이 3세대 CPTED¹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최근 인지, 행동, 환경 과학 발전은

10) 박병주(2022)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11) 3세대 셉테드는 셉테드에 친환경(에코) 디지털 하이테크 솔루션을 적용하는 IT 중심의 전략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박현호 외, 2016), 여전히 3세대 CPTED 개념은 학계 논의를 통해 정립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범죄와 안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으로부터 삶의 질과 만족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CPTED와 새로운 과학 간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거주적합성(Liveability)’이라는 원칙으로 3세대 CPTED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Mihinjac & Saville, 2019, pp.3-4).

거주적합성은 자연환경, 토지이용, 걷기 좋은 환경, 다양한 주택 옵션, 서비스 접근성, 시설 그리고 어메니티를 포함하는 장소에서 경험한 물리환경 그리고 사회적 특성의 총합으로 구성된다(Gough, 2015, p. 147). 유사한 정의로, 살기 좋은 공동체, 지불가능하고 적절한 주택, 지원적 커뮤니티 특성, 서비스, 적절한 이동 옵션, 개인의 독립을 지원하고, 시민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Kihl et al. 2005, p. 2)¹²⁾.

거주적합성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 위계는 근린의 삶의 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 범죄예방 연구 및 잠재적인 도시개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Mihinjac & Saville, 2019, p.9). 기초 단계의 근린에서 선진 단계의 근린으로 갈 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낮은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림 1-3] 3세대 CPTED의 근린 거주적합성 위계

출처: Miinjac & Saville(2019, p.10)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기초 단계에서 선진 단계의 근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범죄예방, 안전 측면에서의 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거주 적합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근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생활공간, 공공공간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12) Mihinjac & Saville (2019), pp.4-5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연구 방법

□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을 분석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특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두려움,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등 기사, 논문, 연구보고서 등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 현안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조사 및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현장조사, 중앙 및 지자체 관련 부처, 지역주민, 중간지원 조직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필요성, 방향, 우선순위 등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범죄학, 건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 자문회의 실시

□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경찰청 외사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서는 각각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활동, 체류 지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본 연구 결과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협의 진행

□ 공동 컨퍼런스 개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경찰청)와 공동 컨퍼런스를 하반기에 개최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분포 및 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외국인 정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발생에 대한 연구, 외국인 증가와 내국인의 범죄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단위 또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며, 외국인의 정주환경에서 주거공간 중심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구는 외국인과 범죄 발생에 관한 연구이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내국인들의 범죄 두려움은 높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하나, 실제 외국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적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범죄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외국인들의 안정감, 삶의 만족도, 공간 이용 패턴 등과 같은 인식 및 행태를 조사분석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논의가 적었던 지방 도시,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공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일상 활동을 영위하는 소비공간, 여가공간, 문화공간, 가로공간 등 근린환경 내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여 내·외국인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선행 연구 분포 및 형성 특성	1	- (제목)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 (저자) 박세훈·정소양, 2010 - (목적)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 문헌연구 - GIS 분석	·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
	2	- (제목)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 (저자) 하성규 외, 2011 - (목적)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패턴과 선택요인 분석	- 문헌연구 - 군집분석	· 서울시 내 외국인 공간적 분포가 국적별 체류 자격별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음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외국인 정주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3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 (저자) 정지은 외, 2011 - (목적)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패턴과 선택요인 분석	- 기술통계분석 - GIS 분석 - 회귀분석 · 수도권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요인이 국적으로 상이
	4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 (저자) 김윤경, 2014 - (목적) 연령통합의 구조적 구성 요소 제시	- 문헌연구 - 상이지수 - 다중회귀분석 · 수도권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증가속도가 빠름
	5	- (제목) 외국인 유입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상 - (저자) 이예지, 2017 - (목적) 연령통합의 구조적 구성 요소 제시	- 현장관찰 - 심층인터뷰 · 타 지역에 비해 값싼 주거지역은 주변 공단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거주지 선정 요인으로 작용
	6	- (제목)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 및 분석 - (저자) 김도형·박승규, 2019 - (목적) 연령통합의 구조적 구성 요소 제시	- 설문조사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이민자에 비해 정주환경 만족도가 낮음
	7	- (제목) 외국인 거주자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및 결정요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저자) 김형준 외, 2021 - (목적) 연령통합의 구조적 구성 요소 제시	- k-means 군집 분석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주거비가 저렴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공업지역 주변의 주거지에 거주 · 서울시 외국인 인구의 직주분리 현상 有 · 외국인은 직주 불일치에 따른 교통과 비용이 내국인에 비해 더 클 것
	8	- (제목)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 (저자) 신동준, 2012 - (목적)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사회적 요인 도출	- 설문조사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 외국인은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
	9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 (저자) 최영신·강석진, 2012 - (목적)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범죄의 구조적·환경적 요인 도출	- 문헌연구 - 범죄통계 분석 - GIS 분석 - 현장조사 - 심층면담조사 · 외국인의 밀집 정도는 내·외국인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침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발생	10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 요인의 실재여부에 관한 연구 - (저자) 김병학 외, 2013 - (목적)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특성	- 문헌연구 - 범죄통계분석 - 면접조사 ·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에 내국인 및 비밀집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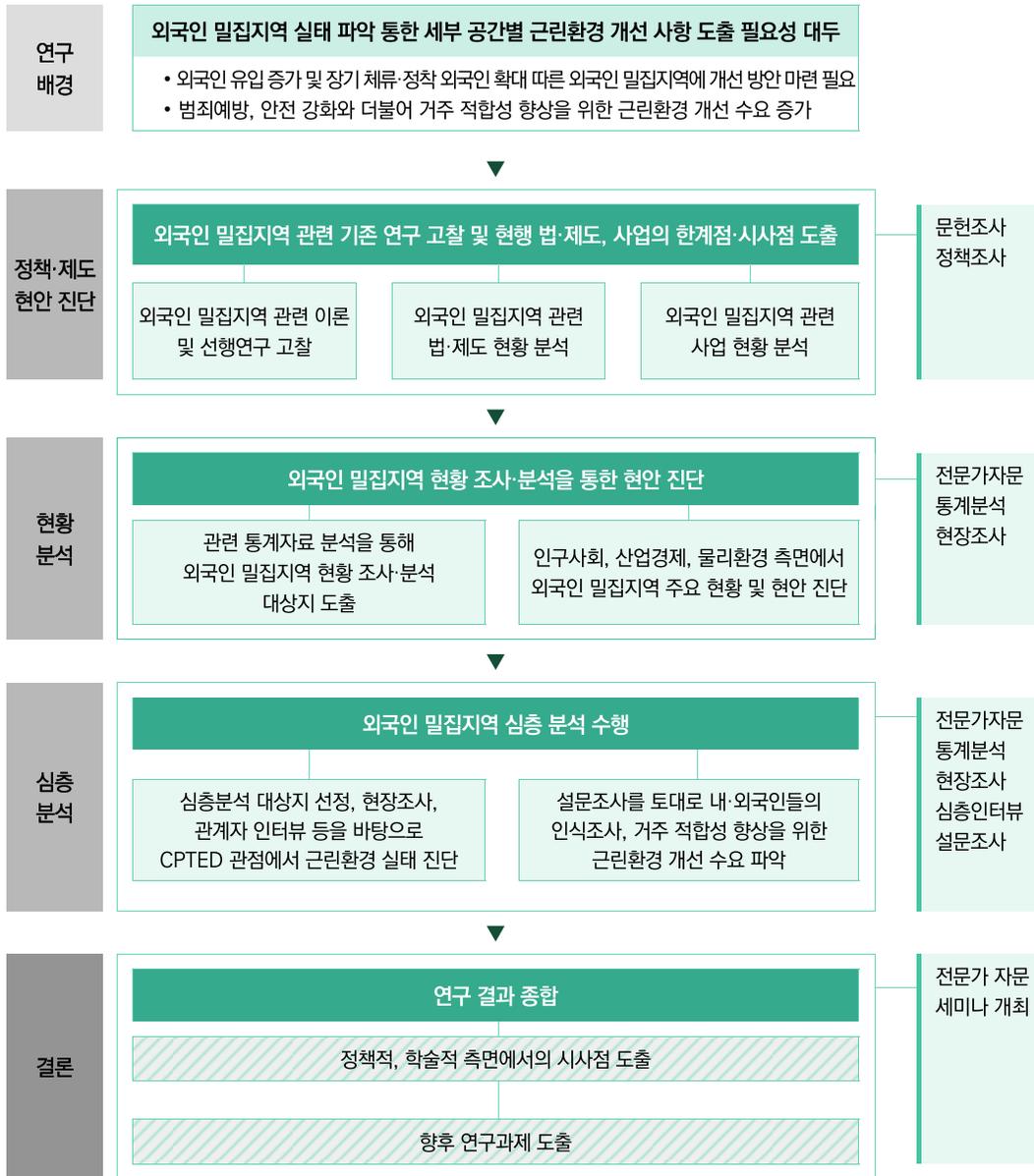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외국인 증가와 내국인 범죄 두려움	분석 11 - (제목)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사회문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폭행범죄피해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이윤영·이미경, 2020 - (목적)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특성 분석	- 설문조사	· 가해와 피해의 국적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
	12 - (제목)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저자) 김도원 외, 2021 - (목적) 외국인	- 문헌연구 - 범죄통계 분석 - 지역단위 패널자료 분석	·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 발생 증가 실증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13 - (제목)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 (저자) 민지선·김두섭, 2013 - (목적)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 및 인종구성과 범죄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설문조사	·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 유발 · 중국 조선족, 한족, 동남아시아인, 일본인과 같은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해서만 부정적 태도를 지님
	14 - (제목) 외국인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저자) 노성훈, 2013 - (목적) 외국인 유입과 내국인의 범죄두려움 및 범죄위험인식 간 영향관계 분석	- 설문조사	·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범죄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범죄위험인식에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5 - (제목) 외국인 거주자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저자) 강수진·서원석, 2018 - (목적) 외국인 국적과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순서형로지스틱 분석	· 지역 내 높은 외국인주민 비율은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16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소이미지 및 만족도의 내·외국인간 차이에 관한 연구: 이태원관광특구를 중심으로 - (저자) 최재연 외, 2013 - (목적) 다문화 공간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와 지역이미지 및 만족도 간의 영향고찰	- 설문조사	· 한국인 방문객과 상인이 외국인주민보다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연구방법	세부내용
17	- (제목) 김해 이주노동자들의 공간의 의미화와 '외국인 거리'의 형성 - (저자) 차철욱 외, 2013 - (목적) 외국인 거리에 대한 내·외국인의 공간적 이미지 차이 고찰	- 문헌연구 - 심층인터뷰	· 외국인에게 봉변당했다는 소문, 살인사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주는 위압감, 위생문제 등 외국인 거리의 부정적 이미지 존재
	- (제목) 김해시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한 연구 - (저자) 김남희 외, 2020 - (목적) 외국인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수준 비교 분석	- 설문조사	·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높음

본 연구	- (제목)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 방향 연구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안전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 심층 사례분석 지역 선정, 지역 내 세부 공간별로 내·외국인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만족감 등의 인식 파악, 내·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범죄예방, 안전, 거주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간과 신규로 확충이 필요한 공간 유형 제시, 정책 및 사업 개선 방향 도출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심층면담, 설문조사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성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을 분석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특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두려움,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등 기사, 논문, 연구보고서 등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 현안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 현장조사, 중앙 및 지자체 관련 부처, 지역주민, 중간지원 조직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필요성, 방향, 우선순위 등 도출 ·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및 사업 개선 방안 제시
------	---	---	---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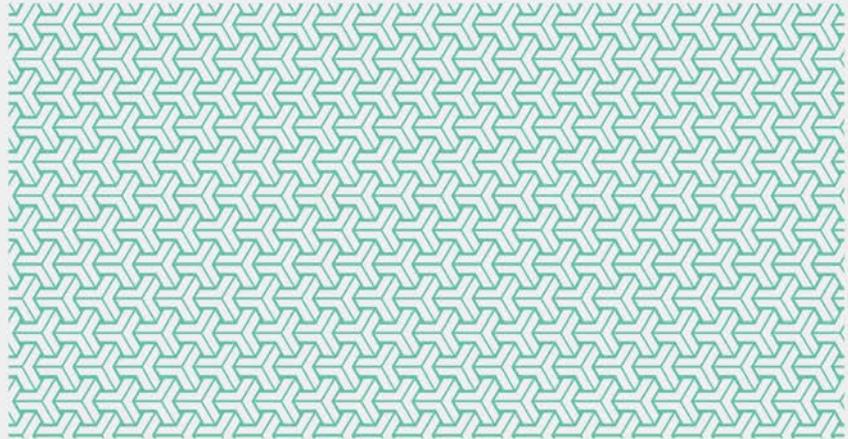
5. 연구 흐름도



[그림 1-4]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제도 동향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문헌고찰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사업 동향 분석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문헌고찰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 고찰

동화이론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정착 초기에 내국인과 갈등을 겪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착한 국가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인다(Robert E. Park, 1950; Massey 1985; Gordon, 1964; Portes, 1995).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밀집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밀집지역을 형성하는데(Milton M, Gordon, 1964; Faist & Ozveren, 2004; 박세훈 외, 2009, 김윤경 외, 2014), 이러한 현상이 강화될 경우 내국인과의 외국인 간의 주거지가 분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Burgess, 1924; Wirth, 1928; 박세훈 외, 2009; 박윤환, 2011; 윤진희 외,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은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다. 먼저, 외국인 밀집지역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주민 지역 활성화, 민족 집단거주지 이론 등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주민 지역 활성화 이론이란, 외국인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낙후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감소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해당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Lee & Martinez, 2002; Velez, 2009). 민족 집단거주지 이론은 외국인들이 밀집거주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와 연대를 강화시켜 경제적 편익과 이주 적응에 도움을 주어 그 자체로 범죄 등의 병리적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ohon, 2001; Borjas, 2002; 이정현·정수열, 2008).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해체이론, 긴장이론, 집단이론, 무질서 모형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외국인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주거환경은 이들이 정주국 공동체 내 적응을 어렵게 하며 동시에 긴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Agnew, 1992; Agnew & White, 1992; 신동준, 2012). 또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과 차별,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협으로 인해 촉발된 배타적 태도 및 반감이 심화될 경우 범죄율 증가, 내외국인간 갈등 유발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함을 지적하고 있다(Shaw, Clifford R. & Henry McKay, 1942; 홍세영·이현, 2011; 최영신 외, 2012; 방성훈 외 2012; 김병학 외, 2013).

[표 2-1]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및 효과 관련 이론 주요 선행연구

구분	세부내용	선행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동화이론	- 이주외국인은 이주 초기 이주지역에서 내국인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정주국 사회에 동화하는 양상을 보임 Robert E. Park, 1950; Massey 1985; Gordon, 1964; Portes, 1995
	초국가적 사회 공간론	- 이주외국인들은 이주국과 본국 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자본, 사람, 문화 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의 초국가적 사회공간 형성함 Milton M, Gordon, 1964; Faist & Ozveren, 2004; 박세훈 외, 2009, 김윤경 외, 2014
	주거지 분화	- 인종·민족, 사회경제, 언어 특성을 기반으로 소수집단인 외국인주민들의 거주 공간 분포는 내국인과 분리-특정공간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 Burgess. E W., 1924, Wirth., L., 1928; 박세훈 외, 2009; 박윤환, 2011; 윤진희 외, 2014
외국인 밀집지역 긍정적 효과	이주민 지역 활성화	- 이주외국인이 한 지역사회에 모여 거주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어 그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낮춤 Lee & Martinez, 2002; Velez, 2009; - 이주외국인은 저렴주거를 찾아 도시 낙후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감소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함
	민족 집단거주지	- 이주외국인 밀집거주는 소수집단인 외국인 구성원들의 이주 지역 적응에 있어 공동체적 유대와 연대를 강화시켜 그들의 경제적 편익과 이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Bohon, 2001; Borjas, G. J., 2002; 이정현·정수열, 2008
외국인 밀집지역 부정적 효과	사회 해체이론	- 이주외국인의 문화·사회적 이질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결속력과 비공식적인 통제를 약화시켜 그 지역사회의 범죄율 높임 Shaw, Clifford R. & Henry McKay, 1942; 홍세영·이현, 2011; 최영신 외, 2012; 방성훈 외, 2012; 김병학 외, 2013
	무질서 이론	- 이주외국인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물리적 환경악화가 범죄 및 범죄두려움의 원인이 됨 김병학 외, 2013
	긴장이론	- 이주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긴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봄. 이러한 지역 및 공간에 존재하는 '긴장'은 범죄 및 비행의 원인이 됨 Agnew, 1992; Agnew & White, 1992; 신동준, 2012
외국인 밀집지역 부정적 효과	문화이론	- 이주외국인은 본국과 주류사회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낯설고 서로 충돌을 일으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됨 Sellin, 1938; 김지선 외, 2019
	집단위협 이론	- 이주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외국인과 이주국의 내국인들 간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 됨 Campbell, 1965, Blalock, 1967; - 이주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이주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및 반감 심화되는 양상을 띠 민지선·김두섭, 2013
	취약성 모형	- 동아시아 이주외국인은 인종차별, 사회적 배제 등 신분취약성으로 인해 범죄노출 위험이 증가함 Spark 1981; 198; 이윤영·이미경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200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을 국적별, 체류 유형별로 나누어 공간분포 패턴과 거주지 분리 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거나,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현황을 고찰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세훈·정소양(2010)은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주로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성규 외(2011)는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패턴과 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서울시 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가 국적별, 체류 자격별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음을 지적하였다.

정지은 외(2011)는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패턴과 주거지 선택요인을 분석하여 수도권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요인이 국적별로 상이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형준 외(2021)는 서울시 외국인 인구의 직주 분리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윤경 외(2014)는 부산, 경남, 김해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도시의 외국인의 밀집도에는 제조업, 사글세·월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고찰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밀집지역의 유형과 특성이 크게 상이하고, 국내 외국인 거주지분리정도는 매우 높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내 양극화와 빈곤지역화가 심각하며 내·외국인간에 갈등 및 반목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양극화, 거주지 분리, 빈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특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박세훈 외 (2009)	국적별, 체류 유형별 공간분포 현황과 외국인 밀집 지역 유형별 특징 도출	- 문헌연구 - GIS 분석 - 사례분석 - 현장조사 - 심층면담조사	- 외국인 밀집지역의 차별화 및 양극화, 빈곤지역화 진행 - 내·외국인간의 갈등 및 반목 심화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여 빈곤과 이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	- 문헌연구 - GIS 분석	- 서울시 내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분리 빈곤층보다 정도가 높으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하성규 외 (2011)	'구' 단위 외국인 공간적 분포 현황 파악 및 '읍면동' 단위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패턴을 분석	- 문헌연구 - 군집분석	- 서울시 내 외국인 공간적 분포가 국적별 체류 자격별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음 - 국적과 체류 자격간에 긴밀한 상관성 존재
정지은 외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패턴과 선택요인 분석	- 기술통계분석 - GIS 분석 - 회귀분석	- 수도권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요인이 국적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국적별, 인종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요구
김윤경 외 (2014)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외국인 분포 특성 및 밀집 지역 탐색	- 문헌연구 - 상이지수 - 다중회귀분석	- 부산·경남, 김해 거주 외국인 증가속도가 빠름 - 국적이나 체류 자격별로 밀집 특성이 지역의 공간적·환경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상이 - 외국인 밀집심화요인은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제조업, 사글세·월세가 유의미함
강미나·유미경 (2014)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제 도출	- 문헌연구 - 현장조사	- 농촌 다문화 가구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일반 농촌가구에 비해 낮고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성이 높아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
김형준 외 (2021)	지역적 특성이 외국인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k-means 군집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서울시 외국인 인구의 직주 분리 현상 발견 - 직주 불일치가 심화될 경우 실업률,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극화를 예방하고 사회 정착을 돕는 대책 마련 필요 제시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의 인식 및 행태 관련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외국인의 행태와 인식의 관련해서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행태와 이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가로,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공간 위계에서 외국인들의 단합과정, 장소애착,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신영 외(2012)는 외국인 밀집거주가 기존 근린환경과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기존 근린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요인'이 원주민들의 반응에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하였고 이에 저소득층 위주의 외국인 밀집거주지를 계획·관리함에 있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적 노력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혜경(2012)은 기존 외국인 관련 연구에서 이들의 일상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자들의 활동공간을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으로 구분하고, 체류 유형별로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들의 체류 유형별, 국적별, 거주 지역별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비패턴, 활동 행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체로 저렴한 주거지역과 자민족 단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정현·정수열, 2015; 이예지, 2017). 외국인 밀집지역은 비교적 외국인은 비교적 민족 공동체 의식, 동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장소애착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조성되어 있으나(신지연·박인권, 2021), 실제 거리에서 이들의 사회적 행위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고인석, 2013).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환경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혜경(2012)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물리환경에서도 주거공간에 집중하거나, 동네, 지역, 장소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기반하여 물리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하위 공간별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 모두의 입장에서 공간별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공존·통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2-3] 외국인 밀집지역 인식·행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박신영 외 (2012)	외국인 노동자의 밀집 거주 가 기존 근린과 원주민에 미 치는 영향 분석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원주민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에 대 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인식 - 환경, 범죄·갈등, 교육·문화, 경제활성 요인 중 '환경 요인'이 원주민들의 반응 에 가장 영향력이 높음
이혜경 (2012)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공 간에 대해 통합적 고찰 및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구체 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 성 파악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인터뷰	- 주거·소비·여가공간은 외국인 이주자 의 체류유형, 거주목적,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
강혜원·고인석 (2013)	외국인 노동자의 거리이용 패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 한 가로 활성화 방법 제시	- 이용자행태조사	- 김해시 외국인거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들의 밀집은 많이 일어나지만 선택적· 사회적 행위의 빈도는 낮음
이정현·정수열 (2015)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 관점에서 외국인 집중거주 지의 유지 및 발달 과정 고찰	- 설문조사 - 인터뷰	- 대림동 중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 국인들은 차별과 고립을 자민족 단합으 로 극복 - 자민족 단합에 의해 형성된 존재기본기 능은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 지역의 중국인을 대림동으로 이주시 키는 역할
이예지 (2017)	외국인 유입에 따른 도시공 간의 변화상 고찰	- 현장관찰 - 심층인터뷰	- 공업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하락 으로 인해 다문화거리 방문 및 구매 비율 감소 - 타 지역에 비해 값싼 주거지역은 주변 공단의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거주지 선정요인으 로 작용 -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주
김도형 외 (2021)	외국인주민의 삶의 만족도 파악을 통해 사회통합적 차 원에서 정책적 접근 제시	- 설문조사	-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는 결혼이민자가 행복하며 정주환경에 대해서도 더 만족 - 정주환경 7개 부문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고 행복도 더욱 높아지는 경향 - 외국인으로서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행 복도는 높아지는 경향
신지연·박인권 (2021)	이주자들의 시민행동 요인 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 계규명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 개선방안 제시	- 근거이론 방법	-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 동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 - 이주지 및 밀집지역에 대한 여론과 사 회적 관계망은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 관련 연구

2000년대 중반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한 이후, 2012년 오원춘 사건, 2014년 수원 토막 살인사건과 같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가 실제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박윤환·황의갑(2011)은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고 거주지분리와 외국인 범죄 발생 간의 관계를 GIS, LIAS, ESDA,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범죄율과 외국인 수 대비 범죄발생률 모두 모란 지수 값이 낮아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범죄발생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범위한 범죄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도원 외(2021)은 국내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발생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강력범죄 및 외국인 범죄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국인의 두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최영식·강석진(2012)은 외국인 밀집정도가 외국인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범죄통계 자료, 사회지표 자료,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외국인의 범죄발생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범죄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김병학 외(2013)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비밀집지역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가를 고찰한 결과, 전국 기준에서는 살인을 제외하면 중국인 강력범죄가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지만,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들은 외국인 증가, 밀집도에 따른 범죄발생, 내국인들의 범죄 두려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동준(2012)은 불법체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은 오히려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잠재적 가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잠재적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함을 강조하였다.

외국인 밀집거주와 범죄 발생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이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수행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2-4]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특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신동준 (2012)	외국인 노동자범죄의 사회적 요인 도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 외국인은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
최영신·강석진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범죄의 구조적·환경적 요인 도출	- 문헌연구 - 범죄통계 분석 - GIS 분석 - 현장조사 - 심층면담조사	-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침
김병학 외 (2013)	외국인 노동자의 거리아용 패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한 가로 활성화 방법 제시	- 문헌연구 - 범죄통계분석 - 면접조사	-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에 내국인 및 비밀집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윤영·이미경 (2020)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폭행범죄피해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사회문제 고찰	- 설문조사	- 가해와 피해의 국적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
김도원 외 (2021)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문헌연구 - 범죄통계분석 - 지역단위 패널 자료 분석	-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 발생 증가 실증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외국인 증가와 범죄 두려움 관련 연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 간에 상관관계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증가와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국인들의 범죄 두려움이 높아진다'라는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민지선·김두섭(2013)은 거주지역의 인종구성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조선족, 한족, 동남아시아인, 일본인과 같은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서만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성훈(2013)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입과 내국인의 범죄두려움 및 범죄위험인식 간에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범죄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국인의 범죄위험인식에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최재연 외(2013)는 이태원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내·외국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지적·정서적 이미지가 전체 만족도에 주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룹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인 방문객과 상인이 외국인 거주민보다 지역의 정서적 이미지에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진·서원석(2018)은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높은 외국인주민 비율은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유입에 대한 지역민들의 범죄두려움은 외국인에게 봉변당했다는 소문, 무리지어다니는 외국인들의 특성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차철욱 외, 2013), 이들을 자주 접촉할수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외(2020)는 김해지역 구도심 거주민과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접촉빈도가 높은 구도심의 거주민이 접촉빈도가 낮은 신도시 시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혜림(2020)은 부산지역 외국인주민과의 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5]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 및 인종구성과 범죄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 아질수록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 유발 - 중국 조선족, 한족, 동남아시아 인, 일본인과 같은 특정 인 종 집단에 대해서만 부정적 태 도를 지님
노성훈 (2013)	외국인 유입과 내국인의 범죄두려움 및 범죄위험인식 간 영향관계 분석	- 설문조사	-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범죄두 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범죄위험인식에는 유의 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강수진·서원석 (2018)	외국인 국적과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순서형 로지 스틱분석	- 지역 내 높은 외국인주민비율 은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대연 외 (2013)	문화 공간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와 지역이미지 및 만족도 간의 영향고찰	- 설문조사	- 한국인 방문객과 상인이 외국 인주민보다 지역의 부정적 이 미지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
차철욱 외 (2013)	외국인 거리에 대한 내·외국인의 공간적 이미지 차이 고찰	- 문헌연구 - 심층인터뷰	- 외국인에게 봉변당했다는 소 문, 살인사건, 무리를 지어 다 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주는 위압감, 위생문제 등 외국인 거리의 부정적 이미지 존재
김남희 외 (2020)	외국인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수준 비교 분석	- 설문조사	-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높음

출처: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사업 동향 분석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외국인 관련 중앙정부의 법·제도 현황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외국인주민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그 자녀를 외국인주민으로 지칭하고 있다. 외국인은 헌법 제6조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업무 및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인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처음으로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 외국인처우법) 있으며, 해당 법률 제4조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외국인 관련 최상위 법임을 알 수 있다. 이후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 다문화가족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9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고용법), 2010년에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다루게 되었다.

[표 2-6] 외국인 관련 법 현황

구분	제정 연도	내용 및 목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 및 발전에 이바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9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9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체류외국인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출입국관리법	20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3.05.31.)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과 관련된 최상위 법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처우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처우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한외국인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외국인처우법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07년 7월 18일에 재정되었고 `08~`12년의 1차 계획, `13~`17년의 2차 계획, `18~`22년의 3차 계획까지 수립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중이다. 각 기본계획에 따른 비전과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외국인 인권 옹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출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민자 지원확대, 행정절차 개선, 인종관련 인권인식의 긍정적 제고와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단순기능 인력 편중 심화 및 정주화 증가 및 불법체류자 증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편중,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¹⁾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인재유치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외국인투자유치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국제관련 법·제도 정비, 이민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 및 안전에 대한 시스템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단순 기능인력 위주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장기거주화가 진행되었으며, 국민 일자리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통합 사업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다른 재한외국인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²⁾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 2차 계획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시행하였다.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민자 유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체계를 정비하여 재한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에 걸 맞는 자질을 갖추도록 유도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처별 분산되어있는 이민관련 위원회 간 연계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을 정례화하여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중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균형적 이민정책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적 이민정책이란 중앙에 집중된 정책이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집중된 정책에서 탈피,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고려한 정책, 국제적 맥락의 국내적 적용하는 기준 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국제협력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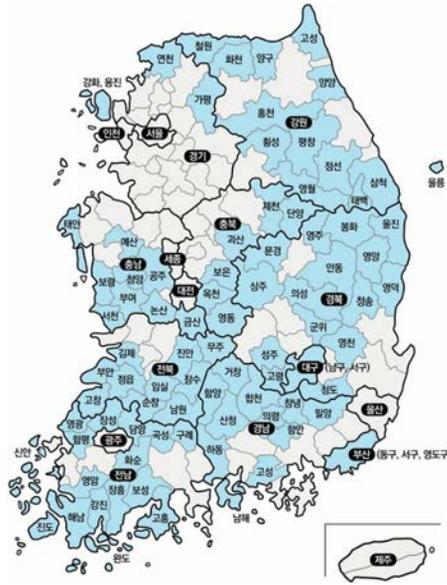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내 이민정책연구원 조항 신설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는 출산을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로 인하여 이민에 관련된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내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의 2조항을 신설하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 관련 조사, 연구, 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2, pp.11-16)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2, pp.8-17)
 3) 조영희 외. (202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9355호. 제22조 제2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외국인 지원 관련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 인구감소지역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림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출처: 행정안전부(2023,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검색일 : 2023.05.15.)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하며,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으며, 역차별 논란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확대, 부처 간 협력체계 부족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⁵⁾ 제2차 기본계획은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장기 정착보다는 초기 적응중심의 정책 위주로 운영되었다.⁶⁾

제3차 기본계획은 종합적 서비스 지원 확대, 자녀양육지원 확대,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⁷⁾,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기본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가구유형별 지원서비스,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 해소, 범 부처, 지자체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8]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구분	연도	비전	정책목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세계국가구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제4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23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출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4차)

- 5)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pp.7-12)
- 6)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pp.2-4)
- 7) 제4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pp.6-8)

2) 외국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 현황

□ 외국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조례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 지원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으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그 외에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지자체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정의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⁸⁾

[표 2-9]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조항	지원대상	주요내용
제7조 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교육·홍보 생활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교육·정보제공 상담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 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 생활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외국인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일자리연계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결혼이민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건강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의료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출처: 법제처(202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검색일: 2023.05.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제 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례를 통하여 구성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표 2-1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주요내용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 주체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함 내용 지원의 목표와 비전, 지원 시책, 재원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행 주체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위원 위촉 대상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서울특별시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중 5명

출처: 법제처(202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검색일: 2023.05.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를 예시로 살펴보면, 제2조에서 외국인, 거주 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9)

[표 2-11]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항	지원대상	주요내용
제6조 지원의 범위	거주외국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및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출처: 법제처(2023,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검색일: 2023.05.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1340호. 제6조.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외국인의 편의를 개선하거나 외국인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국인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존재한다.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¹⁰⁾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행안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받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생산과 소비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지역우수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범죄이력이 없고 일정수준이상의 한국어능력 (TOPIC 3급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소득이 1인당 GNI 70% 이상 (*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대상이 되며,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동포 가족의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실 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표 2-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결과

구분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	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기초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연천군, 가평
	경상남도	고성군

출처: 법무부 공고 제2022-408호, 제2022-278호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0)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7월 25일 보도자료.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운영

출산율 감소와 노후화,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로 국내 생산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민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총괄을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2022년에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토크보기’를 시행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분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민청 설립에 대해 공감대 형성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김화연, 2023). 법무부에서도 해외 선진 이민정책을 도입하고자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담 조직의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3).

□ 행정안전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¹¹⁾

2012년 4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주민이 주민등록인구의 10%이상이거나 300명이상인 51개시군구 중 19곳을 선정하여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다문화 만남의 장소 조성, 결혼이민자 쉼터 조성 등과 같은 편의시설 조성과 CCTV설치 보안등 설치와 같은 범죄예방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2-13] 2011년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개선 사업 지원규모

자치단체		사업명	사업비(단위 : 백만원)
합계		13건	3,173
서울	영등포구	외국인밀집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140
	용산구	이태원로변 상가 간판 정비 지원	350
부산	강서구	유에프 쉼터 및 아이유 마당 조성	200
	중구	월미커뮤니티센터 조성	273
인천	남동구	호구포 다문화 만남의 장소 조성	500
	안산시	다문화 홍보 학습관 조성	100
경기	시흥시	외국인주민 편의시설 설치	500
		결혼이민자 쉼터 조성	100
	남양주시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 건립	210
전남	영암군	다목적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500
	창원시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100
경남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00
	김해시	외국인 밀집지역내 공원정비	100

출처: 전주연(2011,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방범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CCTVNEWS, 4월 13일 기사,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 검색일: 2023.05.15.)

11) 전주연. (2011).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방범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4월 13일 기사.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검색일: 2023.05.15).

□ 행정안전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 정착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내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1억원을 70개 지자체에 지원해왔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문화·편의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충 사례

충남 아산시, 다문화 가족 안정 정착 지원...맞춤형 정책 추진

충남 아산시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2위, 도내 1위인 도시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고 한국어 교육과 함께 취·창업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히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 언어교실 프로그램은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2-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활동 모습

출처: 김형태(2022,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지원...맞춤형 정책 추진. ATNnews, 4월 22일 기사. <https://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96>, 검색일: 2023.05.13.)

□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¹²⁾ 설치 및 운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지원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갈등 중재,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에 대한 교육, 문화행사 개최,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등이 있다. 전국에 10개의 거점센터와 36개의 소지역센터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수립·평가, 제도개선, 운영기관선정, 보조금편성·교부·집행·운영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에 센터를 통한 상담, 교육사업, 운영을 위임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례

- 시설 면적 : 총 면적 2,159.02㎡
- 운영 대상 : 부산·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 중 약 1만여명
- 업무 시간 : 금·토 휴무 후 일요일 정상근무
- 사업 내용
 1. 상담
 - 일반상담 : 문화적 충격 완화, 문화이해 상담 및 한국적응을 돕는 생활 상담
 - 법률상담 : 법률관계, 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 안전과 인권 침해 등
 - 의료상담 : 질병치료 및 사고처리 상담, 건강 진단
 - 생활 및 금융 상담 : 생활적응지원, 금융상담(외화송금 지원 등)
 - 취업상담 : 사업장 변경 취업안내 등
 2. 교육
 -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정규수시과정교육(산업안전, 귀국의식, 생활법률, 정신건강교육), 특성화수시과정교육(문화적응, 운전면허, 고용주교육)
 3. 문화행사 국가별 커뮤니티
 4. 특성화 사업 : 무료진료 및 각종 검진 사업
- 사업 실적

구분	시설이용 (카페, 도서관, 정보 검색대, 대강당)	무료진료	상담 (전화, 방문, 내방 포함)	교육 및 문화
2022	5,649	175	30,277	18,648

출처: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023, 센터소개, 사업안내, <http://www.gimhaekorea.or.kr/sub01/sub02.php>, 검색일: 2023.05.15.)

12) 고용노동부. (2023).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6.do>(검색일: 2023.05.15.)

□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¹³⁾

중앙정부의 디자인 정책 강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다양한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예산 부족 및 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획 및 관리체계의 부재로 단발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었다.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중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김해에서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김해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들이 들어섰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중심지가 되었다. 구도심 재생사업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환경으로 특화하고 가야문화재 관광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호계천 주변 창의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사업은 외국인 상가가 위치한 건축물 및 가로환경의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2차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과 폐점된 상가와 공원을 활용한 광장조성 사업, 3차 사업은 실개천조성 및 전통건축물에 가까운 외형조성 사업을 목표로 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에서는 1차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 사업으로 문화재 복원을 통한 가야역사문화디자인 공공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을 시행한 초기 취지는 ‘다문화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내국인의 거부감과 외국인 참여 부재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의 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가로 정비로 방향성이 다소 변질되었다.

□ 경찰청 외사안전구역¹⁴⁾ 지정 및 운영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치안 활동을 목표로 외국인 밀집도·범죄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최초 7개소를 지정한 이후, 2023년 현재 총 30개소가 지정된 상황이다.

외사 안전구역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치안환경, 외국인 범죄 현황 등의 치안 불안 요인들을 점검·해소하고 있

13) 염철호. (2010, pp.26-27. p.80)

14) 경찰청. (2019).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와 함께 외사 안전구역에서 셉테드(CPTED) 추진. 3월 18일 보도자료

다. 두 번째, 외사안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내국인 및 외국인)과 유관기관(지자체·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치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 번째, 외사안전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활동 등의 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치안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4] 외사 안전구역 지정 현황

관할청	시군구	외사안전구역(읍면동)
서울	용산	이태원
	강남	역삼
	마포	서교
	영등포	대림
	광진	자양
	금천	독산
	구로	가리봉
	관악	신사
	동대문	회기
부산	남구	대연
대구	성서	이곡·신당
인천	서구	석남
	연수	함박
광주	광산	월곡
울산	울주	온산
경기남부	수원	지동
		매산·고등
	안산	원곡
	시흥	정왕
	평택	신장
	오산	중앙·대원
	화성	향남
	김포	통진
	용인	중앙
	경기북부	포천
충북	음성	대소·금왕
충남	아산	신창
경북	경주	성건·외동
경남	김해	동상
제주	제주	연동·노형

출처: 라광현·함혜현(2021, p.150); 강유찬(2022,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더코리아. 9월4일 기사. http://www.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9760, 검색일: 2023.05.12.)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외사 안전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유관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치안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들을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5]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구분	내용
구성	위원장(경찰서장)
	유관기관(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내외국인주민대표 등)
운영방식	분기별(연 4회) 협의회 개최, 주요 치안현안 발굴 및 대책 등 논의 유관기관 협력
역할	외국인 대상 홍보
	내·외국인 합동행사 추진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출처: 경찰청(2019, 3월 18일 보도자료)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19년 3월에는 외사안전지역에서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해 CPTED 사업을 도입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과 협업하여 외사 안전구역에서의 CPTED 정책과 체감 안전도 상관관계를 연구, 외사 안전구역 지역특성별 적합한 CPTED 모델을 구축하였다. CPTED 정책은 「환경진단 ⇨ 계획수립 ⇨ 사업실행 ⇨ 평가·환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단계는(3.18.~4.17.) 범죄 발생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 범죄예방진단팀·전문가·지자체와 함께 범죄 취약지점을 진단하고, 2단계는(4.18.~5.17.) 진단결과를 주민과 공유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예정이다. 3단계는(5.18.~9.17.) CCTV·보안등·비상벨 등 지점별 맞춤형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4 단계는(9.18.~10.17.)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체감안전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환류하는 것이다.

□ 외국인 주민 대상 치안센터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치안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존의 치안센터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할 경찰서에서는 외국인들에 특화된 치안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외국인의 범죄피해와 외국인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대상 치안활동의 증추가 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센터의 명칭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다문화치안센터(김해시), 외국인특별치안센터(안산시, 제주시, 천안시), 다사랑경찰센터(시흥시), 다문화경찰센터(수원시)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 공급, 우범지역 순찰, 외국인 커뮤니티와 핫라인 구축, 외국인 밀집지역 단속, 지역안전순찰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순찰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의사경찰이 배치되어 단순한 외국인 대상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상담 및 민원업무 지원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해다문화치안센터 운영 사례

김해 동상동은 김해시의 대표적인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방문할 수 있는 외국인 식당, 상점,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한 곳이다. 주말에는 김해를 넘어 부산과 인근의 외국인주민들이 방문하여 유동인구가 2,000 명을 넘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거리를 형성한다.

외국인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김해시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일반적인 치안센터와는 달리 카페와 같은 구성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 및 민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의 치안문제에 더 용이한 접근을 위해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와 저녁,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근무하고 있다.

- 설립 시기 : 2016년 12월
- 관할 범위 : 동상동·서상동 일원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 운영 시간 : 평일 오후 1시~ 밤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 사업 내용

1. 지역안전

- 치안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범지역 순찰 및 사전 조치
외국인명예경찰대와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
- 상담 : 범죄피해, 법률, 일상생활 등
- 하라인 구축 : 외국인 커뮤니티와 하라인 구축을 통해 치안활동 연계

2. 범죄예방 교육

3. 타기관협업

- 유관기관 협조 : 유관기관과 외국인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
- 외국인 종교행사시 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



[그림 2-3] 김해다문화치안센터

출처: 김해다문화치안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¹⁵⁾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련 기관들에 위탁하여 대한민국에 장기체류가 예정된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언어별로 교육하고 있다.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연예인(E6-2 비자), 결혼이민자(고시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이나, 고시국가 외 결혼이민자 등은 자율참여 대상자이다.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한다. 2022년 기준 지역별로 47개 관할 239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18개 언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기초법·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생활법률, 출입국·체류관련 기초내용)와 한국 사회적응정보(긴급사항 대처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교통, 의료, 통신, 은행 등의 이용방법,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문화 시설 이용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를 중심으로 대상에 따라, 유학정보, 인권보호 교육이 추가된다.

[표 2-16]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외국인 유학생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필수 생활정보
결혼이민자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중도 입국 청소년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출처: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 검색일: 2023.10.18.)

15)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검색일: 2023.10.18.)

3) 해외 외국인 대상 정책 지원 사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시작되었고, 단순한 노동력으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깝다. 그에 비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해외의 국가들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세월 외국인을 받아들여 왔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있어 왔다. 해외사례 조사는 크게 ‘전통적 이민 국가’와 ‘유럽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 전통적 이민 국가¹⁶⁾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자들이 수립한 국가들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주가 용이하며,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연간 도입 쿼터를 통해 제한된 규모의 영주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은 주로 시민, 영주권자에 집중되어있다.

□ 캐나다 외국인 주민 정책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외국인이 캐나다로 이주해 오며, 전체 인구 중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이주해 온 인구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23%인 약 830만명에 달한다.¹⁷⁾ 2021년에 증가한 영구 이민자 수는 약 41만 명이고, 신규 임시 이민자 수는 약 86만 명으로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여, 캐나다 인구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⁸⁾

캐나다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캐나다 환경관리연구소의 조사결과 캐나다의 이민자 비중에 대하여 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는 1977년의 61%의 부정적 답변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사업을

16) Hollifield, J., Martin, P., & Orrenius, P.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7) 서울경제. (2022).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역대 최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KB1N7KR>(검색일: 2023.10.18.)

18) Kotra. (2023). 캐나다, 2023~2025년 신규 이민 160만 명 유치 계획 발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5397(검색일: 2023.10.18.)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사업의 수행은 문화유산부와 시민이민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화유산부에서는 역사, 인권, 언어의 세 가지 분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문화와 역사를 통해 캐나다인으로서의 동질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인권 및 문화예술을 활동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체에 결합되는 것을 노리며, 캐나다의 공식 언어를 배우고 다른 언어와의 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교육이다.

시민이민부에서는 정착, 재정착, 시민의식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정착을 위한 다문화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민간위탁으로 수행되며, NGO나 국가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이민자 개인의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St. James Town 운영 사례

St. James Town은 토론토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문화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과 이웃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이웃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신규 이민자의 건강과 건강인 지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부정적인 면
 - 신규이민자들은 언어적 취약함으로 취업 및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 있지만 시간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
 - St. James Town의 **환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기 좋은 공원도 없으며, 주거용 건물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우려하고 있다.**
 -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아동교육과 의료시설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 **높은 인구밀도와 다양한 사람들로 인한 혼잡함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낯선 사람이 당신을 해치고 물건을 훔칠 수 있다는 범죄두려움이 있었다.**
 - 마약중독자들의 문제와 총기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과 다른 주민들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소문들(마약중독자, 매춘부, 노숙자)이 부정적이다.
- 긍정적인 면
 - **직장, 지역 식료품점, 외국인 식품매장, 지역 사회서비스(학교, 관공서)가 가까운 점과 주변 지역에 위치한 문화적으로 친밀한 이웃의 존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해결방안
 - 중앙정부 : 건강권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 이민자들 참여시켜 건강 불평등 감소
 - 지방정부 :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자원에 대한 노출 개선
 - 언어 및 의료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
 - 고용과 빈곤 문제를 해결
 -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방자치단체 : 지역수준 의사결정에 외국인 주민 참여

출처: Nasim Haque et. al(2010)

□ 캐나다 주택 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 Report)¹⁹⁾

캐나다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것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교통비용에서 주거비용, 보험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중 주거와 관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정의한 대로 적절하고 적합하며 저렴한 주택을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택은 농장 내부에 있는 시설일 수도 있으며, 외부의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각 숙박 시설의 수용 인원이 허용된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착일 부터 출발일 까지 승인된 숙소별로 모든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충분한 숙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숙소를 제공할 때, 외국인들의 월급에서 투숙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주당 30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는 주택검사보고서(HIR)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 고용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있다. 주택검사보고서의 항목은 주거지 내부와 외부로 점검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다양한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다. 숙소의 종류부터, 내부 시설들의 상태(물리적 상태, 조명, 환기, 방충설비 등), 방한 시설, 주거면적, 필수 가구 수량, 수자원 공급, 화재예방 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인원대비 구비 항목수와 같은 여러 항목이 있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나 위험에 대한 점검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내부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요소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검사 리포트 中 화재 안전 분야 설문

FIRE SAFETY
1. How many fire extinguishers are available within the housing? An adequate number of fire extinguishers have to be available near all room exits and it is mandatory to have one in the kitchen. Employer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workers know how to operate the fire extinguishers. Number of exits: _____ Number of extinguishers: _____
2. Where are the fire extinguishers located within the housing? Failure to demonstrate that one fire extinguisher is located in the kitchen will result in a failing the housing inspection. <input type="checkbox"/> Kitchen near exit (mandatory) <input type="checkbox"/> Living room near exit <input type="checkbox"/> Dining room near exit <input type="checkbox"/> Bedroom near exit <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3. Are the fire extinguishers provided within the housing operational and fully charged? Employers must have a certificate indicating that the fire extinguishers within the housing are being recharged every 6 years by a fire service, and that the fire extinguishers are being inspected every year. Employer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housing meets the fire code standard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housing is locat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Could not be verified during this inspection due to: _____

출처: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2018, p.7)

19)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18). Housing Inspection Report,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and agricultural stream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html>(검색일: 2023.06.16)

2) 유럽 국가²⁰⁾

전통적 이민국가처럼 이민자들의 비중이 큰 국가는 아니지만, 과거 식민지 출신의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유럽연합 형성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같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구이민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임시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럽연합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위한 공통의 기본 원칙(European Council agreement on common basic principles on immigrant integration)²¹⁾

유럽연합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하여, 2004년에 EU 회원국들에게 이민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민자 통합 정책을 위한 공통의 기본원칙」을 통해 이민자는 유럽 사회의 특징이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민자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 문화적 다양성 등의 이득과 세계 속에서 유럽연합의 위상제고가 이루어짐을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1. 통합은 회원국의 모든 이민자들과 주민들에 의한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인 과정이다.
2. 통합은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3. 고용은 통합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민자들의 사회참여 및 기여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4. 이민자들에게 호스트 사회의 언어, 역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더 성공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6. 이민자들이 공공 및 민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과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7. 공유 포럼, 문화 간 대화, 이민자와 이민자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이민자와 회원국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8.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실천은 기본권 헌장에 따라 보장되며, 이러한 실천이 다

20) Hollifield, J., Martin, P., & Orrenius, P.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4). 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the EU, 2618th Council Meeting, pp. 9-14

른 유럽의 권리 또는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9. 지역 차원에서 이민자들이 민주적 과정과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0. 정부 및 공공서비스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11. 효과적인 통합정책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지표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 중에서도 물리환경 조성/개선과 관련된 항목은 6번, 10번으로 이민자들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공 기관 이용을 자국민과 동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스웨덴 외국인 주민 정책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과거부터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던 국가 중 하나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복지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스웨덴으로 이주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복지가 제공되고,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외국인 주민 대상 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²²⁾ 모든 외국인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유형과 관계없이 스웨덴 주민으로 간주되고, 1980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법」에 기반하여 사회보장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률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별로 지역 특성과 이주민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²³⁾ 외국인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로는 연금, 고용, 공적부조, 언어교육(스웨덴어), 모국어 교육권, 통역지원, 법률지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²⁴⁾의 유럽 내 이주국가별 사회보장혜택이 소개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아동 수당, 주거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등이 제공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업무기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 이창원. (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창간호 (1) pp. 72-73.

23) 김유휘, 이정은, 신영규, 임덕영, 김경현, 이지은. (2022).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8

24)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검색일: 2023.10.18.)

□ 스웨덴 예테보리시 외국인 주민 정책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남서쪽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스웨덴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²⁵⁾ 예테보리시는 스웨덴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적응을 위해 담당부서를 설립하였다.

[표 2-17] 예테보리시 외국인 적응 담당 부서

행정부	하위 부서	서비스 세부 내용
사회복지	통합센터	시민 오리엔테이션
		정보 안내소
		난민 가이드 및 언어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자립	외국인 도착 접수
		신규 도착 외국인 자립 지원
		외국인 및 외국인의 가족 관련 행정
		외국인에 대한 재정 지원
노동시장 및 성인교육	교육	스웨덴어 공부 및 성인 교육 지원
자산 관리	주거	외국인의 주거 지원

출처: Björkman, K. F., Spehar, A.(2019, p.3)

외국인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부서에는 통합 센터(The Integration Centre)와 외국인의 자립을 담당하는 부서(The Establishment Unit)가 있으며 또 다른 부서로 교육 담당 부서와 주거 담당 부서가 있다.²⁶⁾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통합센터(Integrationscentrum)는 외국인들이 스웨덴에서 자립하고 스웨덴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설립되었다. 통합센터는 외국인들에게 시민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스웨덴에 대한 정보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웨덴 사회에 적응을 도와 준다. 이주민들이 스웨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가정과 사회,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교육과 직업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통합센터는 UCI (UtbildningsCenter för Integration)와 같은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이주민의 적응을 돕고 있다. 이주민들이 오리엔테이션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수업과 활동 등을 기획하고 제공한다.²⁷⁾ 자립센터에서는 재정지원과

25) Earth.esa.org. (2023). Gothenburg, Sweden. <https://earth.esa.int/web/earth-watching/image-of-the-week/content/-/article/gothenburg-sweden/> (검색일: 2023.10.18.)

26) Björkman, K. F., Spehar, A. (2019). New in the City: How newly arrived refugees experience reception and integration activities in the City of Gothenburg, 2015-2017. University of Gothenburg, Centre of Global Migration(CGM). p.3

보건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교육부서에서는 주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며,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스웨덴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부서에서는 이주민들에게 거주공간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호스텔이나 멜란보엔덴(Mellanboenden)이라는 공용주택에서 2~6개월 거주하며, 이후에는 ‘머물러가는 아파트’(Genomgångsbostader)나 임시 주택(Temporara bostrader)에서 최대 4년간, 가족이 있는 경우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머물러가는 아파트’는 기존의 임차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한 것이며, 임시주택은 10년에서 15년의 임시 건설 허가를 받고 지은 주택이다.



[그림 2-4] 외국인들을 위한 모듈 임시 주택

출처: Dagens Nyheter(2020, <https://www.dn.se/sverige/socialdemokraterna-i-goteborg-sj-alvkritiska-lagger-om-integrationspolitiken/>검색일: 2023.10.1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독일 이주민 통합정책²⁷⁾

독일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인 이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민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에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기존의 독일 체류허가정책은 비EU출신 외국인이 2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2년간의 노동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이민법이 통과됨에 따라, 체류조건을 조정하여 비EU출신 외국인의 이민 장벽을 낮추었다. 이민 장벽을 낮추고

27) Uci.se., <https://uci.se/>(검색일: 2023.10.18.)

28) 박명선, (2006).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1(4) pp. 64-67

동시에 외국인들의 독일사회 적응을 위하여, 독일어와 문화, 역사 등의 교육 참여가 법적 강제성을 띠게 하였다. 교육 참여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였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었다.

독일 이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초기오리엔테이션과 통합강좌가 제공되었다. 초기 오리엔테이션은 각 주와 자치단체에서 이주민이 일상생활에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주택임대, 직업 소개 등과 같은 내용을 출신 국가 언어로 제공하였다. 통합강좌의 경우에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 법과 질서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과 독일어 교육이 제공된다.

독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상주거주지(habitual residence)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상주거주지 기준이란, 단기 거주가 아닌 장기거주를 의미하며, 지리적 위치와 경제활동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독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실업수당, 시민수당,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소득지원, 건강보험과 같은 것이 있다.

3. 소결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할 근거 법령의 정비와 필요하였고, 2007년에 제정된 외국인처우법을 통해 기존에 다양한 법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던 외국인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시작되었다. 외국인처우법을 통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주민으로서의 권리 증진과 이민 행정,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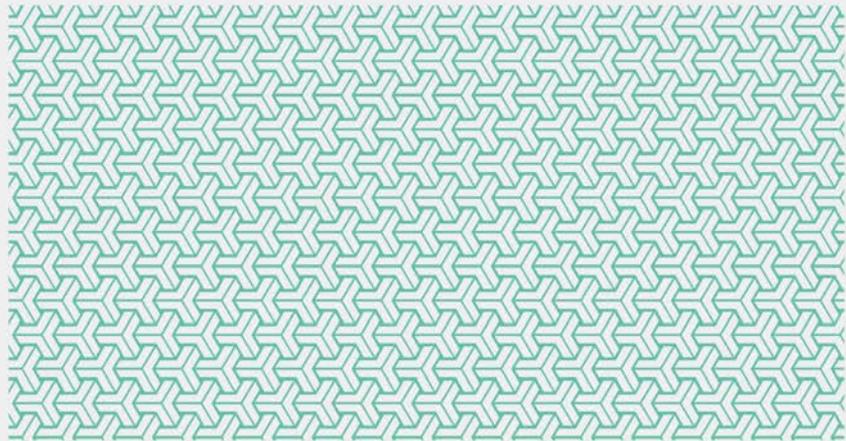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결혼으로 증가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결혼의 관리와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등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조례는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행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경찰청의 외사안전지역 지정,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 정부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련 법·제도는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이 아닌 노동자 정책 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구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환경의 개선도 대부분 종합지원센터의 신설 등 지역의 전반적인 개선이 아닌 시설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고학력 우수인재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기능인력 위주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한 노력도 단기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관련 정책도 외사 안전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연속성이나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진행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교육 및 통역과 같은 지원서비스이며, 두 번째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영역을 외국인 주민에게 확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맞이하기 위해, 소통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센터 설립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주거시설의 공급이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사례처럼, 정부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민간에서 외국인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소의 공급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1. 현황 분석 개요
2. 현황 분석 대상지 도출
3. 현황 분석 내용
4. 소결

1. 현황 분석의 개요

□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134,569명(총 인구대비 4.1%)으로,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17개 시·도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 경기의 외국인이 714,497명(33.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서울의 426,743명(20.0%)과 인천의 134,714(6.3%)와 합천 수도권의 외국인 수는 1,275,954(59.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시·도별 외국인 현황

시·도	총인구 수(명)	외국인 수(명)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전체 외국인 대비 구성비(%)
계	51,738,071	2,134,569	4.1	100.0
서울	9,472,127	426,743	4.5	20.0
부산	3,324,335	72,361	2.2	3.4
대구	2,387,911	51,140	2.1	2.4
인천	2,957,044	134,714	4.6	6.3
광주	1,475,262	41,181	2.8	1.9
대전	1,479,740	33,078	2.2	1.5
울산	1,120,753	34,800	3.1	1.6
세종	366,227	9,335	2.5	0.4
경기	13,652,529	714,497	5.2	33.5
강원	1,521,890	37,230	2.4	1.7
충북	1,624,764	73,529	4.5	3.4
충남	2,175,960	124,492	5.7	5.8
전북	1,787,053	60,684	3.4	2.8
전남	1,778,124	66,871	3.8	3.1
경북	2,635,314	98,197	3.7	4.6
경남	3,305,931	123,074	3.7	5.8
제주	673,107	32,643	4.8	1.5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VDR0AzGx8Dd33ezU.node20?bbsId=BBS_MSTR_00000000014&nttlId=96092, 검색일: 2023.06.0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시도 데이터 상으로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외국인이 밀집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군구 또는 동 단위에서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사점이 큰 연구 대상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현황 분석 대상지역 도출 과정

[표 3-2] 현황·분석 대상지역 도출 과정

단계	선정 기준	세부 내용	도출 지역
(1)	지역구분에 따른 대상지 분배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외국인 연구를 지방으로 확장하고자 지방 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도권 내 특수한 사례지 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 1개 시군구 - 지방(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중 2개 시군구
(2)	외국인 인구 상위 광역 경제권 도출	외국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권역 선정	-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3)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 거주구역 선별	외국인 1만 명 이상이며,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지역	- 총 36개 시군구(수도권 27개 시군구, 충청권 4개 시군구, 동남권 2개 시군구 등)
(4)	지역 특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최종 대상지 선정	(1)~(3) 단계의 과정으로 도출한 대상을 최종적으로 지역 특성, 공간유형을 고려한 최종 대상지 선정 (지역 특성 고려사항) 1. 수도권 내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역 2.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3. 외국인 인구가 많고 다양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유형1.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원 유형2. 지방 도시 원도심 지역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유형3. 농어촌 중심지역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

출처: 연구진 작성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대상지를 도출하기 위해 4단계를 거쳤다. 1단계에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도권 1개소와 비수도권 2개소로 대상지를 분배하였다. 외국인들은 인접한 여러 개의 지역들에서 소비, 여가, 문화, 노동 등의 활동을 영위한다. 2단계에서는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높은 상위지역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참고하여, 선정된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외국인 인구와 비율이 높은 시군구를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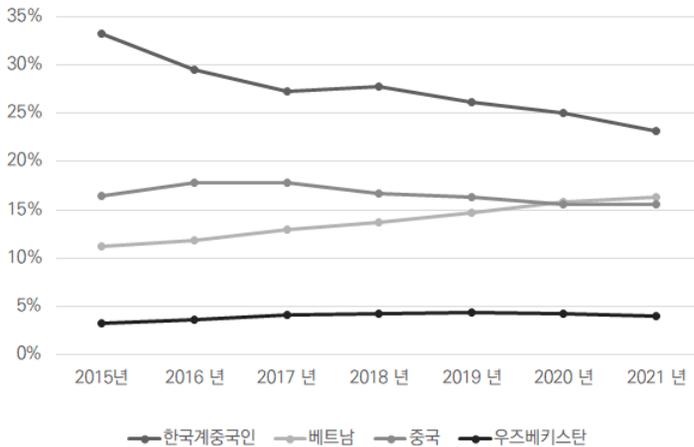
마지막 4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의 결과를 종합하고 전문가 및 지역 경찰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중 다양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공간 유형은 ①수도권 저층 주거지역, ②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③농어촌 중심지역 3가지로 구분하였고 최종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으로 선정하였다.

□ 1단계 - 지역 구분에 따른 대상지 분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021년 지자체 주민등록 기준으로 1,093,891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253,533명 그리고 중국인이 170,85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2021년까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2015년)에서 23.1%(2021년)로 감소하였고, 중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2015년)에서 15.6%로 감소한 반면,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2015년)에서 16.4%(2021년)로 증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015년)에서 4%(2021년)로 증가하였다. 중국인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베트남에 추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한 수도권만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은 지역별 현황을 확인하고자 예비 대상지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이한 사례가 발견되어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개 시군구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2개 시군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3-1] 전체 외국인 대비 국적별 비율 변화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vw_cd=MT_ZTITL&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 검색일: 2023.06.01.)

[표 3-3] 외국인 시군구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국적(지역)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한국계중국인	318,768	345,318	332,525	286,933	253,533
베트남	151,385	170,707	187,334	181,415	178,928
중국	208,343	207,777	208,081	178,910	170,852
우즈베키스탄	47,722	52,585	56,237	48,371	44,470
캄보디아	45,713	45,247	45,016	40,222	40,263
필리핀	45,236	45,305	45,354	40,687	38,035
네팔	35,426	38,862	40,933	38,527	35,447
타이(태국)	30,196	31,416	32,633	30,801	31,347
인도네시아	36,917	37,429	37,043	33,239	30,514
미국	24,166	24,602	26,025	25,910	28,76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23.06.01.)

□ 2단계 - 외국인 인구 상위 광역경제권 도출

외국인들은 해당 거주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도로 오가면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 정보 교류 활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외국인 상위지역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지역을 광역경제권에 따라 구분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된 한국 유입 목표가 경제적 활동인 것을 볼 때, 시도단위의 비교보다 광역경제권에 따른 권역분류로 지방의 외국인 현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규모가 큰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시군구 각 1개소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3-4] 권역별 외국인 현황

권역구분	주민등록 인구(명)	외국인 인구(명)	외국인 비율(%)
계	51,738,071	2,134,569	4.1
수도권	26,081,700	1,275,954	4.9
충청권	5,646,691	240,434	4.3
동남권	7,751,019	230,235	3.0
호남권	5,040,439	168,736	3.3
동북권	5,023,225	149,337	3.0
강원권	1,521,890	37,230	2.4
제주권	673,107	32,643	4.8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 검색일: 2023.06.0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3단계 -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거주구역 선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²⁾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총조사, 주민등록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통계 DB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의 국적·성·유형·연령별 현황, 다문화가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매년 외국인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곳을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선별하고 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은 2021년 기준 수도권 45개 시군구와 지방 41개 시군구 포함 86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3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선별 기준을 활용하여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 10% 이상이면서, 외국인 수 1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인 시군구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충청권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아산시 4곳이 포함되었고, 동남권에는 김해시, 울주군 2곳이 포함되었다. 서귀포시와 경주시, 경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27곳은 수도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외국인 집중거주구역 선별

구분	인구 대비 10% 이상 지역	인구 대비 5% 이상 지역
외국인 수 5만명 이상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외국인 수 1만명 이상	안산시, 포천시, 음성군, 서울 중구, 진천군, 금천구	김해시, 관악구, 광산구, 연수구, 동대문구, 광진구, 광주시, 오산시, 경주시, 용산구, 서대문구, 경산시, 양주시, 인천시, 종로구, 울주군, 서귀포시, 당진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김포시, 부평구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96092, 검색일: 2023.06.0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행정안전부. (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96092 (검색일: 2023.06.07.)

□ 4단계 - 지역 특성 파악 및 전문가 자문³⁾을 통한 연구 대상지 선정

1~3단계를 통해 수도권 27개 시군구와 충청권의 4개 시군구, 동남권의 2개 시군구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도 지역 특성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사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가지 유형별 대표 사례지로서 동 단위의 분석 대상지를 최종 도출하였다.

- 유형1.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원

대표적인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은 가리봉동, 대림동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리봉동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저렴한 숙소가 위치해있었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계 외국인이 이주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였다. 가리봉동이 2000년대 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 대림2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⁴⁾

가리봉동과 대림2동이 한국계 외국인이 산업단지와 상업지구와 인접한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집거지로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주거 이동의 새로운 흐름이 확인된다. 기존의 외국인 집거지가 아닌 관악구 신사동으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악구 신사동은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집거지와 달리 주거 기능 중심으로 외국인의 집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신사동 일대에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익창출을 위해 방문한 노동자이기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서울 관악구 신사동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내·외국인 거주지역의 근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 유형2.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경남 김해시(29,488명, 5.4%)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천안시(34,908명, 5.1%)와 아산시(32,809명, 9.4%)를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수도권과의 밀접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 상 편의로 인하여 외국인 인구가 많은 반면, 김해시는 지역 자체적인 특성에 의해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인(2,500명, 전체 주한 우즈베키스탄 인구 대비 4.17%)이 거주하고 있어서 중국계 한국인과 동남아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2015년 대비 2021년에 8,805명(1.6%) 증가하였으

3) 2023년 3월 31일, 6월 14일, 6월 16일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4)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krcn&contentsId=GC05308560>(검색일: 2023.06.07.)

며, 순 내국인은 4,280명(0.8%) 증가, 외국인인 4,528명(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감소하며 외국인이 증가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국인과 외국인수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2021년 11월 1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9%가 다문화가정이며, 약 2,000여 명의 다문화 2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884가구로 국내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외국인이 지역에 잘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해시에서 외국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특징적인 지역으로 동상동을 꼽을 수 있었다. 초창기에는 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통근하기 쉬운 인근에 주거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환경을 원하게 되었다. 동상동 일원의 구도심은 노후 환경으로 내국인이 빠져나갔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저렴하면서도 기존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동상동 일원은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찾아오는 일종의 거점 지역이 되었다. 김해 동상동 사례는 외국인들의 장기 거주지역으로써 지역 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 내·외국인의 공존을 가능케 한 환경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적응에서 정착으로 가기 위해 어떤 근린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유형3. 농어촌 중심지역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

마지막 대상지는 수도권권을 제외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중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인 충북 음성군(14,795명, 14.7%)이다. 충북 음성군의 인구는 2015년 이후로 2021년까지 4,199명(4.3%)이 감소하였으며, 순 내국인 인구는 7,487명(8.8%) 감소하고, 외국인 인구는 3,288명(2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인구가 소폭 하락하는 중에 내국인인구의 급감과 외국인인구의 급등으로 외국인 비율이 급증으로 외국인들이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인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분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소면에는 약 4,36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성군의 사례는 취업목적으로 지역에 방문하였다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린환경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근린환경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양아림. (2023). 김해시 다문화가정 매년 증가 추세. 경남도민신문. 1월 3일 기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901#0BNb>(검색일: 2023.05.13.)

2. 대상지 현황 분석

대상지별 현황 분석은 지역 전반의 인구사회 현황, 물리환경 현황, 주택 현황, 산업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3개 지역이 외국인 밀집지역 심층 사례 대상지로서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3-6] 대상지 현황 분석 주요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사용 자료
인구사회 현황	지역 개요	- 2030 관악구 생활권 계획 - 2035 김해 도시기본계획 - 2030 음성군기본계획
	인구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 통계DB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
	지역안전지수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
물리환경 현황	지역 생활권 현황	- 2030 관악구 생활권 계획 - 2035 김해 도시기본계획 - 2030 음성군기본계획
	용도지역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용도지역현황
	주택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산업경제 현황	사업체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총조사
외국인 현황	외국인 이주 변천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방자치단체 등록외국인 현황
	외국인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1)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 관악구 인구사회 현황

- 지역 개요

관악구는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하였으며, 관악구의 면적은 29.56km²로 서울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 인접지역으로 북쪽에 영등포구, 서북쪽에 구로구, 서남쪽에 금천구, 동쪽에 서초구, 동북쪽에 동작구, 동남쪽에 과천시, 남쪽에 안양시가 접하고 있다. 관악구의 이름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산에서 따왔으며, 3개 법정동, 2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 2호선과 강남순환로를 통해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인구현황

서울시의 인구는 50대 인구가 1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인구가 전체의 61%로 과반수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악구의 인구는 20대 인구가 2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20대 미만의 미성년자와 40대 이상의 인구는 더 낮으며, 20대와 30대의 인구가 높게 나타났다. 신사동은 관악구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미성년자와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낮으며, 20대와 30대의 인구가 4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의 비중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표 3-7] 관악구 연령별 인구구조

구분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계	9,428,372	100.0	486,752	100.0	22,646	100.0
0-9세	545,317	5.8	18,164	3.7	642	2.8
10-19세	749,118	7.9	26,328	5.4	1,024	4.5
20-29세	1,389,483	14.7	110,315	22.7	6,056	26.7
30-39세	1,425,808	15.1	87,246	17.9	4,130	18.2
40-49세	1,449,706	15.4	63,766	13.1	2,687	11.9
50-59세	1,492,802	15.8	66,065	13.6	3,040	13.4
60-69세	1,297,787	13.8	60,058	12.3	2,629	11.6
70세 이상	1,077,059	11	54,757	11	2,437	11

출처: 행정안전부(2022, 주민등록 인구 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3.06.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악구와 신사동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신사동의 남녀구성비도 남성이 약간 우세한 상황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표 3-8] 관악구 연도별 인구 변화

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소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2018	9,765,623	501,957	23,108	11,606	50.2	11,502	49.8
2019	9,729,107	500,094	22,862	11,441	50.0	11,421	50.0
2020	9,668,465	495,060	22,797	11,398	50.0	11,399	50.0
2021	9,509,458	485,699	22,560	11,345	50.3	11,215	49.7
2022	9,428,372	486,752	22,646	11,357	50.2	11,289	49.8

출처: 행정안전부(2022, 주민등록 인구 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3.06.10.); 통계DB(2022,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신사동은 1인 가구 등의 외부 유입이 많으며,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2015년 신사동의 1인 가구 비율은 47.7%이었으나, 2020년 58.3%로 증가하였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1인 가구 수 역시 증가하였으나, 신사동의 1인 가구 증가율은 36.9%로 서울시 24.6%, 관악구 28.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9] 관악구 신사동 가구 수 증감률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서울특별시	2015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920,839 (24.3%)
	2020	1,390,701 (34.9%)	1,033,901 (26.0%)	792,690 (19.9%)	764,998 (19.2%)
	가구수 증감	24.6%	11.1%	-3%	-16.9%
관악구	2015	100,302 (43.9%)	51,894 (22.7%)	37,713 (16.5%)	38,727 (16.9%)
	2020	129,233 (51.9%)	56,162 (22.6%)	33,671 (13.5%)	29,893 (12.0%)
	가구수 증감	28.8	8.2	-10.7	-22.8%
신사동	2015	5,321 (47.7%)	2,452 (22.0%)	1,696 (15.2%)	1,691 (15.2%)
	2020	7,282 (58.3%)	2,547 (20.4%)	1,487 (11.9%)	1,184 (9.5)
	가구수 증감	36.9%	3.9%	-12.3%	-3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1, 가구원수별 가구-읍면동, https://stat.eseoul.go.kr:443/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B010004&conn_path=12, 검색일: 2023.06.10.)

• 지역안전지수 현황

신사동이 속한 관악구는 교통분야 3등급, 화재분야 3등급, 범죄분야 3등급, 생활안전분야 3등급, 자살분야 3등급, 감염병 분야 2등급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감염병 부분에서는 관악구가 서울보다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교통,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서울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3-10] 관악구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서울	1	4	3	1	2	5
관악구	3	3	3	3	3	4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http://www.safemap.go.kr>, 검색일: 2023.06.10.)

교통 분야의 경우 2020년 이후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한 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범죄 분야의 경우는 3등급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과 관련된 지수도 개선되기 보다는 유지 혹은 소폭 악화로 나타나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전반의 안전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관악구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관악구	2018	1	3	3	3	3
	2019	1	2	3	3	2
	2020	3	3	3	2	3
	2021	3	2	3	3	4
	2022	3	3	3	3	3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http://www.safemap.go.kr>, 검색일: 2023.06.10.)

□ 관악구 물리환경 현황

• 지역 현황

관악구는 도시기본계획상 5대 권역 중 서남생활권에 속한다. 분석 대상지인 신사동은 난향동, 조원동, 마성동, 난곡동과 함께 '난곡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해당 생활권의 인구는 129,196명(2014년)으로 관악구 인구의 약 25%, 면적은 449ha로 관악구 면적의 약 15.2%이다.⁶⁾



[그림 3-2] 관악구 생활권 계획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2018, 2030 관악구 생활권계획)

[그림 3-3] 난곡 생활권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2018, 2030 관악구 생활권계획)

• 용도지역 현황

관악구의 주거지역비율은 51.8%이며 상업지역 비율은 1.3%, 녹지지역 비율은 46.8%로 서울시와 비교할 때 '주거용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3-12] 관악구 용도지역 현황

구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서울특별시	605,680,264	53.9	4.2	3.3	38.6
관악구	29,563,482	51.8	1.3	-	46.8
난곡생활권	4,461,300	93.7	1.6	-	4.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용도지역현황, https://stat.seoul.go.kr:443/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O090016&conn_path=I2, 검색일: 2023.08.14.)

6) 서울특별시. (2018). 2030 관악구 지역생활권 계획.

- 주택 현황

관악구의 주택 유형은 서울특별시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43.4%)의 비중이 적고, 단독주택(16.7%)과 연립주택(4.9%), 다세대 주택(33.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사동의 경우, 관악구와 비교해서도 단독주택(39.3%)과 다세대주택(48.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계		3,015,371	127,568	4,211
단독주택	개수	307,075	21,249	1,654
	비율	10.2%	16.7%	39.3%
아파트	개수	1,772,670	55,417	297
	비율	58.8%	43.4%	7.1%
연립주택	개수	110,562	6,218	134
	비율	3.7%	4.9%	3.2%
다세대주택	개수	796,066	42,770	2,034
	비율	26.4%	33.5%	48.3%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1001, 검색일: 2023.06.10.)

관악구(14.1%)의 노후주택 비율은 서울특별시(19.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노후 주택 중 단독주택의 비율(5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4] 관악구 유형별 노후주택(30년 이상)

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후 주택 수		588,320	17,934
전체 주택 수 대비 노후주택 비율		19.5%	14.1%
단독주택	개수	165,735	9,389
	비율	28.2%	52.4%
아파트	개수	307,366	2,719
	비율	52.2%	15.2%
연립주택	개수	39,725	1,470
	비율	6.8%	8.2%
다세대주택	개수	62,198	3,771
	비율	10.6%	21.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1001, 검색일: 2023.06.10.)

□ 관악구 산업경제 현황

- 사업체 현황

관악구는 38,639개의 사업체에 135,681명이 종사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4%, 운수 및 창고업이 10.5%로 약 51.3%의 사업체가 생산보다는 소비 관련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 당 종사자수는 평균 3.51명으로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관악구 사업체 현황

산업분류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 당 종사자수(명)
전산업	135,681	38,639	100.0	3.5
도매 및 소매업(45~47)	18,286	9,444	24.4	1.9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5,455	6,329	16.4	2.4
운수 및 창고업(49~52)	6,047	4,050	1.5	1.5

출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0, 경제총조사, <https://www.kopack.re.kr/contents.asp?page=489&kind=2&IDX=3997>, 검색일: 2023.08.09.)

□ 관악구 외국인 현황

- 서울시 외국인 이주 변천사

서울시에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로 한국계 중국인의 우호적 정책 시행부터이며, 이후 한국계 중국인의 한국이주가 용이해졌다(배규식 외, 2013). 한국계 중국인이 초기 집거지를 형성한 장소는 가리봉동으로 구로 공단의 노동자로 입국하여, 인근인 가리봉동에서 밀집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자리를 중시하여 산업단지나 상업지역 인근에 주로 거주하던 과거와 달리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산업단지 접근성이 좋은 가리봉동, 남구로나, 상업거리가 밀집한 대림동에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관악구 신사동 일원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의 역할을 목표로 발생했던 외국인의 이주형태가 거주 목적의 이주로 바뀌면서 보다 완숙한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울시 관악구의 외국인 현황

관악구의 외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인구는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도 이후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표 3-16] 관악구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국인주민 인구	29,270	29,335	30,267	30,247	29,023	27,467
주민등록인구	506,851	503,297	501,957	500,094	495,060	485,699
순내국인(명)	477,581	473,962	471,690	469,847	466,037	458,232
외국인증감 (전년대비, 명)	307	65	932	-20	-1,224	-1,556
외국인증가율 (전년대비, %)	1.01	1.00	1.03	1.00	0.96	0.95
외국인인구비율(%)	5.78	5.83	6.03	6.05	5.86	5.66
외국인/순내국인	6.14	6.19	6.42	6.44	6.23	5.99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1,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구별)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1025/S/2/datasetView.do>, 검색일: 2023.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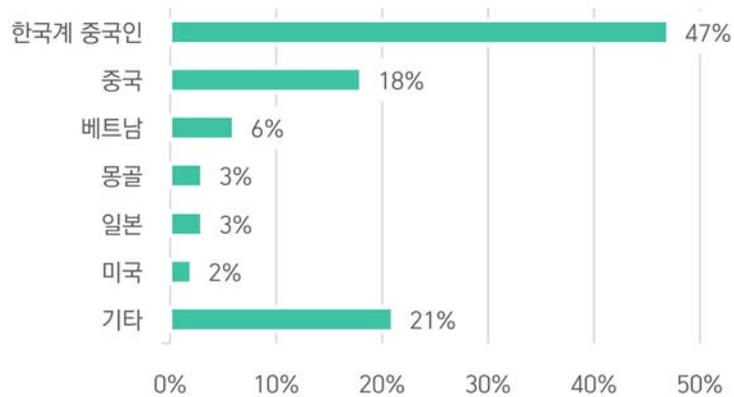
관악구의 신사동의 외국인인 대부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84.1%)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와 비율이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외국인근로자의 감소(51.4%)로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인구는 2016년의 1,470명에서 2021년에는 1,853명으로 약 1.26배 증가하였으며, 유학생의 경우, 2016년의 30명에서 2021년에는 76명으로 약 2.53배 증가하였다.

[표 3-17] 관악구 신사동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5,377	5,324	5,572	5,466	5,301	4,872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4,524	4,524	4,790	4,709	4,533	4,087
외국인근로자	1,430	1,224	1,442	1,359	1,063	735
결혼이민자	343	285	296	293	201	207
유학생	30	28	49	34	64	76
외국국적동포	1,470	1,771	1,805	1,763	1,900	1,853
기타외국인	1,251	1,216	1,198	1,260	1,305	1,216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681	641	624	608	631	643
외국인주민자녀(출생)	172	159	158	149	137	14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33_A&conn_path=I2, 검색일: 2023.08.09.)

관악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47%로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18%), 베트남(6%), 몽골(3%), 일본(3%), 미국(2%) 순으로 이어진다. 한국계 중국인(47%)과 중국(18%)이 65%로 과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여 외국인 중에서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관악구 국적별 외국인 현황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I2, 검색일: 2023.08.09.)

2)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 김해시 인구사회 현황

- 지역개요

김해시는 경상북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서쪽으로 창원시와 접하고 있다. 북부산악지역 밑으로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농업도시였지만,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부산과 창원에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이전하여 공업도시로 변화하였다. 김해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장유동 일대는 장유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창원시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며 기존 김해 시가지와는 분리되어 있다. 김해시의 동부 지역은 부산과 접해 있으면서, 면단위 공간에 공장이 설립되어있어 창원방면과는 반대로 부산에서 김해로 향하는 출퇴근인구가 많다.

- 인구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50대 인구가 17.6%(576,0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18.7%(100,174명), 동상동은 19.5%(1,817명)로 경상남도과 같이 50대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인구(20-30대)의 비중은 경상남도가 21.4%(703,314명)이며, 김해시가 23.8%(127,290명), 동상동이 24.7%(2,300명)로 청년층의 비중이 김해시에 비해 동상동의 청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8] 김해시 동상동 연령별 인구구조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계	3,280,93	100.0	535,129	100.0	9,329	100
0-9세	229,942	7.0	42,380	7.9	466	5.0
10-19세	318,924	9.7	60,114	11.2	602	6.5
20-29세	341,089	10.4	63,280	11.8	1,136	12.2
30-39세	362,225	11.0	64,010	12.0	1,164	12.5
40-49세	519,743	15.9	94,384	17.7	1,226	13.1
50-59세	576,029	17.6	100,174	18.7	1,817	19.5
60-69세	514,199	15.7	67,278	12.6	1,783	19.0
70세 이상	417,958	12.7	43,477	8.1	1134	12.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conn_path=l2, 검색일: 2023.08.11.)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김해시는 2019년 상승한 후 다시 하락 추세이다. 동상동은 2018년도 이후 경상남도 인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19] 김해시 연도별 인구변화

연도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소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2018	3,448,292	552,360	11,329	5,768	50.9	5,561	49.1
2019	3,438,676	561,468	10,979	5,638	51.4	5,341	48.6
2020	3,407,455	559,242	10,672	5,480	51.3	5,192	48.7
2021	3,377,331	553,719	10,400	5,374	51.7	5,026	48.3
2022	3,350,883	553,040	10,138	5,253	51.8	4,885	48.2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3.08.11.)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모두 1: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동상동은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남 지역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0] 김해시 동상동 가구 수 증감률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경상남도	2015	346,754 (27.6%)	341,745 (27.2%)	265,127 (21.1%)	304,861 (24.2%)
	2020	417,737 (30.9%)	399,700 (29.6%)	270,061 (20.0%)	262,657 (19.5%)
	가구수 증감	20.4%	17.0%	1.9%	-13.8%
김해시	2015	43,279 (23.2%)	44,414 (23.8%)	43,399 (23.3%)	55,565 (29.8%)
	2020	56,046 (27.0%)	55,514 (26.8%)	46,532 (22.4%)	49,180 (23.7%)
	가구수 증감	29.5%	25.0%	7.2%	-11.5%
동상동	2015	1,395 (33.9%)	1,099 (26.7%)	865 (21.0%)	753 (18.3%)
	2020	1,552 (36.6%)	1,276 (30.1%)	797 (18.8%)	613 (14.5%)
	가구수 증감	11.3%	16.1%	-7.9%	-18.6%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3.08.11.)

• 지역안전지수 현황

김해시의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부문은 3등급, 화재 부문은 2등급, 범죄 부문은 5등급, 생활안전 부문은 2등급, 자살 부문은 3등급, 감염병 부문은 2등급으로 나타나, 범죄부문에서 크게 낮은 모습을 보였다. 화재 부문과 생활안전 부문, 감염병 부문을 제외하고는 경남에 비해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3-21]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경남	2	2	4	2	2	2
김해시	3	2	5	2	3	2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 <http://www.safemap.go.kr>, 검색일 : 2023.6.10)

김해시의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부문은 2등급과 3등급을 오가는 상황이며, 화재는 2018년의 3등급에서 2022년에는 2등급으로 개선되었다. 생활안전 부문과 범죄 부문은 2등급과 3등급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감염병 부문은 2020년에 3등급으로 악화되었다가 2021년부터 2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범죄의 경우 2018년 이후로 4등급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5등급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전반에 대한 범죄 안전도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3-22]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18	2	3	4	2	3	1
2019	2	4	4	2	3	2
2020	3	4	4	2	3	3
2021	2	2	4	2	3	2
2022	3	2	5	2	3	2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 <http://www.safemap.go.kr>, 검색일 : 2023.6.10)

□ 김해시 물리환경 현황

- 지역현황

김해시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의 부산광역시와 서쪽의 창원시와 접하고 있다. 북측으로는 신어산과 무어산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평야가 있는 방사형 분지지형으로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야가 있다. 중부생활권은 김해시의 도심을 이루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과 신도심이 위치해 있다. 신도심은 주촌면과 동지역에 걸쳐서 분포해 있으며, 외국인이 밀집한 동상동은 동지역의 구도심에 위치해 있다.



[그림 3-5] 김해 생활권 계획

출처: 김해시(2021,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 용도지역 현황

김해시는 주거지역 비율이 13.59%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6.56%, 녹지지역 비율이 7.82%로 경상남도에 비하여 높으며, 공업지역의 비율은 6.56%로 낮다.

[표 3-23] 김해시 용도지역 현황

구분	도시지역 면적 (㎡)	주거지역 비율 (%)	상업지역 비율 (%)	공업지역 비율 (%)	녹지지역 비율 (%)	미지정지역 비율 (%)
경상남도	2,007,710,621	11.08	1.47	7.11	7.32	7.08
김해시	267,179,611	13.59	1.59	6.56	7.82	0.07

출처: 김해시 공공데이터 플랫폼(2021, 용도지역현황, <https://stat.gimhae.go.kr/gimhae/home/programs/statarchive/list?nextPageNo=3&nextPageNo=2&menu=98&category=1>, 검색일: 2023.09.06.)

- 주택 현황

동상동 주택은 아파트 비율이 50.4%로 가장 높으나 김해시, 경남에 비해 낮으며, 상대적으로 다세대주택 비율이 12.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김해시 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계 (호)	1,296,944	193,783	3,251
단독주택	개수	417,534	962
	비율	32.2%	29.6%
아파트	개수	797,850	1,639
	비율	61.5%	50.4%
연립주택	개수	26,697	146
	비율	2.1%	4.5%
다세대주택	개수	37,542	411
	비율	2.9%	12.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별 주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12, 검색일: 2023.09.06.)

김해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경상남도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김해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노후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경상남도보다 노후된 비율이 10%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5] 김해시 유형별 노후주택(30년 이상)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노후 주택 수 (호)	294,400	16,498
전체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 비율	22.7%	8.5%
단독주택	개수	10,113
	비율	61.3%
아파트	개수	5,401
	비율	32.7%
연립주택	개수	543
	비율	3.3%
다세대주택	개수	61
	비율	0.4%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주택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12, 검색일: 2023.09.06.)

□ 김해시 산업경제 현황

- 김해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김해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체 사업체 중 2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제조업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가 7.35명인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제조업 사업체 중심의 일자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김해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산업분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당 종사자수
전산업	251,446	66,649	100.0	3.8
도매 및 소매업(45~47)	33,523	15,911	23.9	2.1
제조업(10~34)	92,477	13,968	20.9	6.6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0,016	9,225	13.8	2.2
운수 및 창고업(49~52)	10,425	5,402	8.1	1.9
건설업(41~42)	14,533	4,853	7.3	3.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경제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12009&conn_path=I2, 검색일: 2023.09.07.)

□ 김해시 외국인 현황

- 김해시 외국인 이주 변천사

김해시의 외국인은 1995년 공업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외국인 1,388명(0.52%)로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488명(5.5%)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1980년대 김해 안동공단 조성됨에 따라 인근 지역 공장이 이전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차철욱 외, 2013).

[표 3-27] 김해시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구역 (시군구)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국인 인구	25,957	27,293	29,240	31,744	29,986	29,488
주민등록인구	529,422	532,132	533,672	542,455	542,338	537,673
순내국인	503,465	504,839	504,432	510,711	512,352	508,185
외국인증감(전년대비)	997	1,336	1,947	2,504	-1,758	-498
외국인증가율(전년대비)	1.03	1.05	1.07	1.09	0.94	0.98
외국인인구비율	4.90	5.13	5.48	5.85	5.53	5.48
외국인/순내국인	5.1	5.4	5.7	6.2	5.8	5.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I2, 검색일: 2023.09.07.)

김해시의 동상동의 외국인 주민은 대부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86.29%)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와 비율이 2021년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인구는 2016년의 153명에서 2021년에는 333명으로 약 2.17배 증가하였으며, 기타 외국인은 2016년의 191명에서 2021년에는 542명으로 약 2.84배 증가하였다. 매년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기간 거쳐 가는 공간이기보다는 세대를 거듭하며 장기 정착하는 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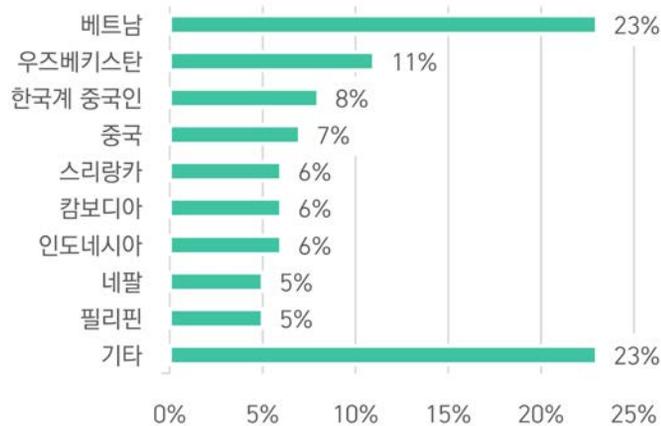
[표 3-28]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764	946	1,119	1,241	1,286	1,37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620	817	976	1,079	1,120	1,183
외국인근로자	191	188	214	191	187	146
결혼이민자	71	67	74	75	85	94
유학생	14	24	37	51	46	68
외국국적동포	153	236	270	270	274	333
기타외국인	191	302	381	492	528	542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70	66	67	67	74	80
외국인주민자녀(출생)	74	63	76	95	92	10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 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33_A&conn_path=I2, 검색일: 2023.09.07.)

•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국적별로는 베트남(23%)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우즈베키스탄(11%), 한국계 중국인(8%), 중국(7%), 인도네시아(6%)의 순으로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가들이 고루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그림 3-6] 김해시 외국인 국적별 현황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I2, 검색일: 2023.09.08.)

3) 농어촌 중심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 인구 사회 현황

- 지역개요

음성군은 충청북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북부에 경기도 이천시를 접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87년부터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진천군과 함께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 인구현황

연령별 인구비중을 비교했을 때, 충청북도에 비해 음성군과 대소면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고, 대소면은 음성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음성군 연령별 인구구조

구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계	1,595,058	100.0	92,058	100.0	15,620	100.0
0-9세	109,410	6.9	5,016	5.4	926	5.9
10-19세	145,882	9.1	7,261	7.9	1,485	9.5
20-29세	188,310	11.8	8,770	9.5	1,705	10.9
30-39세	187,432	11.7	8,924	9.7	1,558	10.0
40-49세	236,190	14.8	13,184	14.3	2,645	17.0
50-59세	268,313	16.8	17,192	18.7	3,358	21.5
60-69세	251,466	15.8	17,286	18.8	2,361	15.1
70세 이상	207,776	13.0	14,400	16.0	1,582	10.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검색일: 2023.09.12.)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상승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음성군의 경우 2017년의 97,306명에서 2022년에는 92,058명으로 약 5.4% 감소하였다. 대소면은 2017년의 15,640명에서 15,620명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30] 음성군 연도별 인구변화

연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소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2018	1,599,252	95,830	15,427	8,376	54.3	7,051	45.7
2019	1,600,007	94,982	15,647	8,532	54.5	7,115	45.5
2020	1,600,837	93,153	15,714	8,591	54.7	7,123	45.3
2021	1,597,427	92,197	15,770	8,629	54.7	7,141	45.3
2022	1,595,058	92,058	15,620	8,585	54.9	7,035	45.1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3.08.11.)

충청북도와 음성군 그리고 대소면의 1인가구와 2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3인 가구는 소폭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소면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에 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율은 33.9%이었으나, 2020년 36.6%로 증가하였다.

[표 3-31] 음성군 대소면 가구 수 증감률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충청북도	2015	173,598 (28.8%)	167,146 (27.8%)	120,634 (20.0%)	140,478 (23.3%)
	2020	236,208 (34.8%)	198,840 (29.3%)	122,347 (18.0%)	121,527 (17.9%)
	가구수 증감	36.1%	19.0%	1.4%	-13.5%
음성군	2015	11,758 (31.9%)	10,917 (29.6%)	6,815 (18.5%)	7,336 (19.9%)
	2020	15,528 (38.5%)	12,497 (31.0%)	6,435 (16.0%)	5,882 (14.6%)
	가구수 증감	32.0%	14.5%	-5.6%	-19.8%
대소면	2015	1,968 (30.8%)	1,746 (27.4%)	1,174 (18.4%)	1,492 (23.4%)
	2020	2,606 (38.0%)	1,966 (28.7%)	1,170 (17.1%)	1,108 (16.2%)
	가구수 증감	32.4%	12.6%	-0.2%	-25.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가구원수별 가구-읍면동,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l2, 검색일: 2023.09.12.)

• 지역안전지수 현황

음성군은 교통분야 2등급, 화재분야 3등급, 범죄분야 5등급, 생활안전분야 2등급, 자살분야 4등급, 감염병 분야 2등급으로 나타났다. 화재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 자살분야, 감염병 분야는 충북과 같으며 교통 분야는 충북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 범죄분야에서는 5등급으로 충북보다 크게 낮은 등급을 받아 부정적인 상황이다.

[표 3-32] 음성군 지역안전지수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충북	3	3	3	2	4	2
음성군	2	3	5	2	4	2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 <http://www.safemap.go.kr>, 검색일 : 2023.6.10.)

지역안전지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범죄 부문과 자살 부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부문의 경우, 2018년에는 2단계로 긍정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4단계로 악화되었으며, 범죄의 경우 4단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2020년부터 5단계로 더욱 악화되었다.

[표 3-33] 음성군 지역안전지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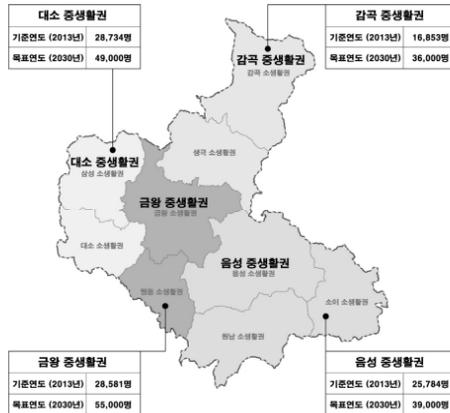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음성군	2018	2	3	4	2	2
	2019	2	3	4	2	3
	2020	2	3	5	2	3
	2021	3	3	5	2	3
	2022	2	3	5	2	4

출처: 행정안전부(2022, 생활안전정보, <http://www.safemap.go.kr>, 검색일: 2023.6.10.)

□ 음성군 물리환경 현황

- 지역 현황

음성군의 면적은 520.3km²로 4개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따르면, 중부내륙권의 관문 역할을 통해 수도권과 연계기능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7)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다.



[그림 3-기] 음성군 생활권 계획

출처: 음성군. (2016, 음성군 2030 기본계획)

- 용도지역 현황

음성군은 충청북도와 비교할 때, 주거지역(13.59%), 상업지역(1.59%), 녹지지역(78.19%)의 비율이 높고, 공업지역(1.59%)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3-34] 음성군 용도지역 현황

구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충청북도	2,007,710,621	11.08	1.47	7.11	73.26
음성군	267,179,611	13.59	1.59	6.56	78.1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용도지역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60&tblId=TX_315_2009_H1500&conn_path=12, 검색일: 2023.09.08.)

7) 음성군. (2016). 2030 음성군기본계획

• 주택 현황

음성군은 충청북도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비율(53.2%)이 적고, 단독주택(37.8%)과 다세대주택(5.2%)의 비율이 높다.

[표 3-35] 음성군 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계 (호)		640,256	42,939	7,922
단독주택	개수(호)	210,192	16,216	1,727
	비율(%)	32.8	37.8	21.8
아파트	개수(호)	383,130	22,841	5,850
	비율(%)	59.8	53.2	73.8
연립주택	개수(호)	16,234	1,095	128
	비율(%)	2.5	2.6	1.6
다세대주택	개수(호)	20,754	2,244	140
	비율(%)	3.2	5.2	1.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별 주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conn_path=I2, 검색일: 2023.09.06.)

음성군의 노후주택(30년이상)은 전체의 18.8%를 차지하며, 충청북도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주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독주택(83.6%)으로 충청북도(68.3%)보다 높으며,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36] 음성군 노후주택(30년이상) 유형별 현황

구분		충청북도	음성군
계 (호)		143,217	8,059
전체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 비율(%)		22.4	18.8
단독주택	개수(호)	97,883	6,740
	비율(%)	68.3	83.6
아파트	개수(호)	30,651	579
	비율(%)	21.4	7.2
연립주택	개수(호)	7,790	415
	비율(%)	5.40	5.1
다세대주택	개수(호)	3,672	178
	비율(%)	2.6	2.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주택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I2, 검색일: 2023.09.06.)

□ 음성군 사업체 현황

• 사업체 현황

음성군은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는 21.4%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42,2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업체 당 종사자수가 13.2명으로 전국 평균인 7.35명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제조업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7] 음성군 사업체 현황

산업분류	종사자수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 당 종사자수
전산업	82,425	14,967	100.0	5.5
도매 및 소매업(45~47)	6,619	3,224	21.5	2.1
제조업(10~34)	42,222	3,199	21.4	13.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4,552	2,218	15.	2.1
운수 및 창고업(49~52)	2,897	1,551	10.4	1.9
건설업(41~42)	4,935	979	6.5	5.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 경제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I2009&conn_path=l2, 검색일: 2023.09.07.)

□ 음성군 외국인 현황

음성군의 외국인은 2016년도의 12,594명(12.9%)에서 2019년의 14,795명(16%)으로 2,201명(17.5%) 증가하였다. 순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1.48%(2016년)에서 19.1%(2021년)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내국인이 감소하고 외국인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8] 음성군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구역 (시군구)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외국인주민 인구	12,594	13,166	14,625	15,676	15,193	14,795
주민등록인구	97,787	97,306	95,830	94,982	93,153	92,197
순내국인	85,193	84,140	81,205	79,306	77,960	77,402
외국인증감(전년대비)	1,087	572	1459	1051	-483	-398
외국인증가율(전년대비)	1.09	1.05	1.11	1.07	0.97	0.97
외국인인구비율	12.9	13.5	15.3	16.5	16.3	16.0
외국인/순내국인	14.8	15.6	18.0	19.8	19.5	19.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l2, 검색일: 2023.09.07.)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며, 외국국적동포는 794명(45.8%)으로 기타외국인은 1,966명(86.5%), 외국인 주민자녀(출생)는 302명(37.5%) 증가하였다.

[표 3-39] 음성군 대소면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3,622	3,631	4,115	4,451	4,454	4,369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3,299	3,297	3,770	4,063	4,012	3,912
외국인근로자	1,906	1,692	1,766	1,748	1,571	1,412
결혼이민자	165	154	153	157	157	153
유학생	-	6	10	13	18	28
외국국적동포	630	739	845	875	955	1,037
기타외국인	597	706	996	1,270	1,311	1,282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27	137	154	176	212	215
외국인주민자녀(출생)	196	197	191	212	230	24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 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33_A&conn_path=I2, 검색일: 2023.09.07.)

음성군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2%), 네팔(10%), 캄보디아(10%), 타이(7%)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외국인 국적이 없었으며, 비교적 동남아시아 출신인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8] 음성군 외국인주민 국적별 비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I2, 검색일: 2023.09.08.)

3. 소결

□ 지방 도시로 갈수록 다양한 국적, 체류유형의 외국인 비중 증가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007년)에서 4.1%(2021년)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기존에도 외국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한 중국계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 등 다른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으로 갈수록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전체 외국인의 절반 수준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김해시의 경우 베트남 국적 외국인 23%, 우즈베키스탄 11%, 한국계중국인 8% 순으로, 음성군은 한국계 중국인 15%, 베트남 12%, 네팔 10%, 캄보디아 10% 순으로 출신 국가가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지방 도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근린 환경 분위기, 내·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 세 지역

현황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지인 서울 관악 신사동, 경남 김해 동상동, 충북 음성 군 금왕읍 일원은 선행연구 대상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대상지는 외국인 주민들이 밀집해 배타적인 구역을 형성한 지역으로, 영등포구 대림동, 안산시 원곡동 등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대상지들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징은 한국에 배타적이고, 범죄율이 높고,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들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대림동이나 안산시 원곡동은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고, 야간이나 골목지역은 내국인 주민이 방문하기에 위험한 장소들이다. 여러 국적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한국과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지만,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단이나, 상업지역과 같이 직장을 중심으로 단순한 배후주거지로 형성되

었던 과거와는 달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신사동은 주거 위주의 공간으로 북쪽의 보라매공원과 도림천, 남쪽의 신림근린공원과 같은 녹지 및 하천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외국인 지원센터와 같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없어 기존의 외국인 주민들의 일자리 및 편의를 위해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이 아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으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일반적인 외국인 밀집지역과는 달리, 내국인 인구가 유지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주민이 지배적인 대림동, 원곡동과 같은 기존 사례와 달리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지원시설이 위치해있어 외국인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배후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제조업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마지막은 충북 음성시 대소면으로 내국인 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어 외국인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국적 없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후산업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제조업 공장들이 위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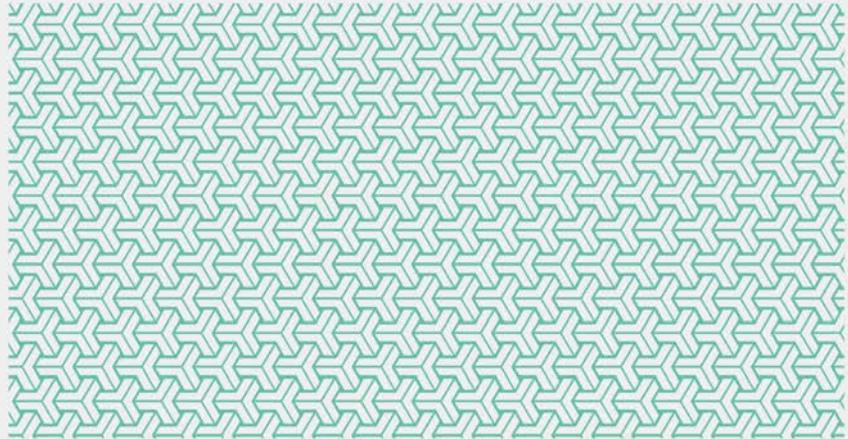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근린 단위에서 하위공간별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실태진단, 내·외국인의 인식 및 행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개선 관련 차별화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0] 대상지 현황 분석 주요 내용

구분		유형1. 수도권 주거지역	유형2.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유형3. 농어촌 중심지역
지리적 현황 (시군구 기준)	지역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
	수도권여부	O	X	X
외국인 주민 규모 및 비중 (시군구 기준)	지배적 외국인 국적 및 비율	한국계 중국인 (47%)	베트남 (23%)	한국계 중국인 (15%)
	외국인 비중	5%이상 1만명 이상	5%이상 1만명 이상	10%이상 1만명 이상
외국인 주민 증감 현황 (읍면동 기준)	지배적인 체류 유형	외국국적동포 4,087명 (38.0%)	기타외국인 542명 (45.8%)	외국인근로자 1,412명 (32.3%)
	5년간 증가한 외국인 유형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5년간 감소한 외국인 유형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	외국인근로자
인구 변화 현황 (시군구 기준)	5년간 순내국인 변화율(%)	-4.3	0.6	-8.0
	5년간 순외국인 변화율(%)	-6.3	8.0	12.4
산업 현황 (시군구 기준)	제조업 유무	X	O	O
	사업체 규모 (사업체 당 종사자수)	3.5	3.8	5.5
유형별 특징		수도권 주거지 중심 외국인 밀집지역	지방 소규모 제조업 중심 외국인 밀집지역	지방 대규모 제조업 중심 외국인 밀집지역

출처: 연구진 작성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분석



1. 심층 분석 개요
2.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3.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인식 및 행태 조사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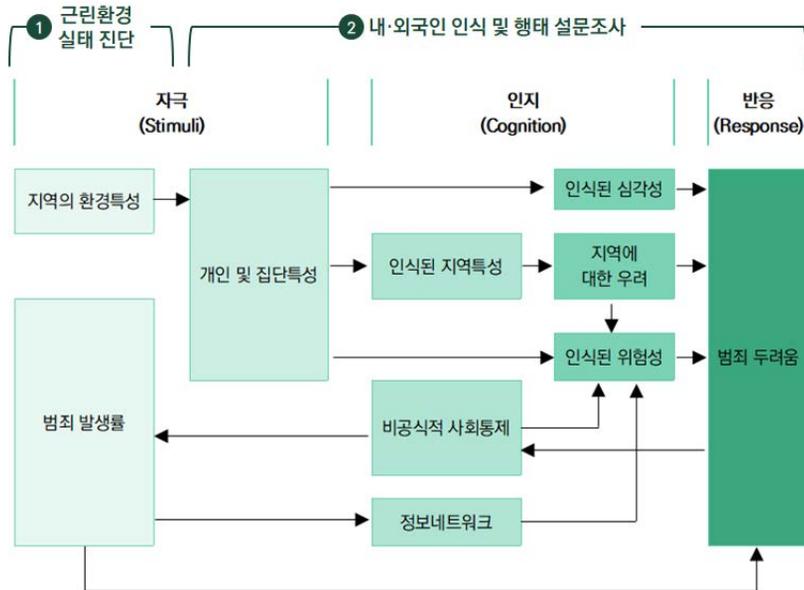
1. 심층 분석의 개요

1) 심층 분석의 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은 범죄 발생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 두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범죄 발생보다 광범위하게 지역 사회에 확산되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이경훈, 1998, p.23; Pain, 2000, p.365).

개인의 범죄 두려움,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반응은 지역의 환경특성, 개인 및 집단 특성 등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자극(Stimuli)-인지(Cognition)-반응(Response)”로 이어지는 범죄 두려움과 환경 특성 간의 이론적 모델(이경훈, 1998, p.29)을 토대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자극에 해당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 특성, 범죄 발생률 등은 현장답사, 지역 자료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근린환경 실태 진단**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극에 해당하는 개인 및 집단 특성, 인지에 해당하는 인식된 지역 특성, 정보 네트워크, 지역에 대한 우려, 반응에 해당하는 범죄 두려움, 삶의 만족감 등은 **내·외국인 인식 및 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심층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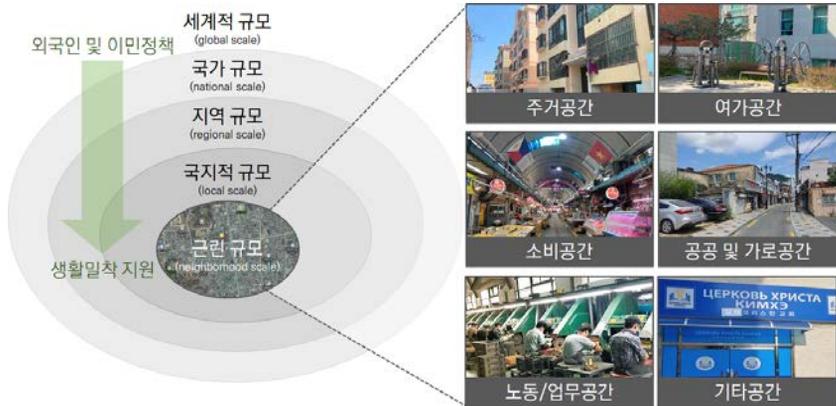
출처: 이경훈(1998, p.29)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심층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을 대상으로 CPTED 관점에서 근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실태 진단은 국가, 지역, 국지적 수준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작은 공간 범위로 갈수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공간 단위인 근린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은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공간들은 내·외국인들의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서 각 공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내·외국인들의 일상생활, 적응과정,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혜경, 2012, p.134).



[그림 4-2] 실태 진단의 조사 대상

출처: 배주현·김감영(2019, p.124)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진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 물리환경, 범죄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 현황, 범죄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CPTED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공간별로 범죄취약 정도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별 범죄 불안감, 만족감을 확인하며, 내·외국인들이 지역에서 적응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인식 및 행태 조사

인간의 인식과 행태는 개인의 능력, 주관적 문화, 개인의 성격, 물리환경, 사회 구조,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Triandis, Malpass & Davidson, 1973; Gärling & Golledge, 1989).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분석하는 과정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 인식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의 범죄 두려움, 심리적 안정감(reassurance)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내·외국인의 행태 특성은 주요 공간별·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특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웃과의 유대 관계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¹⁾를 실시하는데, 14세 이상의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범죄 두려움, 범죄 피해 여부,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범죄두려움, 범죄 발생 인식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별 이용 시간, 이용 패턴 등 행태적인 부분은 이혜경(2012)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내·외국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정서 및 사회 생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본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외국인들의 인식 및 행태 차이가 발생하는지?”, “심층 사례 지역 간에 내·외국인들의 인식 및 행태 차이가 있는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CPTED 관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을 개선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안을 파악하고자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2년(홀수 년도)마다 조사가 시행된다. 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다(박형민 외, 2021).

2.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1) 실태 진단 개요

□ 실태 진단의 목적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은 지역 전반의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공간별 범죄 취약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내·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린환경 내 개선이 필요한 공간과 신규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4-1]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항목

조사 목적	조사 분석 항목	자료 출처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 범죄 발생 특성 파악	인구사회/물리환경 특성(3장 현황 분석 내용 활용)	- 최근 5년 간 인구 수 - 최근 5년 간 가구 수 - 최근 5년 간 외국인 유형별 규모 및 비율 - 연령별 인구 현황	- 통계청 통계 자료	
	범죄 관련 특성	- 최근 3년 간 5대 범죄 발생 건수 - 최근 3년 간 범죄 핫스팟 분석 - 하위 공간별 내·외국인들의 범죄 두려움 수준		- 관할 경찰서 제공 - 심층 인터뷰
	공간별 범죄취약도 분석*	CPTED 5대 원리	- 자연적 감시 확보 여부 - 접근통제 여부 - 영역성 확보 여부 - 활동의 활성화 여부 - 유지관리 여부	- 현장조사 - 심층 인터뷰
		거주적합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수요 조사	- 내·외국인 거주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개선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수요 파악 - 신규로 조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수요 파악	- 현장조사 - 심층 인터뷰

* : 부록1에 공간별 범죄취약도 분석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

출처: 연구진 작성

□ 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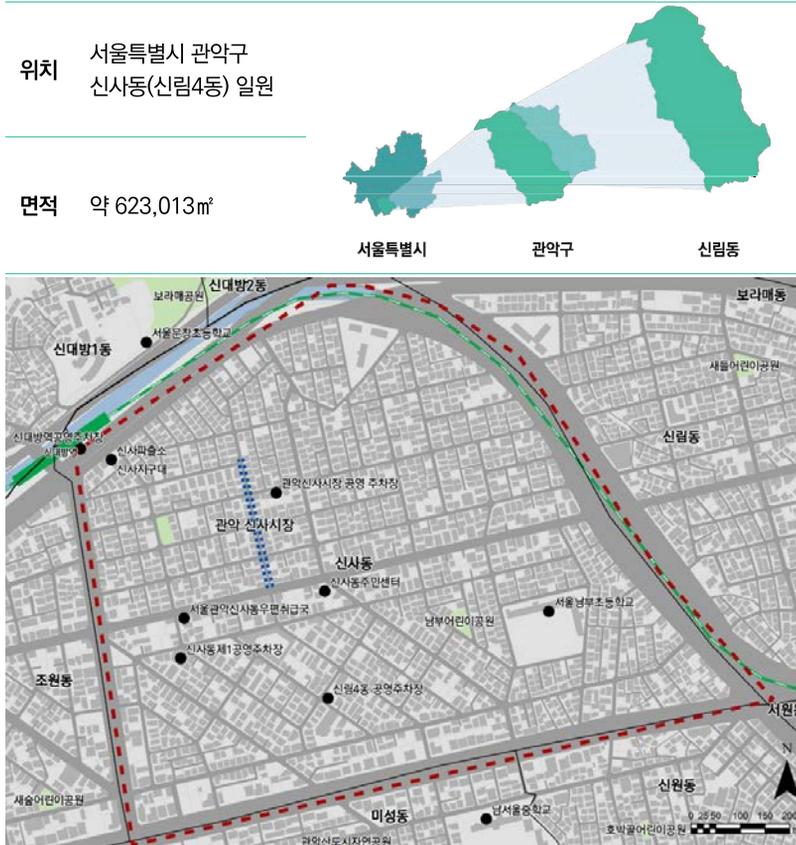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은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진들의 현장조사, 내·외국인, 지자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CPO 등 관련 주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소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범죄 두려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3년 간 범죄 자료를 구득하였다.

2)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①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특성 개요

□ 양호한 교통접근성 및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외부 유입인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

[표 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D/geoDBDwdMdlst.do>, 검색일: 2023.09.06.);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건축물 연령정보,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토지특성조사,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관악구 신사동은 북쪽으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남쪽으로는 남부 순환로와 인접해있어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관악신사시장이 중심부에 있으며, 동 주변으로 도림천이 지나가고 있어 정주환경이 양호하다.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높아 주거비용이 낮아서 1인 가구 등의 외부 유입이 많다.

□ 공단 주변에서 정주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인근 주거지역으로 외국인 다수 유입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은 주로 공단 주변 저렴한 주거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초기 구로공단 주변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비교적 정주환경이 양호한 인근지역으로 밀집지역이 확산되었다(박세훈, 2010, pp.86-87).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은 중국계 한국인 밀집지역 중 하나로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다수 이주한 지역이다²⁾.

신사동의 외국인 인구는 2021년 기준 4,872명이며, 동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1.6%로 관악구 내에서 가장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이다.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인접한 구로구(11.56%)나 영등포구(14.96%)와 비교해도 관악구 신사동의 외국인 인구비율은 높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4월 신사동 전체를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외사안전구역은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중 특별히 치안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라광현·함혜현, 2021, p.147).

□ 범죄에 취약한 20대 여성 및 고령자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

신사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30대의 인구비율이 높으며, 특히 20대의 인구비율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악구는 서울시와 달리 젊은 20-30대의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20대 미만의 미성년자나 40-50대 중장년, 60대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신사동은 관악구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미성년자 및 고령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20대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2) 2023년 5월 18일 지역 주민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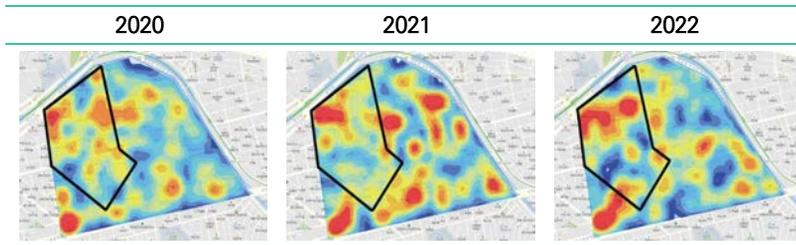
□ 지하철역, 시장 및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 및 폭력범죄
 신사동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로 절도 및 폭력범죄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범죄 중 절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9%, 폭력범죄
 는 50.0%이었으며, 강간 및 추행 범죄는 4.4%로 드물게 발생하였다.

[표 4-3] 관악구 신사동 5대 범죄 발생 현황

구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2020	-	-	2.4%	52.0%	45.5%
2021	-	-	7.8%	39.1%	53.0%
2022	-	-	3.8%	54.9%	41.4%
2023(~06.20.)	-	-	2.4%	47.6%	50.0%
전체	-	-	4.4%	48.9%	46.7%

출처: 관악경찰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범죄발생 핫스팟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대방역 주변과 난곡사거리 상업지역
 주변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장주변, 주택가에서도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과 2022년에 비해 2021년은 주택가 내부에서 비교적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은 관악시장 북측 부근에서 범죄가 상대적
 으로 많이 발생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3] 관악구 신사동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출처: 관악경찰서 내부자료

신사동 내 발생한 범죄 중 외국인 범죄로 한정하여 핫스팟 분석한 결과 전체 범
 죄와 유사하게 신대방역 주변 주택가와 난곡사거리 주변 상업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중 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와 절도범
 죄의 핫스팟 분석결과 폭력범죄는 역 주변과 상업시설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고,
 절도 범죄는 주택가나 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하위 공간별 근린환경 특성 조사·분석

□ (주거공간)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 설치 미흡 : 접근통제 강화 필요
관악구 신사동은 신축보다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이며, 노후 주택은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한 주택도 다수 존재하였다.

지역 주민(50대/남)

“밤에 누군가 뒤 따라 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저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이 잠금장치가 없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반사경을 현관문에 붙여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뒤에 오는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4]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 한 공동현관 (좌), 별도 출입 통제 시설물이 없으며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 (실제 절도범죄가 발생한 공동출입문, 우)

출처: 연구진 촬영; 관악경찰서 내부자료

실제 개방된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여 쌓여있는 택배를 절도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현관에 로비폰을 설치한 경우에도 우편함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우편함 속 공연 티켓 등의 절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범죄자 은닉 및 청소년 비행 가능성 높은 장소 다수 존재 : 자연적(기계적) 감시 강화 필요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 이격 공간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범죄 불안감이 높으며, 실제 범죄의 침입 및 도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악구 신사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범죄 위험이 높은 이격공간이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넓은 이격공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범죄자의 은닉공간으로 이용될 가

능성이 있으며, 주택 경계분에 설치된 낮은 담장은 2층 주택의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은 청소년 비행장소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범시설물 설치와 함께 자연적, 기계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CCTV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구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침입에 대한 감시는 미흡하였다.

지역 주민(40대/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좀도둑이 있는데, 귀중품이나 현금이 집안에 있는 경우는 드물어 신고까지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 주차장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는 어두워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5] 범죄자의 은닉 및 침입·도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택 사이 공간

출처: 연구진 촬영



[그림 4-6]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이격공간(좌), 야간 낮은 조도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공간(우)

출처: 연구진 촬영

-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혼재 : 영역성 강화 필요

관악구 신사동은 1층을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전통시장인 관악신사 시장이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나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이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시장 내 상점 사이에 일부 주택 출입구가 위치한 경우가 있어 주거공간에 대한 영역성과 별도의 진입 동선 확보가 필요해 보였다.

지역 주민(40대/여)

“시장 내부에 주택출입구가 있어 시장을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업시간이 끝나면 인적이 드물고 닫힌 상점 등으로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 되요. 그리고 영업종료 후 시장 내에서 음주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럴 때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지역 주민(30대/여)

“어린이집 주변으로 상점들이 많은데 특히 저녁시간 때에는 음주나 흡연하는 취객으로 인해 불편할 때가 많아요.”

2023.04.28.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7] 시장 내부에 위치한 주택 출입구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4-8]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출처: 연구진 촬영

□ (소비공간) 전통재래시장인 관악신사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활동 공간 형성

- 시장 내부를 중심으로 CCTV 집중 설치 : 시장 외부공간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

신사동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신사 시장은 내부 공간에 총 3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ATM 기기 주변 등 일부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시장 주변은 CCTV 설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이 많이 있었다. 시장 영업시간 이후 시장 주변 공간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주요 지점으로 조도 확보와 함께 CCTV 설치를 통해 기계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9] 집중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 내부와 달리 CCTV 설치가 부족한 시장 주변 공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0] CCTV가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장 내부(좌), 날치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CCTV 설치가 필요한 시장 입구 ATM 기기 주변(우)

출처: 연구진 촬영

지역 주민(30대 여)

“시장 주변 골목길이 대체로 어두운데 가끔 가로등이 꺼져있어 불안할 때가 있어요. CCTV가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40대 여)

“주택가 골목길은 사람이 적게 다니는데 어둡고 CCTV나 다른 방범시설물이 잘 없어 다른 길로 돌아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50대 남)

“시장 출입구에 위치한 ATM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날치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CCTV를 더 설치해야할 것 같아요.”

2023.04.12., 04.28.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11] 주간(좌)에 비해 불안감이 높은 야간(우) 시장 내부 환경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연구진 촬영

- 시장과 주변 주거지역의 모호한 영역구분 : 시장의 영역성 및 시인성 강화 필요

관악신사시장은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시장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나 주변 주거공간과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여 시장 방문객이 주거공간으로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영역성 강화를 통하여 주변 주거지역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주택은 시장 내부에 출입구가 있어 시장 내외부 주거공간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관악신사시장 내부공간은 유사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정표나 별도의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여 쉽게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장 출입구는 시인성이 떨어지고 디자인의 차별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시장 내부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위치정보는 일상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내외국인이 모두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대한 시인성 강화 및 영역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4-12]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동일한 디자인의 시장 출입문 형태
출처: 연구진 촬영

- 시장 내부 외국인 이용이 많은 상점 밀집 : 외국인 주요 시설에 대한 일부 영역성 형성

신사동은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으나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시장 내부나 역 주변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이 일부 있으며, 주로 시장 주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관악신사 시장은 유일한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 결과 시장 내 점포 중 약 12%가 외국인 관련 상점이었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련 상점이 시장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시장 내 외국인의 방문 및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공간에서 외국인만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영역이 내국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국인 방문객이 많은 시장 내부에 형성되어 있어 내외국인간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상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 4-13] 관악신사시장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점포
출처: 관악구청 내부자료

□ (여가공간) 내외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공간 부족

- 내·외국인 간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내외국인 간 인식 개선 및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충 필요

신사동은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나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과 외국의 문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부딪히며 생활할 경우 서로의 행동에 대해 서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신사동 지역 주민 5명 중 1명은 외국인인 만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외국인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2015년 발족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며 지역 치안 유지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주민(50대 여)

“외국인이 옷통을 벗거나 음주나 흡연, 고성방가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경우도 많고 마작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서로 문화차이가 있어 계속 부딪히고 인식도 나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50대 여)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며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한 것 같아요.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외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외국인 모두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 외국을 위한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 부재 : 외국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영역 마련 필요

신사동 내 외국인 비율은 높지만 이들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부족하다. 신사동 내 많은 외국인은 길거리나 시장 내부에서 음주하며 집단으로 모여 다니거나, 주택가에서 밤늦게 마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마작 등의 여가생활이 점차 음성화되고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문화는 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종교시설이 있으며, 식료품점이나 음식점 등도 외국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이다. 외국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적절한 공간 및 영역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 형성

을 유도하고 외국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60대 여)

“최근에 신사동 축제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신사동 내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우리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할 수 있을 텐데, 구청에 건의도 해봤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더라고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 (공공 및 가로 공간) 쓰레기 무단투기 및 주취자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원 및 주택가 가로 공간

•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주취자 문제 지속 발생: 감시가능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
신사동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며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나타났다. 쓰레기 관련 문제는 많은 주거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신사동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신사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의 무단 투기 문제가 특히 심각했으며, 이 부분은 쓰레기 투기공간에 대한 관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표지판과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외국인의 의식수준 및 문화차이, 한국어 안내 표지판의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문제는 별도의 클린하우스 등의 시설물 설치와 함께 영역표시를 통해 해당 공간에서만 쓰레기가 버려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문제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주취문제 역시 꾸준히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로 야간 시간대 주택가나 공원주변에서의 고성방가 문제, 노상이나 시장 내부에서의 음주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주취로 인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며 자칫 폭력 등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계적 감시 강화와 함께 주요 지점에 대한 순찰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 A씨

“외국인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소리 지를 때가 종종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치면 불안해서 돌아갈 때도 있어요.”

2023.04.28.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14]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여있는 주택가 거리

출처: 연구진 촬영

- 시설물 관리 미흡 및 폐원한 유치원 방치 : 유지관리 강화 필요

신사동 내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적치물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별 사업이 추진되어 통일되지 않은 시설물 디자인이 적용되어 시인성이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다수 있었다.

신사동 내에는 폐원한 유치원이 방치되고 있었다. 방치된 건축물은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접근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50대 여)

“폐원한 유치원 주변은 밤에 다니기 무서워요.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도 자주 쌓여있어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 건물로 오래 방치되면 우범지대로 될까 걱정이 되네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15] 폐원한 유치원 주변 어두운 거리

출처: 연구진 촬영

③ 거주적합성 측면에서의 수요 조사

□ 내외국인 생활공간에 대한 영역성 강화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은 별도의 외국인 거리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사동은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으나 내외국인의 생활공간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으로 내·외국인 간, 공간 이용 주체 간 상충과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관악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중 42.9%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중국인의 취객이며,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에 따른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신사동 주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주요 상충공간에 대한 적절한 분리와 외국인 이용이 많은 공간에 대한 영역성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또한 내국인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 구분이 바람직할 수 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는 내외국인간 적절한 분리를 통해 각각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을 통한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내외국인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감시강화

신사동 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 관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 불법 투기 금지 안내 표지판이 다수 부착되어 있으나, 무단 투기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쌓여 있는 쓰레기나 적치물 등으로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관리가 미흡한 거리는 가로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범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가로 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차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야간 보행 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생활환경,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 문제는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의식수준 제고, 지역 구성원으로 구성된 치안 조직 등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50대 여)

“제가 통장으로 있어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정리하고 치우는 데도 금방 쓰레기가 다시 쌓여요. 주로 외국인들이 버리는데 한글을 읽지 못해 안내표지판을 못 보거나 의식수준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3.04.17.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16] 무단투기 적치물로 인해 비상벨이 가려져 있는 거리(좌), 안내 사인이 부착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거리(우)

출처: 연구진 촬영

□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생활지원 시설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간 교류 공간 마련
외국인 관련 시설이나 공간은 거주하고 있는 비슷한 문화의 외국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지역 내 치안과 외국인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공과 시민단체 등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도 한다. 외국인 지원시설은 외국인이 지역 내 빠른 정착과 함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원만히 내국인과 융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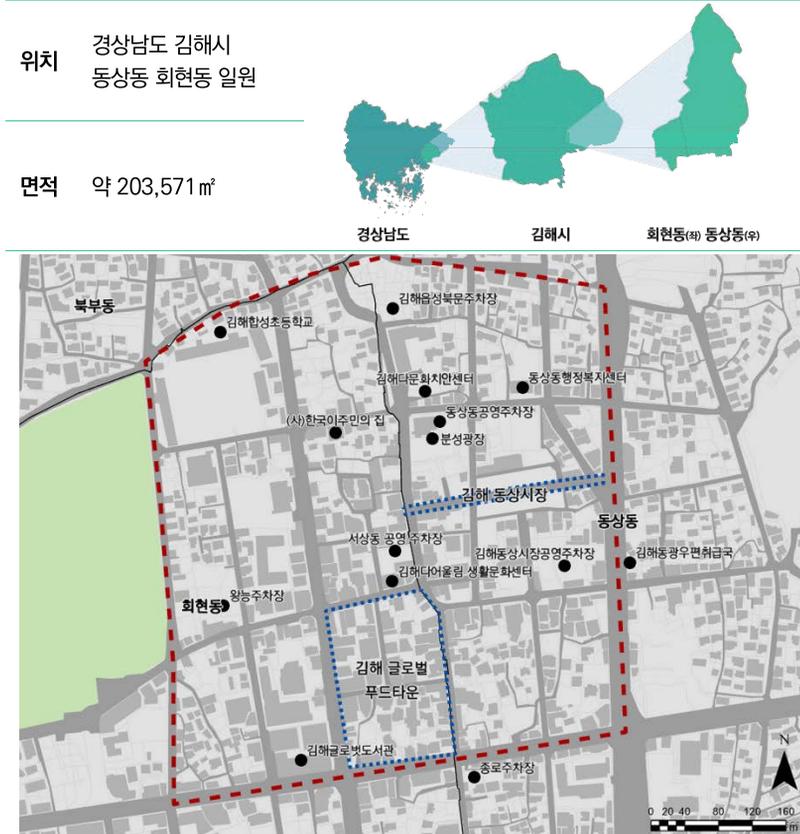
현재 신사동은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밀집지역이나 외국인 관련 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내외국인이 혼재되어 서로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활동이 점차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음성화되는 활동을 방지하고 나아가 외국인의 거주 지속성 제고를 통한 정주화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①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특성 개요

- 제조업 공장이 위치한 면 소재지에서 정주 여건이 나은 원도심 동상동 일원으로 외국인주민 유입 및 정착 확대

[표 4-4]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geoDBDwdList.do>, 검색일: 2023.09.06.);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건축물 연령정보,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토지특성조사,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김해시는 부산의 제조업 공장이 도시환경 문제로 이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가 발생하였고 외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의 이주 초반에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이 위치한 면소재지 인근의 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김해시 원도심이 노후화되어 내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에 외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동상동과 서상동 일대는 외국인이 이주한 김해시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2010년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을 통해 동상동에 아시아 다문화거리를 조성할 정도로 다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들이 위치하였다.

김해시 동상동, 서상동 일원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국인 거주지와 외국인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강제적으로 분리하거나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의 유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유출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로서의 외국인 유입으로 외국인 거주지와 외국인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

김해 CPO A씨

“외국인과 내국인이 사는 곳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주로 원룸이 많은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동상동 일대에 가보면, 내국인이 오히려 시선을 끌 정도로 외국인들만 있습니다.”

2023.06.14. CPO인터뷰 내용

두 번째는 외국인 집단과 내국인 집단 간의 갈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김해시 동상동, 서상동 일원은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주민의 거주지 및 활동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짧은 기간 일하고 출국하는 뜨내기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비율이 높고, 지배적인 국적 집단이 없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집단이 있다는 점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대체로 완만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편이다.

김해 CPO B씨

“외국인과 내국인의 갈등이 드문 편이다. 잠시 왔다가 떠나는 뜨내기가 아니라, 장기 거주하고 싶어 하여 내국인과 갈등이 생기면, 외국인이 굽히는 상황이며, 지배적인 국적집단이 없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집단이 있다는 점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2023.06.14. CPO인터뷰 내용

김해시의 구도심이 동상동에서 내외동, 삼안동 방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외국인이 공장이 입지해 있던 면 단위지역에서 저렴한 구도심 지역으로 이동이 발생하였다. 면 단위로 공장 노동자 위주로 분산되었던 외국인주민들은 동상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동상동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김해시를 넘어 창원, 부산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의 외국인 활동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김해중부경찰서 A씨

“김해의 구도심이 동상동에서 삼방동으로 삼방동에서 내외동으로 확산해 감에 따라 외국인주민들도 동상동, 삼방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6.14. CPO인터뷰 내용

□ 시장 입구 및 상점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 및 폭력범죄

동상동 일원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로 절도 및 폭력범죄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 중 절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9%, 폭력범죄는 47.3%이었으며, 강간 및 추행 범죄는 1.2%로 드물게 발생하였다.

[표 4-5] 김해시 동상동 일원 5대 범죄 발생 현황

구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2020	-	-	2.1%	63.8%	34.0%
2021	2.8%	-	-	58.0%	39.1%
2022	-	-	2.2%	36.6%	61.3%
2023(~10.13.)	-	-	0.8%	52.8%	46.5%
전체	0.6%	-	1.2%	50.9%	47.3%

출처: 김해경찰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범죄발생 핫스팟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김해동상시장입구와 그 주변의 상업지역 인근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장주변, 주택가에서도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외국인으로 한정할 경우 동상동 일원은 내국인에 비해 타 지역 대비 높은 외국인 인구 밀도이나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림 4-17] 김해시 동상동 일원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출처: 김해중부경찰서 내부자료

② 하위 공간별 환경 특성 조사·분석

□ (주거공간)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 낙후 주거지역 골목길 환경 개선 필요 : 기계적 감시, 접근통제 강화 필요
김해시 동상동·서상동 일원은 용도지역 규제상 상업지역과 미지정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곳으로 건축 연도가 6.25 전쟁 이전으로 올라갈 정도로 낡은 주택이 혼재해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주로 위치해 있으며,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주택도 곳곳에 보이는 낙후 주거지역이다. CCTV와 조명이 설치되고, 외부접근이 차단되어있는 곳도 있었지만, 골목 곳곳에는 방범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CPO B씨

“안전하지 못한 골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간이지만, 외국인이 많은 동네라는 생각... 골목길에서 보이는 주변 경관이 외국인 종교시설, 쉼터들이기 때문에 내국인의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

2023.06.14. 인터뷰 내용



[그림 4-18] CCTV와조명이설치된골목길(좌), 외부의사선이차단되고CCTV와조명이없는골목길(우)
출처: 연구진 촬영

-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고 주민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장소 다수 존재 : 자연적(기계적) 감시 강화 필요

저층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 사이의 이격 공간에 위치한 창문과 같은 침입이 가능한 곳의 대부분은 방범창으로 막혀있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방범창과 같은 방지 장치가 없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담장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 낮고 노후한 담장으로 인하여 외부 침입에 위험한 공간이 다수 존재하였다. 비교적 새로운 주택이나 대로변에 가까운 공간에서는 조명과

CCTV가 설치되어 안정감을 주었으나, 낡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주택과 협로로 갈수록 안전시설설비가 부족하여, 범죄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9]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물과 낮은 담장

출처: 연구진 촬영

- 빈집과 방치된 주거시설 : 유지관리 필요

비어있는 집과 방치된 주거시설로 낙후된 외관과 관리되지 않은 외부공간으로 인하여, 범죄 두려움이 발생하고, 낡고 위협적인 시설물들을 통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담벼락의 방범용 가시덮개의 경우,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져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지역에 있다는 특성상, 주취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 보행자나 주취자의 얼굴을 찌를 수 있는 위치에 가시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부상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동상동 일대에는 외국인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데,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의 기준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라도 자국의 주거공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PO A씨

“동상동에 사는 외국인들은 내국인이 볼 때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지에 살고 있다. 주거공간에 곰팡이도 있고, 물도 새기도 한다. 그러나 자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나은 환경이라 그냥 만족하고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인의 잣대로 좋은 공간이다 나쁜 공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23.06.14. 인터뷰 내용

아울러 계절노동자의 노동기간 문제로 단기체류 할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동상동에는 외국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8곳 정도 있는데, 방 한 칸에 10명이 거주하기도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 (소비공간) 다문화거리인 동상시장을 중심으로 소비활동 공간 형성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 설치 미흡 : 접근통제 강화 필요

동상시장 인근에는 상점의 문이 개방되어있는 형태인 경우가 많아,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건물사이의 좁은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범죄가 발생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건물 사이의 공간에 각종 적치물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하여 범죄자의 침입 우려가 있다.



[그림 4-20] 출입통제가 되지 않고 열려있는 공간(좌) 출입통제가 잘 되어있는 공간(우)
출처: 연구진 촬영

- 내국인과 외국인 상점의 영역 분리 : 영역성 강화의 자연적 발생

동상동·서상동 일대는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내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상시장의 경우, 같은 시장에 있는 상가지만 국상가는 한국상가 끼리 뭉쳐있고, 외국상가는 외국상가끼리 뭉쳐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각자 대상으로 하는 소비계층이 다름에 따라 발생한다.

경찰 B씨

“동상시장에 외국상가들이 군집해 있는데, 외국인들은 외국상가를 주로 가고, 내국인들은 내국상가를 주로 갑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는 나름이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구역은 내국인들이, 저 구역은 외국인들이 쓰기로 말이죠.”

2023.06.14. 주민인터뷰 내용

- 비어있는 상가와 관리되지 않은 건물 : 유지관리 강화 필요

구도심의 낙후된 환경으로 낡은 건물들이 위치해 있으며, 비어있는 상가들의 경우,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 부착되어 있으나 낡아서 색이 바래고 떨어지려하는 광고 스티커, 녹슨 간판과 같이 거리 미관을 해치고 노후화된 공간을 형성한다. 낡고 어둡고 폐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상점들은 범죄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21] 비어있는 상가와 관리되지 않은 외관

출처: 연구진 촬영

□ (여가공간) 내·외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공간 부족

-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이는 장소가 다름 : 주민 용화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공간 필요

김해시 동상동 일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이면서 다양한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종교를 믿더라도 국적별로 종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교회의 경우, 국적별로 담당 목사와 반이 나뉘어져 있다. 서로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교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내·외국인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적별로 각자의 종교시설이 있지만, 종파가 다르더라도, 한국의 종교시설을 외국인주민이 방문하고 있다.

CPO A씨

“동상동은 종교 공간도 철저하게 외국인 맞춤형으로 되어있어요. 국적별로 담당 목사와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나뉘어서 교류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내·외국인 교류는 이루어집니다.”

2023.06.14. 인터뷰 내용



[그림 4-22] 외국인주민들의 자체 종교시설

출처: 연구진 촬영

김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들의 경우에도, 외국인 축제는 외국인만 참여하고, 내국인 축제는 내국인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로, 부처님오신날의 연등회와 같은 종교적 행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축제에 외국인들이 종교 내 종파와 관계없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그림 4-23]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좌)과 내국인(우)

출처: 김해중부경찰서 내부자료

- 외국인주민의 한국적응을 위한 공간 및 활동 필요 : 활동성 강화 필요
외국인주민의 융합과 편의도모, 정보교류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 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동상동 일대에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희망이 강하지만, 중국계 한국인에 비해 한국어습득 능력이 떨어져서, 비자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들이 적응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여 내국인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시민단체 소장 A씨

“김해시 동상동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CIS 지역의 고려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비자연장이나 내국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이 필요한데, 언어습득이 늦은 편이며, 관련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23.06.14. 주민인터뷰 내용



[그림 4-24] 외국인의 교육과 한국적응을 위한 공간(좌),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활용할수 있는 공간(우)

출처: 연구진 촬영

-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필요 : 활동성 강화 필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앉아서 쉬거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외부와 차단되지 않아 자연적 감시가 큰 개방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내·외국인주민 모두 이 공간에서의 범죄 두려움은 낮은 편이다.



[그림 4-25] 주민이 쉴 수 있는 벤치와 같은 시설이 부족한 광장

출처: 연구진 촬영

- (공공 및 가로 공간)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며 대부분 보차 혼용도로이며, 상점의 인도침범으로 인도 활용이 어려움

- 주차문제로 인한 범죄위험 증가 : 영역성 강화, 자연적 감시 강화 필요

개발된 지 오래된 상업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점인근의 주차는 가게 입구의 차도나 인도에 걸쳐서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규모의 상점들은 차량으로 입구가 막힘에 따라, 외부에서의 시선이 차단되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에서 가려지는 위치에 범죄자가 은닉할 우려가 있으며, 시야가 제약되는 밤에는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4-26]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 및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움직이게 함

출처: 연구진 촬영

- 상품 보행로 적치 인한 범죄위험 증가: 영역성 강화, 자연적 감시 강화 필요
 동상동 일대의 대부분의 내부도로는 보차혼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 상점에서 해당 부분까지 확장하여 인도로 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사실상 보차혼용이 됨과 동시에, 보행로와 상가와의 영역 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영역성이 약화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림 4-27] 상업시설의 보행로 침범

출처: 연구진 촬영

- 쓰레기 배출문제로 인한 갈등 : 유지관리 필요
 쓰레기 배출문제로 시청에서 경고문을 붙이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게시물을 붙이고 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 배출문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상동 일원에서는 시인성 높은 표지판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를 통해 쓰레기 배출관리를 하고 있다.



[그림 4-28] 거리의 쓰레기 배출 관리

출처: 연구진 촬영

③ 거주적합성 측면에서의 수요 조사

□ 노후 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 개선 시급

동상동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미진 골목의 낡은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낡고 위협적인 시설물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의 범죄두려움을 가중시키며, 6.25 전쟁 당시 건축된 집의 담장에 있는 가시 설치물이나 유리 파편 장애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낙후된 시설물들은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매입하여 정리하거나 최소한 담벼락의 정리를 통한 보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CCTV나 조명증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주민이 많은 특성 상 안내 사인물들의 시인성 높고 직관적이게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통한 설명으로 정보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공간 발굴 및 개선 필요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들은 오래되고 좁은 건물이 많으며, 민간에서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민간 주로 개인이 외국인주민 지원 공간을 운영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에어컨, 난방기구 없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9] 민간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공간

출처: 연구진 촬영

동상동에는 개인, 단체 등 민간의 힘으로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분포해 있다. 이런 공간들을 발굴하고, 내·외부 공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주민들 교육 환경, 휴식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외국인들의 지역 임시 방문, 적응,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거주공간 필요

김해시 동상동 일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외국인주민 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국인교육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치안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주민들이 마음 편히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나, 비자, 한국어 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에 가깝다.

특히, 동상동 일원으로 옮겨오는 외국인주민들은 비자 문제나, 계절노동 문제, 계약상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며, 적응 및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저렴한면서도 실용적인 거주공간이 필요하다.

공무원 A씨

“김해시 동상동에 외국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8곳 정도의 임시거주지가 있으며, 계절노동자나, 계약문제 등으로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다.”

시민단체 소장 A씨

“외국인주민들이 장기 정착을 원하기 때문에 실용적이면서도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절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이런 공간이 없어서 모텔에서 여러 식구들이 자거나, 상태가 안 좋은 원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들도 많습니다. 눈물 없는 그곳들을 볼 수 없습니다.”

2023.06.14. 관계자 인터뷰 내용



[그림 4-30] 낙후된 이주민지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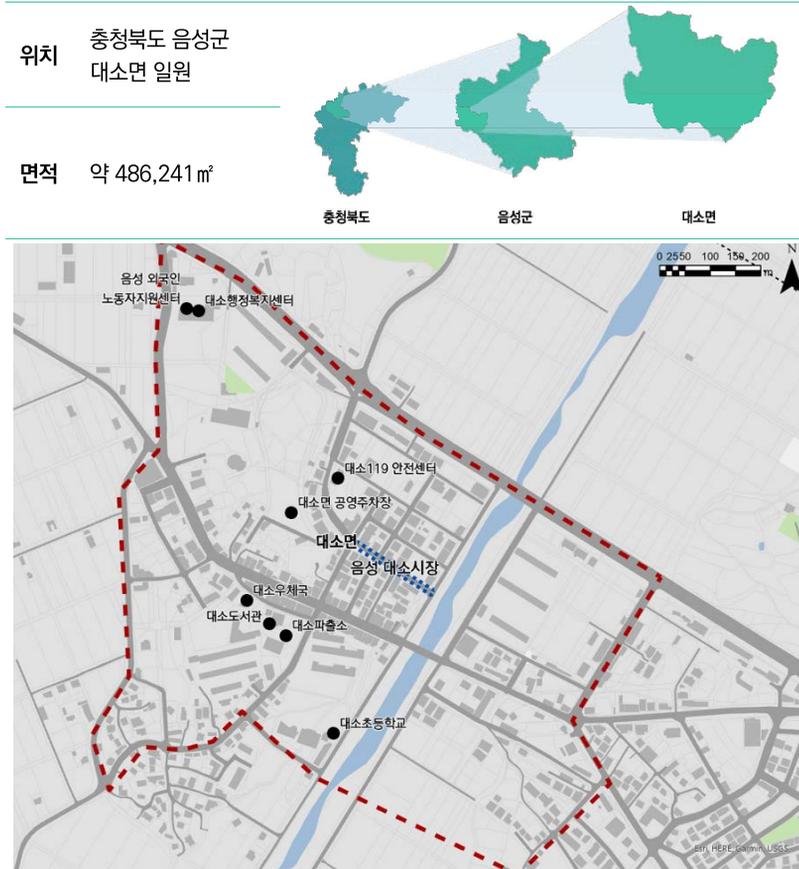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촬영

4) 농어촌 중심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①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특성 개요

□ 내·외국인들의 모두 이용하는 행정 및 상업 중심지

[표 4-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d/geoDBDwMdlst.do>, 검색일: 2023.09.06.);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건축물 연령정보,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토지특성조사, <http://openapi.nsd.gov.kr/nsdi/common/openData.do>, 검색일: 2023.09.11.)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음성군의 생활권은 대소 중생활권, 금왕 중생활권, 감곡 중생활권, 음성 중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대소면은 대소 중생활권의 중심지로서 행정복지센터, 대소 버스터미널, 대소시장, 아파트 단지 등 행정,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음성군 대소면은 음성군 내에서 아파트가 25동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등 분야별 건축허가 비중도 20.4%(359건)로 가장 높다³⁾. 이를 통해 음성군 내에서도 대소면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등에 대한 개발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외곽지역에서 군의 중심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범죄 발생 증가

음성 경찰서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대소면에서 내국인의 범죄가 외국인의 범죄에 평균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발생 유형별로는 앞서 두 사례지역과 동일하게 절도와 폭력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7] 음성군 대소면 5대 범죄 발생 현황

구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내국인	2020	-	0.22%	6.28%	29.26%	64.24%
	2021	0.35%	-	2.76%	32.37%	64.52%
	2022	0.10%	0.21%	4.26%	37.73%	57.69%
	2023 (~06.30.)	0.59%	-	3.93%	48.33%	47.15%
외국인	2020	-	-	10.00%	13.33%	76.67%
	2021	1.61%	-	3.23%	43.55%	51.61%
	2022	-	-	5.26%	42.11%	52.63%
	2023 (~06.30.)	-	-	12.50%	25.00%	62.50%

출처: 음성경찰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특기할 점은 음성군 생활안전계, 외사과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⁴⁾를 통해 외국인의 교통 범죄 발생 건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외국인 교통 범죄 발생 건수는 외국인 5대 범죄 발생 건수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 외곽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택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노동공간과 소비공간, 여가공간 간의 거리가 먼 군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림 4-31] 2023년 음성군 대소면 범죄 핫스팟 분석결과

출처: 음성경찰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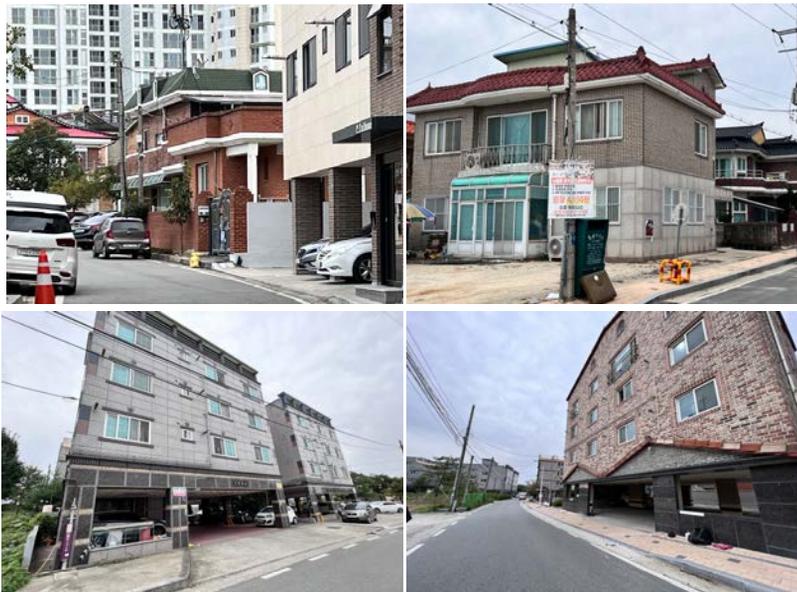
3) 음성군 홈페이지 2021년 기준 음성군 통계연보(잠정) 10.주택 및 건설. (2021). [https://www.eumseong.go.kr/www/contents.do?key=455\(검색일: 2023.10.01.\)](https://www.eumseong.go.kr/www/contents.do?key=455(검색일: 2023.10.01.))

4) 2023.07.27. 음성군 생활안전계, 외사과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② 하위 공간별 근린환경 특성 조사·분석

□ (주거공간) 필로티 원룸 중심의 주거지역 형성

•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미흡 : 기계적 감시, 접근통제 강화 필요
대소면 주거지는 일부 2층 단독주택과 대다수의 5층 미만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으나, 방범창, CCTV, 개인 보안 시스템 등이 설치된 경우는 드물었다. 원룸의 경우, 필로티 형식으로 건축된 사례가 많았으나, 필로티 하부공간에 조명, CCTV 등이 설치가 미흡하였고, 개별 가구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대소면 일대 단독주택(위), 원룸(아래)

출처: 연구진 촬영

코로나19 이전부터 원룸에 외국인들의 거주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주거지역 보행 시 내국인들의 범죄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주거지에 낮은 조도의 가로등만 있을 뿐 CCTV,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50대/여)

“가게가 한가한 2시 30분 이후에 남편과 산책하거나 혼자 산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지 쪽 공원 산책로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거기는 피해서 가고 있어요. CCTV있는 곳을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2023.10.07. 주민인터뷰 내용

한편, 외국인들이 주거지 내 원룸에 거주 비율이 높으나, 실제로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대소 시장, 혁신도시, 문화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40대/남)

“편의점 주중, 주말 기준으로 외국인 이용 빈도는 전체 이용자들의 10% 수준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대소 시장 쪽에서 놀죠.”

지역 주민(50대/여)

“대소시장, 문화마을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역 주민(60대/남)

“택시 운전을 하면, 외국인들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공장에서 대소나 혁신도시로 이동을 많이 해요.”

2023.10.07. 주민인터뷰 내용

- 무질서 한 공간들이 주거지 곳곳에 산재 : 유지관리

수풀이 자라있는 나대지, 쓰레기 불법 투기물들은 주거지의 이미지를 저해하므로 개별 주택 단위 또는 공공에서 수풀 정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33] 나대지, 불법 쓰레기 투기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 (소비공간) 대소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소비활동 공간 형성

- 범죄 발생 취약 공간의 개선 필요 : 기계적 감시, 영역성 강화

대소면에는 대소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업가로가 발달되어 있으며, 옷가게, 미용실, 식당, 노래 연습장, 술집,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위치 해 있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과 김해시 동상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스닉 상점들의 집적도는 낮았으며, 가로 중간에 외국인 식품, 의류 판매점이 입지 해 있는 상황으로 전형적인 군 지역의 상업가로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4]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상업시설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교통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오테로 사거리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소전통시장 내부로 들어갈수록 기본 방범시설 설치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4-35]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방범시설 설치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또한, 주중에 비해 주말에 유동인구, 차량 수가 많았으며, 특히 가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보행자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보행지점에는 주정차 금지사인, 블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로로서의 영역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6] 주말 대소면 대소전통시장 일대 가로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 (여가공간) 범죄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가공간의 개선 필요

- 범죄 두려움 저감을 위해 쉼터 환경 개선 필요 :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활동의 활성화 유도

주거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운동 기구, 산책로가 쉼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외국인들의 공간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국인들의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기구 주변은 수풀이 자라 자연적 감시가 어렵고, 주차금지 블라드는 구부러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 야간에 공간 이용자들의 범죄 두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쉼터 이용자들이 주변 유동인구에게 잘 보이도록 식재를 정비하고, CCTV, 비상벨, LED 보안등, 슬라 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공원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7] 주거지 내 쉼터 공간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지역 주민(50대/여)

“예전에는 운동하고, 산책하러 쉼터에 자주 갔었죠. 그런데 거기 외국인들이 모이니깐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2023.10.07. 주민인터뷰 내용

□ (공공 및 가로 공간) 자연적 감시 강화,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한 공공 및 가로 공간 이미지 개선

• 방문객을 특정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장 조성 : 기계적 감시, 자연적 감시
대소면 시장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중에 비해 주말에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차장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주차장 뒤쪽으로는 옹벽과 수풀로 가려져 있어 주차장 내부 공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어렵다. 또한, 공영주차장 가로등이 주차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나무로 인해 적정 조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 주차장 입구부에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을 확인하도록 하며, 옹벽 아래로 내려와 있는 수풀을 정리하고 옹벽의 도색을 통해 공용 주차장의 무질서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행로와 인접한 곳의 식재를 정리하여 보행자들이 주차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연적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4-38] 대소면 시장 주차장

출처: (좌)연구진 촬영; (우)네이버 지도를 활용

-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영역성 강화, 기계적 감시

대소면에는 대소버스터미널이 위치해있어 수도권, 충청권, 음성군 내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그러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외부인이 볼 때, 터미널인지 일반 상업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터미널로서의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다. 플랫폼 맞은편에는 각종 주점들과 주차 차량이 서있는 상황이다. 또한, 터미널 화장실은 노후화가 되어 있어 시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9] 대소면 일대 공영주차장(좌), 공동정류소(우)

출처: 연구진 촬영

외지인(30대/남)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외국인이 청소 중이었고, 뒤이어 들어오는 사람도 외국인이어서 무서움을 느꼈어요. 화장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누르고, 위치도 외진 곳에 있어요.”

2023.10.07. 외지인 인터뷰 내용

따라서 버스 플랫폼과 버스 주정차 구간은 페이빙, 안내 사인을 설치하여 교통시설로서의 영역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부의 매표소, 화장실과 같은 주요 공간에는 비상벨, CCTV를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③ 거주적합성 측면에서의 수요 조사

□ 음성군 대소면 일원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외국인들의 정주 만족도 제고
음성군에 20년 이상 오래 거주한 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음성군 내에 소비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대소면에서 가장 큰 H마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청주시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음성군 내에 의료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외국인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음성군 대소면 전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50대/부부)

“음성군 내에서 여가문화 공간으로 생각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등산을 가거나 캠핑 가는 편인데 주로 외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2023.10.08. 지역주민 인터뷰 내용

□ 내·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여가 및 생활지원 시설 마련 필요

대소시장 쪽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가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는 대소도서관, 대소초등학교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대소면 곳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지역 주민(10대/여)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비빔밥 만들기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삼성면에 살고 있지만, 대소면이 교통이 좋아서 친구들과 종종 놀러 나와요.”

2023.10.07. 주민인터뷰 내용

그러나 대소면 내에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교육장 등의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소면은 외국인들의 일상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도움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모두 금융읍 쪽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쉼터, 교육장 등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여가공간, 외국인 집단 간 또는 내·외국인들이 생활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대소면에서의 정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주민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및 외국인 주민 인식조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밀집지역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과의 갈등 최소화, 내국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공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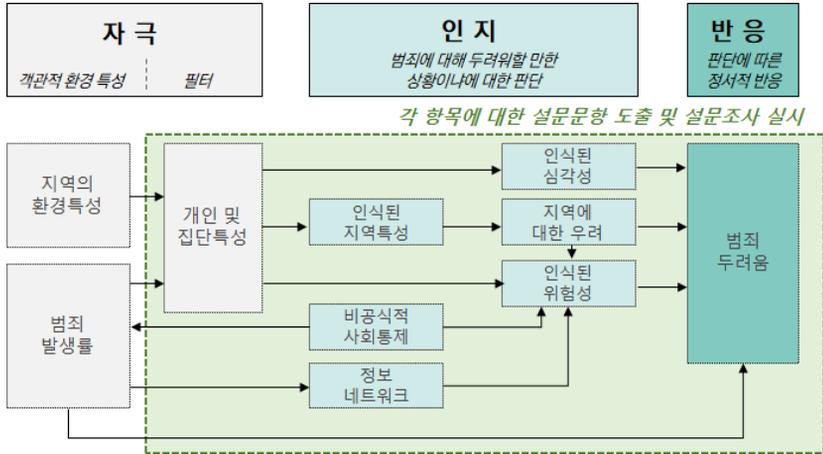
조사 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내외국인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앞서 구분한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리서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및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내국인 대상 설문 조사는 온라인으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총 표본 수는 515명이며 내국인 298명, 외국인 217명이다.

□ 조사기간

내국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외국인 대상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관악구 9월25일~10월 9일, 김해시 10월 2일~10월 4일, 음성군 10월 2일~10월 9일).

□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이경훈(1998)에서 제시한 범죄의 두려움과 환경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경훈(1998)은 범죄의 두려움을 객관적 환경특성과 개인/집단 특성간의 상호작용(자극)에 따른 인지과정을 거쳐 정서적인 반응이라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국인의 주요 공간별 이용행태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4-40] 범죄 두려움과 환경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출처: 이경훈(1998, p.29)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자극(Stimuli) : 개인 및 집단 특성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내외국인 개인 특성, 지역별 집단 특성, 이용공간별 행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이용 공간은 앞서 구분한 주요 생활공간 5가지로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노동 및 업무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이다.

- 인지(Cognition) : 인식된 지역 특성 및 지역에 대한 우려, 인식된 심각성 및 위험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및 정보네트워크

인지(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상황이나 판단)에 관한 조사항목은 인식하고 있는 동네환경(인식된 지역 특성 및 지역에 대한 우려), 지역의 범죄발생 변화,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가능성(인식된 심각성 및 위험성), 지역의 사회적 유대감 및 커뮤니티 형성 정도(비공식적 사회통제), 범죄 관련 소식을 접하는 매체(정보네트워크)이다.

- 반응(Response) : 심리적 안정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정도
심리적 안정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정도와 관련된 조사항목은 거주 지역 및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범죄 피해 두려움, 범죄 유형별 피해 두려움과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 개인 및 집단 특성

• 내국인 및 외국인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은 지역 내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7.9%로 가장 높았다. 거주형태나 주택 점유 행태에서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에 외국인의 월 주거비는 내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소득 수준과 연결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 수준은 외국인의 73.7%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내국인은 55.3%가 사회적으로 낮다고 생각했다.

[표 4-8] 내국인 및 외국인 개인 특성

구분 표본 수		단위 : (%)		
		전체 (515)	내국인 (298)	외국인 (217)
거주 지역	서울 관악구	40.0	43.6	35.0
	경남 김해시	31.5	30.9	32.3
	충북 음성군	28.5	25.5	32.7
성별	남성	43.9	37.6	52.5
	여성	56.1	62.4	47.5
연령	10-20대	26.6	24.8	30.9
	30대	32.0	37.6	27.2
	40대	16.7	22.8	9.7
	50대	12.4	14.1	10.1
	60대 이상	9.7	0.7	22.1
거주기간	1년 미만	4.1	2.7	6.3
	1년 이상 3년 미만	18.8	13.1	27.9
	3년 이상 5년 미만	11.8	10.7	13.9
	5년 이상 10년 미만	22.3	21.1	25.0
	10년 이상 15년 미만	13.6	12.8	15.4
	15년 이상 20년 미만	7.8	7.7	8.2
주택유형	20년 이상	19.8	31.9	3.4
	아파트	29.5	42.6	11.5
	다세대·다가구 주택	43.1	40.3	47.0
	단독주택	11.3	8.7	14.7
	오피스텔	4.5	5.0	3.7
	기숙사·고시원	9.9	0.3	23.0
	기타	1.7	1.3	-

구분 표본 수		단위 : (%)		
		전체 (515)	내국인 (298)	외국인 (21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3.2	46.0	15.7
	전세	24.3	27.9	19.4
	월세	32.6	24.8	43.3
	기타	9.9	1.3	21.7
월 주거비	30만원 미만	23.8	13.5	31.9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6.4	35.1	55.3
	50만원 이상	29.8	51.4	12.8
주거비 부담정도	부담되지 않음	8.3	9.5	7.4
	보통	14.9	17.6	12.8
	부담됨	76.8	73.0	79.8
월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2.0	23.8	43.3
	200~300만원 미만	37.5	30.5	47.0
	300~400만원 미만	17.7	25.2	7.4
	400~500만원 미만	6.6	10.4	1.4
	500만원 이상	6.2	10.1	0.9
사회적 계층 수준	낮음	55.3	41.9	73.7
	보통	39.8	52.0	23.0
	높음	4.9	6.0	3.2

출처: 연구진 작성

- 외국인 체류유형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유형은 취업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동거 목적(30.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관악구 신사동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동상동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은 가족과의 동거 목적이 1.4%에 불과하였으며, 취업목적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유학(20.0%)이나 국제결혼(17.1%)을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부 있었다. 음성군 대소면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 대부분(70.4%)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28.2%), 유학(6.5%), 가족과의 동거(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지역별 외국인 체류 유형

구분	전체	관악	김해	음성
표본 수	(217)	(76)	(70)	(71)
취업	47.0	22.4	50.0	70.4
국제결혼	14.7	0.0	17.1	28.2
유학	6.5	0.0	20.0	6.5
가족과의 동거	30.9	76.3	11.4	1.4
기타	0.9	1.3	0.0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연구진 작성

- 외국인 거주 지역 변화 현황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 중 처음부터 현재 거주지역에 생활한 외국인은 60.4%이며, 거주지를 이동한 외국인은 39.4%로 나타났다. 지역별 살펴보면, 관악구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71.7%) 현재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역 이동 외국인 중 51.9%가 동일한 권역인 서울지역 내에서 이동한 외국인이었다. 한편 김해시와 음성군 거주 외국인은 처음부터 현재 거주 지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다수이며, 거주지를 이동한 외국인은 주로 동일한 지역에서 이동한 것(지역 내 이동-김해 55.6%, 음성 50.0%)으로 나타났다.

[표 4-10] 지역별 외국인 거주지역 변화 현황

구분	단위 : (%)			
	전체	관악	김해	음성
표본 수	(217)	(76)	(70)	(71)
거주지역 이동 외국인	39.6	71.7	25.7	19.7
지역(관악/김해/음성) 내 이동	33.7	22.2	55.6	50.0
권역(서울/경남/충남) 내 이동	40.7	51.9	22.2	21.4
권역 외 이동	25.6	25.9	22.2	28.6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 주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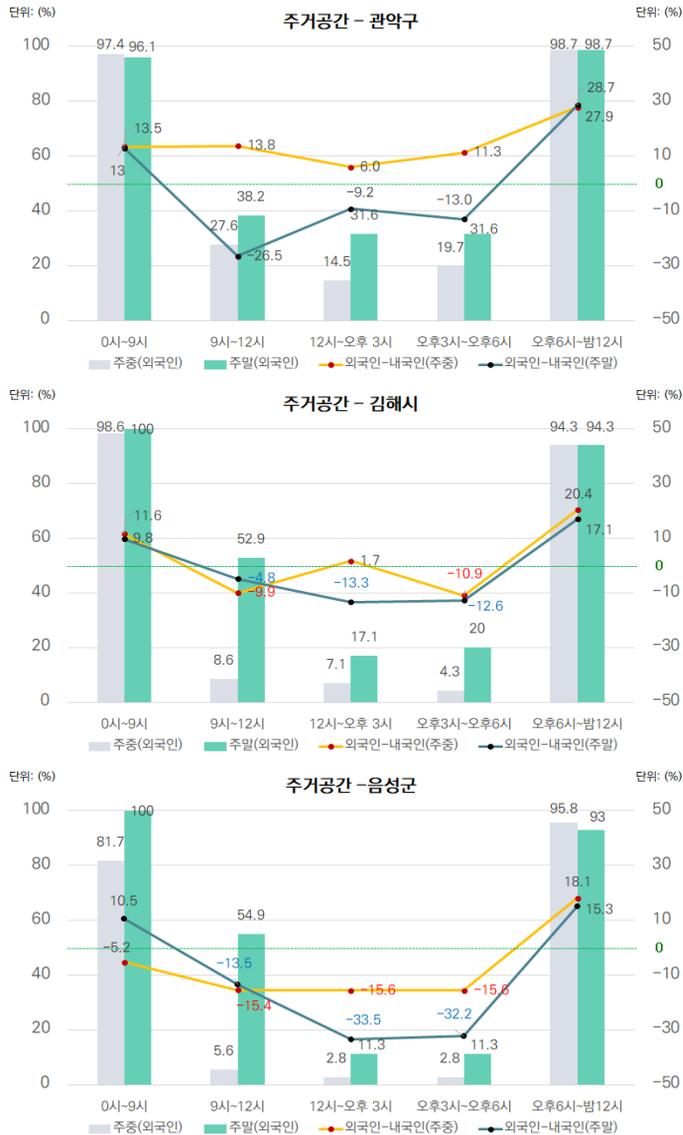
주요 공간 이용시간대는 심야(밤 0시부터 오전 9시) 및 저녁시간대(오후 6시부터 밤 12시), 일상활동 시간대(오전 9시부터 낮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로 구분하였고, 각 시간대별 주로 이용한 공간은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그래프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외국인의 주중과 주말 차이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였고, 꺾은 선 그래프는 주중 및 주말 시간대별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 값이다. 꺾은 선 그래프의 값이 양수 값이면 해당 시간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41]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분석 결과 해석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주거공간의 내외국인 시간대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내외국인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관악구는 일상 활동을 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중 주거 공간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머무르지만, 주말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주거 공간이외의 공간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와 음성군은 외국인의 주거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내국인보다 더 적었으며, 주말 내외국인간 편차가 더 컸다.



[그림 4-42] 주거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 소비 공간

관악구 외국인은 주중 일상활동 시간대 내국인보다 소비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오후 6시 이후 주중 및 주말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소비공간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외국인은 주중에 비해 주말 일상활동 시간 소비공간에서의 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과의 차이도 매우 컸으며,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소비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주중은 소비공간에서의 활동 비율은 낮지만, 주중은 더 높았으며, 야간시간대에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활동 비율이 높았다.



[그림 4-43] 소비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 여가 공간

주중 일상활동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새벽(밤 12시부터 오전 9시)이나 저녁 시간대(오후 6시부터 밤 12시)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여가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관악구는 주중 낮 시간 외국인의 여가활동이 높았으며, 김해시는 주중 및 주말 모두 낮 시간대 높고 다른 지역과 달리 주말 저녁시간대에도 여가공간에서의 활동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았다. 음성군은 주말 오전 및 낮 시간대의 외국인 여가활동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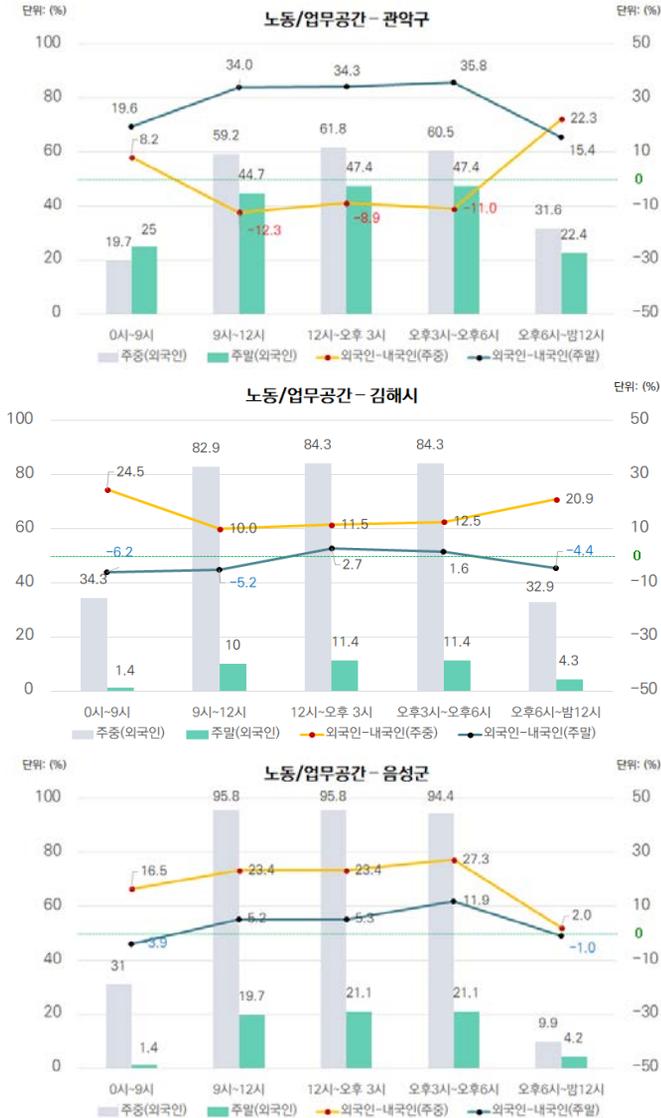


[그림 4-44] 여가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 노동 및 업무 공간

노동 및 업무공간에서 주중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활발히 활동하는 김해시와 음성군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관악구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주중에 더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관악구 외국인은 주중보다 주말에 노동 및 업무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음성군의 외국인은 주중 및 주말 모두 일상활동 시간대 노동/업무공간에서의 활동이 내국인보다 높았다.



[그림 4-45] 노동 및 업무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공간별 이용 행태 특성 : 공공 및 가로 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의 이용행태는 다른 주요 공간보다 내외국인간,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악구 외국인은 주중 내국인보다 공공 및 가로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소폭 높으며, 저녁시간대에는 내국인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김해시는 전반적으로 주중 주말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공공 및 가로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음성군은 주중의 경우는 내국인이 주말은 외국인이 공공 및 가로공간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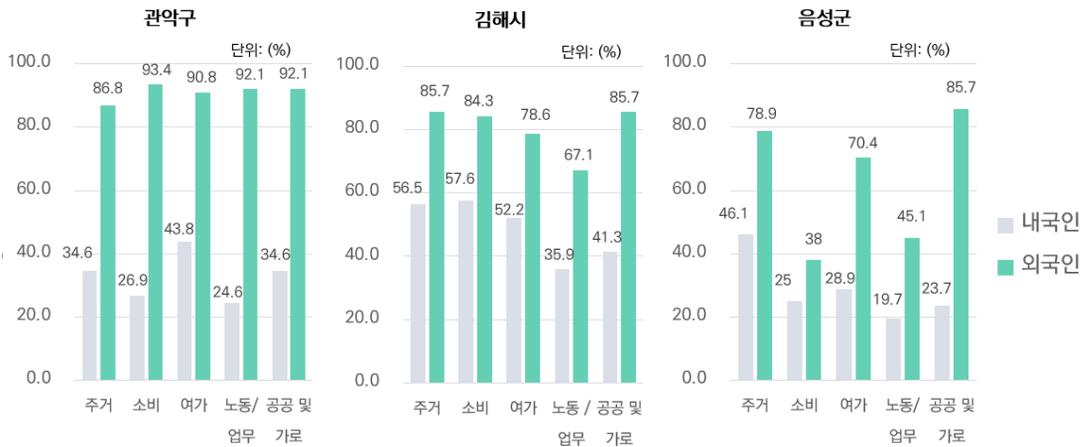
[그림 4-46] 공공 및 가로 공간 시간대별 외국인 이용 현황 및 내외국인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인식된 지역 특성 및 지역에 대한 우려

•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이미지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 생활공간은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노동 및 업무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은 대체로 각 공간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밝고 정돈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각 공간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어둡고 어지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내국인은 노동 및 업무공간에 대한 긍정 이미지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관악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각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컸다. 관악구 거주 외국인은 주요 공간 5개에 대해 모두 긍정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내국인은 여가공간에 대한 긍정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노동 및 업무 공간 이미지의 긍정 응답은 24.6%로 외국인과의 인식차가 컸다. 김해시는 3개 지역 중 내국인의 공간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음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았다.



[그림 4-47]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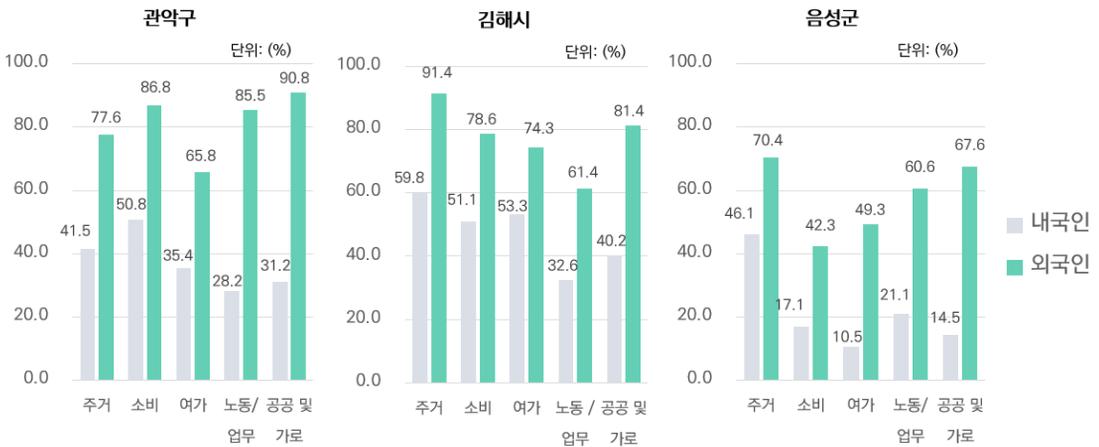
주: 거주 주요 생활공간 이미지에 대해 '다소 밝고 정돈되었다', '매우 밝고 정돈되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 생활공간의 만족도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았으며, 주요 공간 중에는 주거공간과 공공 및 가로공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족도가 낮은 열악한 공간은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관악구의 지역 주민 중 내국인은 소비공간(50.8점)이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은 공공 및 가로 공간(80.2점), 주거공간(79.7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및 업무공간은 내국인의 만족도(29.2점)가 가장 낮았으며, 여가공간은 외국인의 만족도(63.1점)가 가장 낮았다. 김해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59.8점, 9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열악한 공간은 노동 및 업무공간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3개 지역 중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며, 만족도가 높은 공간은 주거공간, 낮은 공간은, 소비공간 및 여가공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4-48]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

주 : 거주 주요 생활공간 만족도에 대해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인식하고 있는 동네환경

동네환경에 대한 설문문항은 무질서도와 관련된 문항과 생활 인프라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동네환경에 대해 무질서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3개 지역 모두 불법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인프라 관련 문제 역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며, 음성군 거주 내국인은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11] 지역별 동네의 무질서도 및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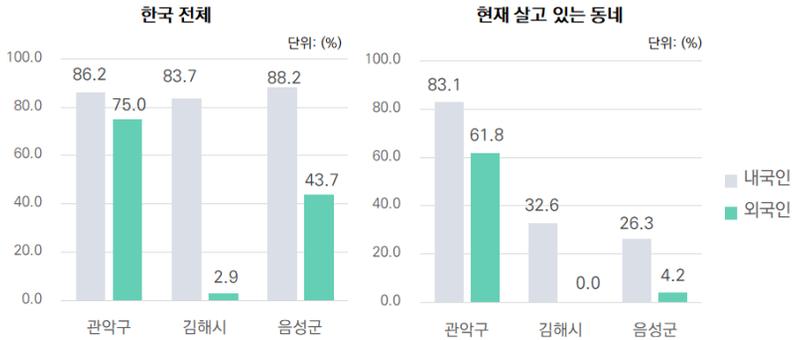
동네환경에 대한 설문문항									
구분	관악	김해		음성		단위 : (%)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무질서도 관련	1	56.2	7.9	19.6	4.3	31.6	5.6		
	2	6.2	1.3	6.5	2.9	38.2	2.8		
	3	36.9	2.6	14.1	4.3	50.0	0.0		
	4	26.2	2.6	16.3	4.3	15.8	8.5		
	5	48.5	11.8	17.4	5.7	25.0	4.2		
	6	19.2	1.3	8.7	5.7	18.4	1.4		
	7	12.3	0.0	12.0	8.6	25.0	1.4		
	8	63.8	15.8	57.6	8.6	67.1	4.2		
생활인프라 관련	9	46.9	34.2	27.2	8.6	39.5	7.0		
	10	48.5	10.5	32.6	8.6	77.6	9.9		
	11	16.9	3.9	9.8	5.7	27.6	4.2		
	12	11.5	1.3	15.2	5.7	82.9	0.0		
	13	10.8	2.6	15.2	12.9	81.6	9.9		
	14	28.5	0.0	20.7	7.1	64.5	1.4		

주 : 각 설문문항에 대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인식된 심각성 및 위험성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범죄발생 변화

내국인과 외국인 인식하는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내국인은 한국 전체에서의 범죄 발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인식했다. 반면 외국인은 경우 범죄발생이 증가하였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김해시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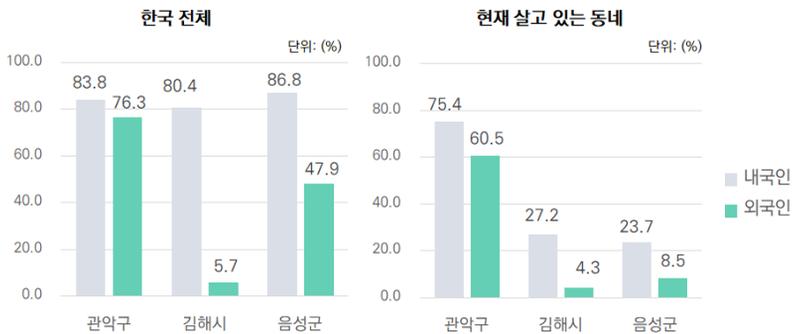


[그림 4-49] 지역별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변화

주 :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해 '다소 증가했다'와 '크게 증가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 및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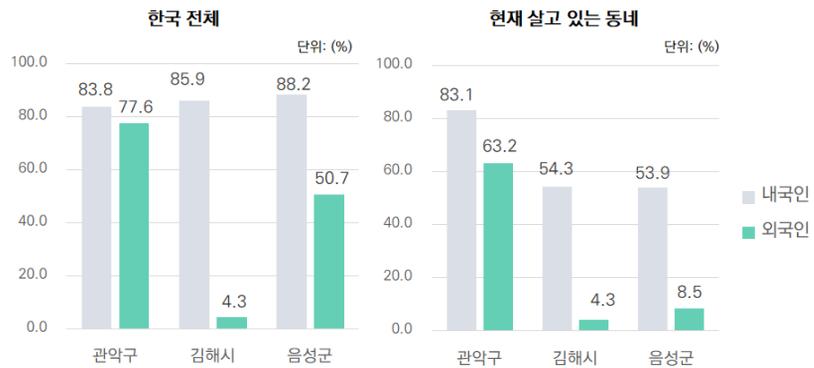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설문은 앞선 범죄 발생 변화 설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현재 살고 있는 동네보다 한국 전체의 범죄피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김해시 및 음성군보다는 관악구 주민이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지역별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

주 :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해 '다소 증가했다'와 '크게 증가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범죄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설문결과, 범죄 발생 변화 및 범죄피해 심각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내국인은 한국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외국인보다 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관악구 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 한국 전체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관악구 지역 주민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였다. 김해시 거주 내국인의 85.9%, 음성군 거주 내국인의 88.2%는 한국 전체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54.3%, 53.9%만 높다고 답하여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전체보다는 거주하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김해시와 음성군 거주 외국인 중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 8.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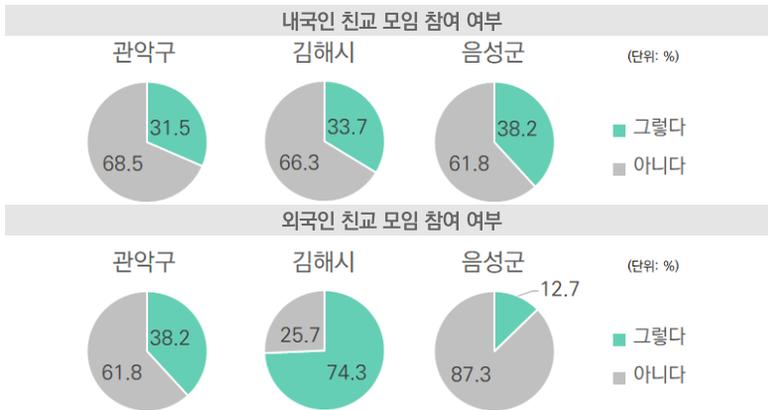
[그림 4-51] 지역별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

주 :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해 '다소 증가했다'와 '크게 증가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비공식적 사회통제 및 정보 네트워크

- 친교 모임 참여 여부 및 모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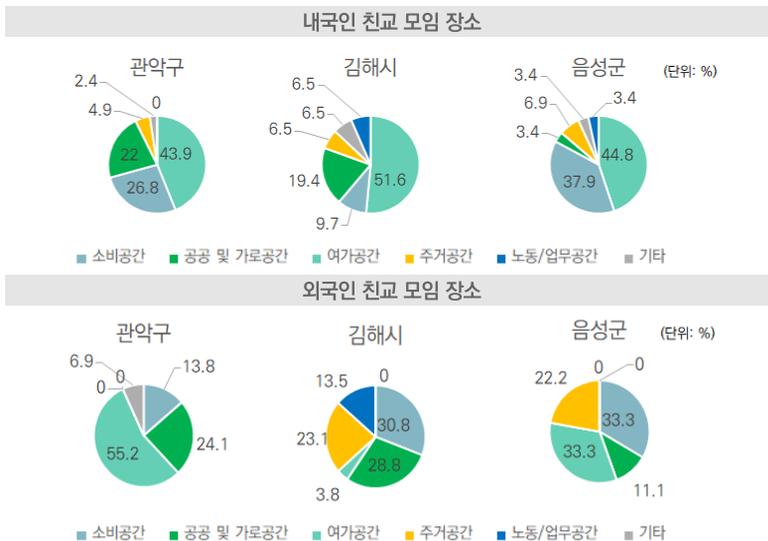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종교, 봉사, 취미활동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 현황을 조사하였다. 3개 지역 모두 내국인의 모임 참여 비율은 31.5~38.2%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모임 참여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관악구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38.2%가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외국인의 모임 참여 여부가 높았으며, 74.3%가 모임을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음성군은 내국인보다 친교 목적의 모임 참여 비율이 낮았으며, 지역 내 외국인 중 12.7%만 모임을 참여하였다.



[그림 4-52] 지역별 내국인 및 외국인 친교 모임 참여 여부

출처: 연구진 작성

내외국인의 친교 모임 장소는 내외국인간,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내국인의 경우 주로 친교모임을 하는 장소는 3개 지역 모두 여가 공간으로 나타났다(관악 : 43.9%, 김해 : 51.6%, 음성 : 44.8%). 그 다음으로 관악구(26.8%)와 음성군(37.9%)은 소비 공간, 김해시는 공공 및 가로 공간(19.4%)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의 주된 친교모임 장소는 지역별 1순위가 차이가 있었다. 관악구는 여가공간(55.2%)에서 주로 모임이 이뤄지는 반면, 김해시와 음성군의 주된 모임 장소는 소비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 주거공간, 여가공간으로 다양하였다.



[그림 4-53] 지역별 내국인 및 외국인 친교 모임 장소

출처: 연구진 작성

- 주민 간 유대 정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비공식 사회통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주민 간의 유대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주민간의 유대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유대감이 강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김해시와 음성군 외국인의 전반적인 유대관계는 잘 형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김해시는 이웃 간 도움을 자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별 이웃 주민 간 유대 관계

단위 : (%)

구분	관악		김해		음성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이웃사람들끼리 잘 도움	20.0	36.8	25.0	82.9	22.4	64.8
이웃사람들을 서로 잘 알고 지냄	19.2	32.9	22.8	64.3	22.4	64.8
이웃사람들과 동네일에 대해 자주 얘기함	11.5	27.6	14.1	62.9	18.4	46.5
이웃사람들은 각종 행사 및 모임에 협조함	9.2	18.4	14.1	77.1	15.8	40.8

주 : 각 설문문항에 대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 소식을 접하는 매체 및 소식 이후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은 주로 TV를 통해 범죄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관악구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비교적 주민 간 유대 정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김해시와 음성군은 친구나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범죄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범죄 소식을 접하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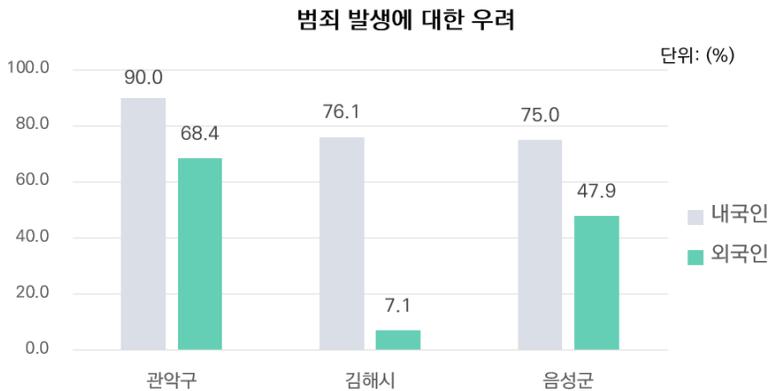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관악		김해		음성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TV	47.7	63.2	50.0	47.1	31.6	23.9
친구	13.8	15.8	9.8	42.9	13.2	38.0
가족	8.5	6.6	8.7	10.0	22.4	19.7
이웃	3.8	11.8	13.0	0.0	11.8	12.7
유튜브	10.8	1.3	5.4	0.0	7.9	5.6
기타	15.4	1.3	13.0	0.0	13.2	0.0

주 : 각 설문문항에 대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언론 매체, 지인이나 비공식적인 지역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접하는 범죄 관련 소식은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는 실제 위협보다 과장된 우려나 두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다(Baumer, 1979; Hening & Mazfield, 1979; 이경훈, 1998). 따라서 범죄 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지역별 내외국인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범죄 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관악구 거주 내국인의 90%는 범죄 소식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의 응답 비율도 68.4%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해시는 내국인의 우려된다는 비율은 76.1%로 높았으나 외국인의 응답 비율은 7.1%에 불과해 내외국인간의 편차가 매우 컸다. 음성군은 관악구보다는 범죄 발생우려가 낮았으나, 내국인의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은 75.0%, 외국인은 47.9%로 나타나 어느 정도 범죄 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4] 지역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주 : 범죄소식을 접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해 '다소 걱정이 되었다', '매우 걱정이 되었다' 응답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심리적 안정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정도

- 각 지역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reassurance)

관악구 거주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92.1%)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88.2%),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92.1%)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악구 거주 내국인은 한국(49.2%), 서울(46.2%)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못 느끼며, 특히 현재 살고 있는 동네(37.7%)에서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거주 외국인(92.1%)과 내국인(81.5%)은 대체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편안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거주 외국인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95.7%)뿐만 아니라 한국(92.9%)과 경남 지역(80.0%)에서의 심리상태도 편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국인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심리상태는 안정적이나 한국(62.0%), 특히 경남 지역에서의 심리상태(55.4%)는 비교적 불안정하였다.

음성군 거주 외국인의 84.5%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 지역(57.7%)과 한국(53.5%)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음성군 거주 내국인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55.3%)과 충북지역(44.7%)보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43.3%)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외국인은 대체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내국인은 김해시를 제외하고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이 낮았다. 특히 서울 관악구 외국인과 내국인의 심리적 안정감의 편차가 컸다.



[그림 4-55] 지역별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및 안정감

주 : 거주 동네, 지역(서울/경남/충북),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편안한 편이다', '매우 편안하다' 응답비율 합계
출처 : 연구진 작성

-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reassurance)

관악구는 생활공간에서 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내국인과의 편차가 컸다. 김해시 외국인은 대체로 각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내국인도 다른 지역보다 안정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음성군은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내국인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6]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및 안정감

주 :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편안한 편이다', '매우 편안하다' 응답비율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두려움은 3개 지역 모두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관악구 지역주민의 두려움이 컸다. 내국인은 주로 공공 및 가로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컸으며, 외국인은 지역별 인식차이가 있었으나 범죄 피해두려움은 크지 않았다.



[그림 4-57] 지역별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주 : 주요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느낀다', '매우 크게 느낀다' 응답비율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 유형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주거 침입, 폭행, 절도, 성폭력 등 범죄 유형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설문결과 관악구는 내외국인 모두 낯선 사람에게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내국인 63.8%, 외국인 11.8%)이 가장 컸다. 관악구 내국인은 다른 지역 대비 범죄 피해 두려움이 높았으며 성폭력(51.5%), 외국인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43.8%)이 높았다.

김해시는 내국인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45.7%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37.0%로 나타났다. 김해시 거주 외국인의 범죄 피해 두려움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지역 거주 내국인은 외국인으로부터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음성군은 내국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46.1%)이 가장 컸으며,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도 34.2%로 높게 나타났다. 음성군 외국인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절도 범죄에 대한 피해 두려움이 16.9%로 가장 컸다.

[표 4-14] 범죄 유형에 따른 지역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 유형별 범죄 피해에 대한 설문문항							
구분	관악		김해		음성		단위 : (%)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1.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이나 물건을 훔칠까 봐 두렵다							
2. 집안에 강도가 침입하여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3. 집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4. 집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							
5.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6. 가족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7.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8.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9. 외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0.8	3.9	17.4	2.9	18.4	0.0	
	24.6	3.9	21.7	4.3	18.4	9.9	
	30.8	9.2	26.1	1.4	27.6	16.9	
	39.2	9.2	32.6	2.9	31.6	14.1	
	63.8	11.8	45.7	5.7	46.1	14.1	
	20.0	1.3	16.3	4.3	21.1	9.9	
	51.5	5.3	31.5	4.3	34.2	15.5	
	20.8	0.0	18.5	5.7	13.2	2.8	
	43.8	0.0	37.0	4.3	31.6	12.7	

주 : 각 설문문항에 대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계
출처: 연구진 작성

4. 소결

□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전통시장, 교통 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서울 관악구 신사동은 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거지 중심에는 관악 신사시장이 위치해 있다. 서울 특성 상 건축물의 밀집도가 매우 높는데, 이로 인해 거주자 간의 접촉 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신대방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신사동 주민센터가 있어 내·외국인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은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중심의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거지 중심에 김해 동상시장과 글로벌 푸드 타운이 위치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과 차이점이 있다면, 시장과 연결되는 초입부에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문화, 교육,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은 단독주택과 원룸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고, 주거지와 차로 3~5분 거리에 대소 시장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군 지역 특성상, 건축물 밀도가 낮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대소면은 각종 행정시설, 교통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음성군 내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활동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요약하면,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적인 특성은 각종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기 용이한 지역이다.

□ 외국인 밀집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물리환경 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에서 차이가 발생

세 지역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물리환경 상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에스닉 상점, 종교 시설 등을 제외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쓰레기 문제,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 미흡, 주차 문제 등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근린환경 실태 진단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은 공간을 이용하는 행태들이 바뀌면서 공간에서 '범죄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내국인들만 이용하던 공원이 외국인들의 모임장

소로 바뀌거나, 지역 주민이 운영하던 가게가 다 국가 식품점으로 변경되었으며, 빌라 주민이 외국인들로 바뀌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인들의 경계심,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해시 동상동의 경우 절,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각종 센터 등이 매개가 되어 내·외국인들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불안감 등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음성군에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음성군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 외국인보다 높은 내국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으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외국인이 더 낮게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의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해당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가 양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내국인은 낮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감이 나 편안함이 외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지역 간 거주민이 인식하는 생활환경 이미지 및 심리 상태의 차이 존재

지역 간 내외국인이 인식하는 생활환경이나 불안감, 심리적 안정감 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비교적 김해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만족도가 우수한 편이며,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안정감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였으며 내외국인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만족도와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지역보다 내외국인 모두 높았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김해시는 오랜 기간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내국인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초기의 부정적 선입견이 점차 사라지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일부로서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악구는 외국인의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만족도 및 계속 거주 의사가 높은 반면, 내국인은 매우 낮게 나타나 편차가 매우 컸다.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동네 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내외국인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만족도가 낮은 내국인의 불안정도는 높일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심층 인터뷰 결과 내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며 포용하기 보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다른 지역 대비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이며 최근 주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가능성, 우려 등이 높다. 현재 외국인 자율 방법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포용적 관점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지역 주민 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음성군은 지방 소도시이나 빠르게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전반적인 기초생활 인프라는 미흡하나 외국인을 위한 지원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만족도와 현재 거주 동네에서의 계속 거주 의사가 높았다. 인구가 많지 않은 음성군 내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 지역 내 이질적인 공간 및 시설이 증가할 수 있어 지역의 무질서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음성군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외국인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 간 유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으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양호하였다. 그럼에도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 의사는 높지 않아 내국인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공간의 이용 행태 차이로 인한 분리 및 상충 공간 발생 지역별, 공간별, 시간대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이용 행태 차이가 있었다. 주중 및 주말의 공간 이용 비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외의 모든 요소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었다. 이는 지역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하는 공간의 행태적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시간대, 특정 공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분리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즉 상충되는 시간대와 공간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이용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내외국인의 분리 공간, 상충 공간 등을 도출하고 서로 교류하며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탑-다운 방식의 일관된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맥락과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네단위에서부터 접근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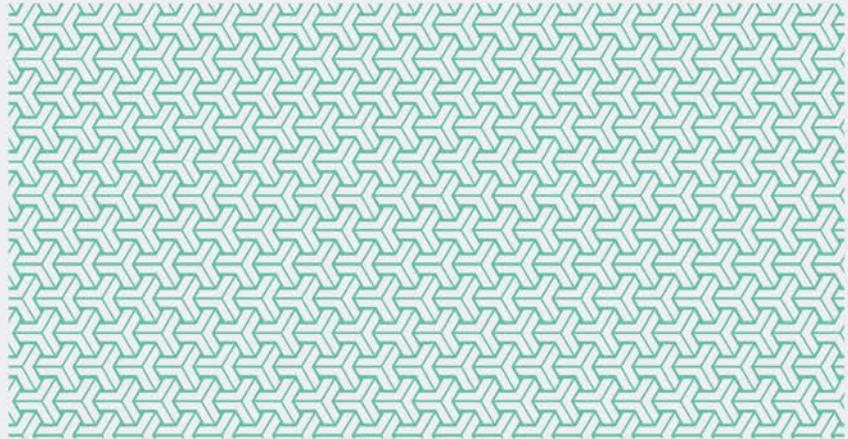
[표 4-15]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분석 결과 종합

조사명	목적	주요 분석 결과		
		서울 관악구 신사동	경남 김해시 동상동	충북 음성군 대소면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 범죄 발생 특성 파악		-인구밀도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거지로 행정 시설, 교통 시설 등 접근성 우수	-지방 원도심으로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 전통시장, 생활지, 전통시장, 생활지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센터 입지	-농어촌 중심지로서 단독주택, 원룸으로 구성된 주거지, 전통시장, 행정, 교통 시설 접근성 우수
		-절도 및 폭력 범죄 발생 비율 높음	-절도 및 폭력 범죄 발생 비율 높음	-절도 및 폭력 범죄 발생 비율 높음
			-외국인의 교통 범죄 발생률	
근린환경 실태 진단	공간별 범죄취약도 분석	-다세대·다가구 주택, 야간에 시장 가로 중 심으로 내·외국인의 범죄 불안감 높음	-노후 주택 골목길 중심으로 내·외국인의 불안감 높음	-공원, 주거지 가로 중 심으로 내국인들의 범죄 불안감 높음
	거주적합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수요 조사	-외국인을 위한 여가 및 생활자원 시설 확충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문제 해결 -내·외국인 각 생활공간 영역성 강화	-노후 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 개선 -민간 외국인 지원 공간 발굴 및 공간 개선 지원 -외국인 정착 단계별 거주공간 필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소규모 여가 및 생활 지원시설 마련
내·외국인 인식 조사	개인 및 집단 특성	-가족과 동거 목적의 체류유형 외국인 비율이 76%로 높음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 50%, 유학생 20% 순으로 나타남	-취업 목적 체류 외국인 비율이 76%로 높음
	이용공간별 행태 특성	-((주거공간) 주중 9~6시에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주거 공간에 오래 머무는 내국인들이 주거공간에 오래 머무는 편이냐 내국인과의 큰 차이는 없음	-((주거공간) 주중에 12~3시에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음, 주말에는 내국인들이 주거공간에 오래 머무는 편임	-((주거공간) 주말 0~9시를 제외하면, 내국인이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김, 주말에는 내국인들이 주거공간에 오래 머무는 편임
		-((소비공간) 주중, 주말 대체로 외국인들이 소비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긴 편이나 내국인과의 큰 차이는 없음	-((소비공간) 주중, 주말 9시 이후 외국인들이 소비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큰 편임	-((소비공간) 주중에는 내국인들이, 주말에는 외국인들이 소비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김
		-((여가공간) 주중 12~6시에 외국인들이 여가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김	-((여가공간) 주말, 주중 9~6시까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여가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김	-((여가공간) 주말 9~6시를 제외하고 내국인들이 여가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김
		-((노동/업무공간) 주말에 내국인에 비해 외	-((노동/업무공간) 주중 김	-((노동/업무공간) 주말 밤 6~12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외

조사명	목적	주요 분석 결과			
		서울 관악구 신사동	경남 김해시 동상동	충북 음성군 대소면	
		국인들이 해당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김	모든 시간대, 주말에 는 12~6시에 외국인 들이 내국인보다 노동 /업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김	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노동/업무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 및 가로공간) 해당공간 이용비율이 내 외국인 모두 유사	-(공공 및 가로공간) 해당공간 이용비율이 내 외국인 모두 유사	-(공공 및 가로공간) 해당공간 이용비율이 내 외국인 모두 유사	
인지	인식된 지역 특성	-(내국인) 지역)한국) 동네 순으로 생활만족	-(내국인) 동네)한국) 김해 순으로 생활만족	-(내국인) 한국)지역) 동네 순으로 생활만족	
		-(외국인) 한국)동네) 지역 순으로 생활만족	-(외국인) 동네)한국) 김해 순으로 생활만족	-(외국인) 동네)한국) 지역 순으로 생활만족	
	지역에 대한 우려	-동네에 대한 내·외국인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높음	-내·외국인은 동네에 대한 범죄 두려움이 낮음	-내·외국인은 동네에 대한 범죄 두려움이 낮음	
	인식된 심각성 및 위험성	-동네에 대한 내·외국인의 범죄 피해 심각성 및 가능성이 높다	-동네에 대한 내·외국인의 범죄 피해 심각성 및 가능성이 낮다	-동네에 대한 내·외국인의 범죄 피해 심각성 및 가능성이 낮다	
	사회통제 및 정보네트워크		-내·외국인의 친교 모임 참여 빈도 낮음	-외국인의 친교 모임 활발	-내·외국인의 친교 모임 참여 빈도 낮음
			-내국인, 외국인 각 집단 내 유대 관계 낮음	-외국인 간의 유대 관계 높음	-내국인, 외국인 각 집단 내 유대 관계 낮음
심리적 안정감		-모든 생활공간에서 외국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음	-모든 생활공간에서 외국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음	-주거공간을 제외한 생활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편임	
		-모든 생활공간에서 내국인들의 안정감이 낮음	-내국인의 경우 주거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나머지 공간은 보통 수준임	-모든 생활공간에서 내국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낮음	
반응		-공공 및 가로공간, 여가공간, 소비공간에서 내국인의 범죄 두려움이 높음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범죄두려움이 크기는 하나 두려움 수준이 높지 않음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범죄두려움이 크기는 하나 두려움 수준이 높지 않음	
	범죄 피해 두려움	-내·외국인 모두 낯선 사람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 높음	-내·외국인은 낯선 사람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높음	-내국인들은 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외국인들은 절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요약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07년 7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9년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18년 200만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제활동인구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생활인구, 정주인구로서 외국인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행안부·지자체는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가칭 이민청 설립을 법무부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여 부처별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인재 유치, 이민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 이민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 이민청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특정 외국인의 유형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과 함께 장기 체류 및 정착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조기 적응이 아닌 앞으로는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외국인의 이주, 정착,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는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주요 공간을 범죄예방과 안전 강화와 함께 거주적합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공간별 근린환경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안전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및 제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분석, 심층 분석 대상지 선정 및 사례지역 근린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을 셉테드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거주자 대상 인식조사, 이용행태 특성 분석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제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법제도, 사업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외국인차우법, 다문화가족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제도가 정

비되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인의 조기 정착 및 적응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교육이나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이 아닌 노동자 정책이나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단기적 사업이나 정책으로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외국인 및 내국인 주민이 서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화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3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분석이며,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분석 대상지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으로 3개 지역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인구사회 현황, 물리환경 현황, 산업경제 현황, 외국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특징을 요약하면, 관악구 신사동 지역은 한국계 중국인, 외국국적 동포 중심의 수도권 주거지역, 김해시 동상동 지역은 베트남, 기타외국인 중심의 지방 소규모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밀집지역, 음성 대소면 지역은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방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썬테드 관점에서 외국인밀집지역의 실태를 진단하였다. 심층 분석은 범죄 두려움과 환경 특성간의 이론적 모델(이경훈, 1998, p.29)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미시적 공간 단위인 근린단위로 설정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은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노동 및 업무공간, 공공 및 가로공간으로 구분하고, 통계청 통계자료, 관할 경찰서 제공 자료, 심층 인터뷰 및 현장조사 자료 등을 통해 근린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3개 대상지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98명, 외국인 217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범죄 피해 두려움, 주요 공간별 이용행태 특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인 밀집지역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전통시장, 교통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특성 차이가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간 행태 특성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거주민이 인식하는 생활환경 이미지와 심리 상태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근린환경 내 주요 이용 공간 별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용 행태 차이로 인한 분리 및 상층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지역 간, 내외국인 간, 이용 공간 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지역적 맥락과 거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물리환경 측면에서의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 간 내외국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공간 개선과 함께 내외국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비 및 여가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내국인이 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공공 및 가로 공간에는 CPTED 사업 도입을 통해 방범 시설물 확충, 공간의 무질서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에 대한 실태를 셉테드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진단 및 심층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수도권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분석하였으나,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역을 도시 규모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근린단위에서 주요 이용공간의 실태를 진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인 밀집지역은 각 지역별 특수성이 강하여 지역 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 분석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린환경을 주요 공간 5가지로 구분하고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실태를 진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리환경 측면에서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역과 외국인 인구를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수도권 주거지역,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농어촌 중심지역으로 유형이 나누어졌다. 연구의 결과에서 각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이를 통해 대표적인 유형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인구, 지역 특성과 함께 거주민의 특성(특히 외국인 체류유형), 지역 내 물리적·사회적 환경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별 공통적으로 적용 또는 고려해야하는 사항과 유형 내 개별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물리환경 측면에서, CPTED 관점에서 근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단기 과제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이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물리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낙후된 지역은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 노출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 CPTED 설계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불안감을 낮추는 단기 과제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장기적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의 근린환경 개선을 위해 내·외국인 주민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 주민 간의 관계, 다문화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5-1]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예시

본 연구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유형1 : 수도권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TED 적용 및 생활 환경 개선 - 골목 및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CPTED 기반 환경개선 - 야간 중심으로 치안활동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차와 같은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 - 내·외국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공간 설치
유형2 :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주거지 물리환경 개선 - 원도심의 낮은 주택 골목길 중심으로 주거지 정비 필요 - 골목길, 시장 중심으로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 불안감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공간 및 지불가능주택 공급 -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공급 - 외국인 지역거점으로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필요 - 낮은 주거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나,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을 통한 지불가능주택의 제공이 필요함
유형3 : 농어촌 중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TED 적용, 기초 방범시설 설치 - 전 지역에 기본적인 방범 시설물 확충 필요 -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내·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다양한 연령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확충될 필요 - 지역 중심지에 외국인 지원 시설 공급 필요 - 단순한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의 이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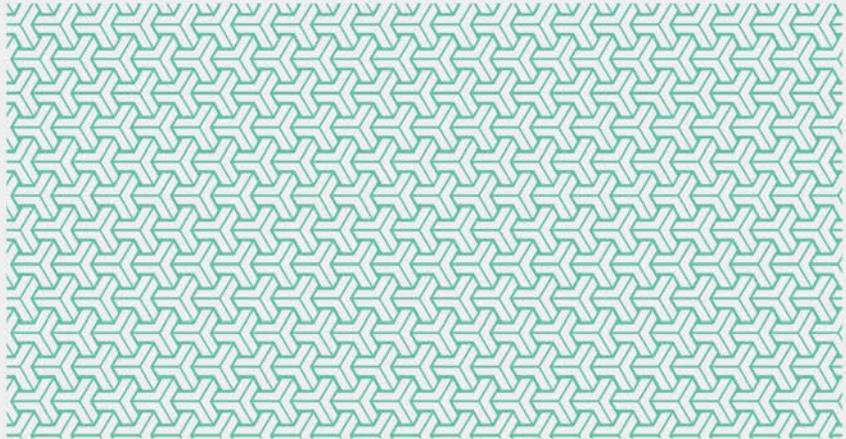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셋째, 앞서 도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CPTED 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CPTE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적·집단적 특성과 지역의 물리환경특성 차이에 따라 인식, 행태 특성 등의 편차가 있었다.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범죄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며, 내·외국인간 이용 공간별 행태적 특성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사업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CPTED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에 기반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량통계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두려움, 만족감, 안심감 등과 같은 내·외국인의 인식에 지역특성, 개인 특성, 정책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개선에 유효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강미나·유미경. (2014).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강수진·서원석. (2018). 외국인 거주자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발전연구, 27(1), 95-115.
- 강유찬. (2022).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더코리아. 9월4일 기사.
http://www.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9760(검색일 : 2023.05.12)
- 강혜원·고인석. (2013). 김해시 외국인노동자 이용밀집 가로의 이용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 29(7), 189-197.
- 경찰청. (2019).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와 함께 외사 안전구역에서 셉테드(CPTED) 추진. 3월 18일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6.do>(검색일 : 2023.05.15)
-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건축물 연령정보. <http://openapi.nsd.go.kr/nsdi/common/openData.do>(검색일 : 5월 13일).
- 국가정보포털 오픈API. 토지특성조사. <http://openapi.nsd.go.kr/nsdi/common/openData.do>(검색일 : 5월 13일).
-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2015). 반다문화 주범 '단일민족' 주입 사라졌지만...미래세대 교육 '자별 코드' 여전. 국민일보. 8월 5일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7683&code=11132400&sid1=soc>(검색일 : 2023.05.15)
- 국사편찬위원회. 2023.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a/view.do?levelId=ta_e52_0020_0010_005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A%B3%A0%EC%A1%B0%EC%84%A0%27%7C1%7C0%29+%7D(검색일 : 2023.06.01.)
- 기법석. (2019).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와 함께 외사 안전구역에서 셉테드CPTED 추진. 광주일등뉴스. 3월 18일 기사. <https://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45>(검색일 : 5월 15일).
- 김남희. (2020). 김해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 구도심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115-135.
- 김도형, 박승규. (2019).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 및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도형. (2021).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김민중. (2022). 한동훈의 '빅피쳐'...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 5월2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931#home>(검색일 : 2023.05.15).
- 김병학 외. (2013).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實在)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행정연구, 24(3), 343-372.
- 김양은. (2009).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포럼:다문화가정의 정보

활용, 11-24.(행사일:12월8일)

- 김유휘, 이정은, 신영규, 임택영, 김경현, 이지은. (2022).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윤영.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12(2), 1-15.
- 김지선, 라광현, 장현석, 박현호, 이민정책연구원. (2019).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Ⅳ: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해시. (2021).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김해시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23). <http://www.gimhaekorea.or.kr/>(검색일: 2023.05.15.)
- 김형준, 원미리, 이정민, 채호동, 박인권. (2021). 외국인 거주자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및 결정요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LHI, 12(1) 101-117.
- 김형태. (2022).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지원...맞춤형 정책추진. ATNnews. 4월 22일 기사. <https://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96> (검색일: 2023.05.13)
- 노성훈. (2013). 외국인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24(3), 152~184.
- 라광현, 함혜현. (2021). 경찰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생활안전 및 의사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30(1), 139-160.
- 류혀. (2022). 더블 다이아몬드를 적용한 3세대 CPTED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2(4), 207-221.
- 민지선, 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박명선. (2006).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14, 64-67.
- 박배균. (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지, 13(1), 89-110.
- 박병주. (2022).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2), 23-46.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행정학회, 23(1), 69-100.
-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박신영, 김준형, 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7(5), 217-230.
- 박윤환, 황의갑. (2011). 자가점유율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23(2), 265-289.
- 박윤환. (2010).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박형민, 최수형, 김남희, 이선형, 조제성.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2 분석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

- 박혜림. (2020).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방성훈, 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19(2), 39-68.
- 배주현, 김감영. (2019). 지방중소도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과정: 영천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11-126.
- 백일순. (2019). 도시재구조화에 따른 외국인 주거이동과 주거지 개편. 한국이민학, 7(1), 5-33.
- 법무부. (2022).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안내. 7월 25일 보도자료.
-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결과. 제2022-408호. 12월 2일 공고
-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제2022-278호. 9월 5일 공고
-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검색일 : 2023.10.18).
- 서울특별시. (2018). 2030 관악구 생활권 계획.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30000000>(검색일 : 2023.05.13).
- 성도현. (2023). [인구절벽&이민] ③“유입·통합 체계적 연계”...尹 정부 정책 기초. 연합뉴스. 1월 9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04700371>(검색일 : 2023.05.15).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View?localCode=krcn&contentsId=GC05308560>.(검색일 : 2023.05.15).
- 신동준. (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형사정책연구, 23(4), 184-217.
- 신지연, 박인권. (2021).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공간과 사회, 31(1), 168-207.
- 양아림. (2023). 김해시 다문화가정 매년 증가 추세. 경남도민신문. 1월 3일 기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901#0BNb>(검색일 : 2023.05.13).
- 연수구. (2020). 연수구 함박마을, 국토부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11월 3일 보도자료.
- 염철호. (201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토해양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윤진희. (2014). 서울시 중국계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39-54.
- 음성군. (2016). 음성군 2030 기본계획. <https://www.eums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80&key=7895>(검색일 : 2023.05.15).
- 이경훈. (1998).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12), 23-30.
- 이예지. (2017). 외국인 유입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상. 다문화와인간, 6(2), 583-599.
- 이윤영, 이미경. (2020).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사회문제 :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폭행범죄 피해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3), 159-188.
- 이정현, 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주거지의 유지 및 발달 -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

- 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304-318.
- 이창원. (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창간호, 72-73.
- 이태규. (2022).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역대 최고. 서울경제. 10월31일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KB1N7KR>(검색일 : 2023.10.18).
- 이혜경. (201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33-173.
- 전주연. (2011).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방법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4월 13일 기사.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검색일 : 5월 15일).
-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 <https://www.lawmaking.go.kr/lmKnlng/jdgStd/info?astSeq=2251&astClsCd=CF0101>(검색일: 2023.05.26).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 미국 시카고 아시아 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지은. (2011). 외국인 거주지의 주거입지 선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6), 117-129.
- 조영희, 이혜경, 이정우, 이창원, 윤인진, 김태환, 최승범, 송석원, 박병식, 곽재석, 이진영, 라휘문, 황정미, 한준성, 김철희, 황민철, 최경희, 윤종서, 조경훈, 박미정, 송영호, 최효원, 한기덕, 홍규호, 이현경. (202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 차철욱, 차운정. (2013). 김해 이주노동자들의 공간 의미화와 '외국인 거리'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7, 361-396.
- 최영신, 강석진.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재연, 김홍순. (2013).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소이미지 및 만족도의 내·외국인간 차이에 관한 연구 -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8(7), 37-54.
- 코트라. (2023). 캐나다, 2023~2025sus 신규 이민 160만 명 유치 계획 발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5397(검색일:2023.10.18).
- 통계DB. 2022.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검색일 : 2023.05.1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3(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202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conn_path=I3(검색일 : 2023.02.21).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 경제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I2010&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년.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시군구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9C&conn_path=I2(검

색일 : 2023.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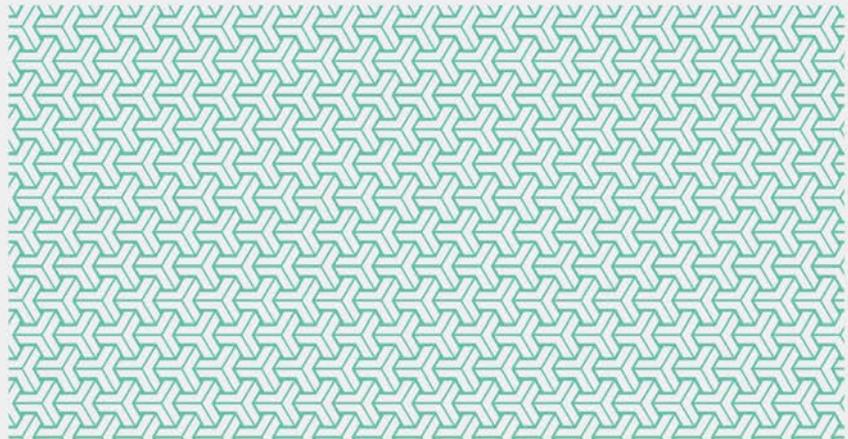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1_A&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용도지역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60&tblId=TX_315_2009_H1440&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33_A&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2. 가구원수별 가구-읍면동.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검색일 : 2023.05.10).
-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한기용, 김혜정. (2023).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정책 이해도 실태와 주거환경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4(3), 11-20.
-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교통기반시설(지하철 및 철도).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geoDBDwldList.do>(검색일 : 5월 13일).
-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도로.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geoDBDwldList.do>(검색일 : 5월 13일).
-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하천 및 녹지.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geoDBDwldList.do>(검색일 : 5월 13일).
- 행정안전부 전자지도. 행정구역경계. <https://business.juso.go.kr/addrlink/elctrnMapProv/geoDBDwldList.do>(검색일 : 5월 13일).
- 행정안전부. (2022).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1월 8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04797(검색일 : 5월 15일).
- 행정안전부. (2023)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검색일 : 2023.05.15).
- 행정안전부. 2(022). 생활안전정보. <http://www.safemap.go.kr>(검색일 : 2023.06.10).
- 홍세영, 이현. (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25-51.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500.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Björkman, K. F., Spehar, A. (2019). *New in the City: How newly arrived refugees experience reception and integration activities in the City of Gothenburg, 2015-2017*. University of Gothenburg, Centre of Global

- Blalock, H. M. (1967). *Status Inconsistency, Social Mobility, Status Integration and Structur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5), 790-801.
- Bohon, S. (2001). *Latinos in Ethnic Enclaves*. Ed. A. Sedillo Lopez.
- Borjas, G. J. (2002). *Homeownership in the immigrant pop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448-476.
-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3, p. 283).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4), *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the EU*, 2618th Council Meeting, 9-14.
- Crowe, T.D.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ition,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Dagens Nyheter. (2020). <https://www.dn.se/sverige/socialdemokraterna-i-goteborg-sjalvkritiska-lagger-om-integrationspolitiken/>(검색일:2023.10.18).
- Earth.esa.org. (2023). Gothenburg, Sweden. <https://earth.esa.int/web/earth-watching/image-of-the-week/content/-/article/gothenburg-sweden/> (검색일:2023.10.18.).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18). Housing Inspection Report,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and agricultural stream.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html>(검색일 : 2023.06.16).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검색일: 2023. 10.18.)
- Faist, T., & Özveren, E. (2004). *Transnational Social Spaces: Agents, Networks and Institutions*. Aldershot: Avebury.
- Gärbling, T., Brännäs, K., Garvill, J., Golledge, R. G., Gopal, S., Holm, E., & Lindberg, E. (1989). *Household activity scheduling*. In *Transport policy, management & technology towards 2001* (Vol.IV,pp.235-248). Ventura, CA:WesternPeriodicals.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Gough, M. Z. (2015). *Reconciling livability and sustainability: Conceptu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35(2), 145-160.
- Hollifield, J., Martin, P., & Orrenius, P.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cobs, R. C., & Campbell, D. T. (1961). *The perpetuation of an arbitrary tradition through several generations of a laboratory microculture*. The Journal of

-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3), 649.
- Jeffery, C. R. (202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Sage.
- Kihl, Y. W. (2015). *Transforming Korean politics: democracy, reform, and culture*. Routledge.
- Lee, M. T., & Martinez Jr, R. (2002). *Social disorganization revisited: Mapping the recent immigration and black homicide relationship in northern Miami*. Sociological Focus, 35(4), 363-380.
- Massey, D. S., & Denton, N. A. (1985). *Spatial assimilation as a socioeconomic out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4-106.
- Mihinjac, M., & Saville, G. (2019). *Third-gener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Social Sciences, 8(6), 182.
- Nasim Haque, et. al, (2010). *Exploring the Link Between Neighbourhood and Newcomer Immigrant Health*, Wellesley Institute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New York: Macmillan.
- Park, R. E. (1950). *Cultural conflict and the Marginal Man. RE Park. -Race and culture.*-Glencoe.
- Park, R. E., & Burgess, E. W. (1924).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Vol. 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s, A. (Ed.).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Russell Sage Foundation.
- Sellin, T. (1938). *Culture conflict and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97-103.
- Shaw, C. R.,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arks, R. F. (1981). *Multiple victimization: Evidence, theory, and future research*. J. Crim. L. & Criminology, 72, 762.
- Triandis, H. C., Malpass, R. S., & Davidson, A. R. (1973). *Psychology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4(1), 355-378.
- Uci.se. <https://uci.se> (검색일:2023.10.18).
- Velez, M. B. (2009). *Contextualizing the immigration and crime effect: An analysis of homicide in Chicago neighborhoods*. Homicide Studies, 13(3), 325-335.
- Vihelm Stokstad. (2020). Socialdemokraterna i Göteborg självkritiska - lägger om integrationspolitiken. Dagens Nyheter. 10월 29일 기사. <https://www.dn.se/sverige/socialdemokraterna-i-goteborg-sjalvkritiska-lagger-om-integrationspolitiken/>(검색일:2023.10.18).
- Wirth, L. (1928). *Theoretical Biology*.

A Study on Ethnic Enclaves Through the Lens of CPTED

Summary



Im, Boyeong

Choi, Changseong

Her, Jaeseok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Such an influx of foreigners provides opportunities to create economic activities and bring vibrance to the local community.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enforc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se resident aliens; however, they failed to consider the enlarging number of long-staying or permanent foreign residents. Due to those who intend on long-term residence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impose a policy that assures their stable settlement in addition to early adjustment. This study explores ethnic enclaves in Korea focusing on their spatial structures where daily lives take place. With such analysis, we suggest future policies to reassure the community safety for both alien resi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and trend of past works on ethnic enclaves, we present literature reviews on past policies and law enforcements for resident aliens. Moreover, we analyzed relevant case studie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For ethnic enclaves in South Korea, we distinguished the case studies into three categories and selected the representative case studies that had the largest policy implications. These studies were derived from four stages. The districts where selected enclaves were present were: 1) metropolitan residence: Sinsa-dong, Gwanak-gu, Seoul 2) downtown of local city: Dongsang-dong, Gimhae-si, Gyeongsangnam-do 3) central rural area: Daeso-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We analyzed each district's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atus, physical status, socio-economic status, and foreigner status. Then, we conducted a field study and deep survey in the CPTED perspective respectively; we interviewed 298 native residents and 217 foreign residents in the three districts about their fear of crime, psychological security, and their usage of space in the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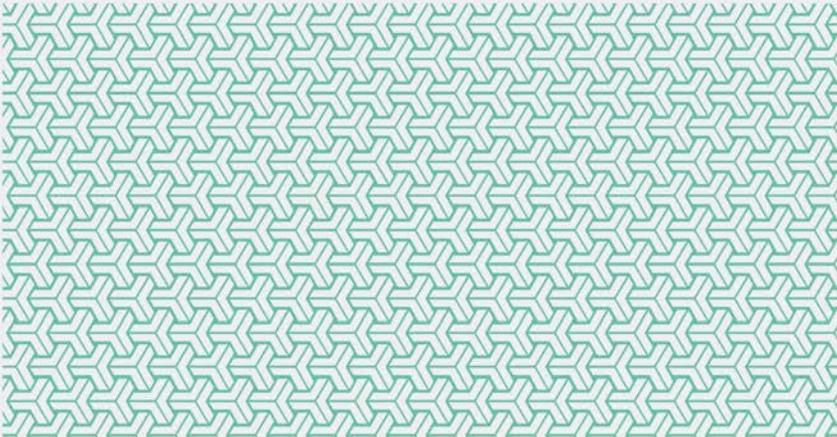
In conclusion, curr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resident alien support fail in practice to deal with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discrepancies between the permanent residents and resident aliens. Thus, we need to impose a policy that provides practical support for alien resident's physical residence, in addition to creating facilities that permanent residents can together use as a leisure space. An improvement in crime-preventative urban design is essential in public places that raise fear among users of the space. Moreover, designing customized short and long-term policies for each ethnic enclave could

promote a safe and livable living environment as ethnic enclaves present distinct categorical characteristics.

Keywords :

Ethnic enclaves, CPTED, Crime anxiety, Living environment

부록



1. 범죄취약도 분석 평가기준

CPTED 5대 원리에 근거한 현장조사 점검 사항

공간명	CPTED 5대 원리	현장조사 점검 사항
주거공간	- 자연적, 기계적 감시 확보 여부	- 출입구 주변에 적정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가? - CCTV 또는 ADT 사인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기계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야간감시를 위해 저층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 주택의 담장은 내외부 시선 연결이 가능한가? -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 접근통제 여부	- 키패드와 같은 시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개별호수에 방법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 주택외부 벽면에 노출된 배관에 덮개, 가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영역성 확보 여부	- 주택에 주소판은 설치되어 있는가? - 주택외부공간과 보행로의 구분이 명확한가?
	- 유지관리 여부	- 주택 앞에 불법 쓰레기물이 많은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주택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 주택 노후도 수준은 어떠한가?
소비공간	- 자연적, 기계적 감시 확보 여부	- CCTV 또는 ADT 사인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기계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 접근통제 여부	-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볼라드와 같은 접근통제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는가? - 야간에 진열해놓은 상품의 절도를 막기 위해 가림막, 시건 장치 등을 설치해 놓았는가?
	- 영역성 확보 여부	-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가? - 상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사인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 활동의 활성화 여부	- 상권 내 상인회 공용공간, 상인회 운영 카페 등이 있는가?
- 유지관리 여부	- 가게 앞에 불법 쓰레기물이 많은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가로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 가게 노후도 수준은 어떠한가?	
여가공간	- 자연적, 기계적 감시 확보 여부	- 외부에서 여가공간에서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외부에서 활동할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CCTV 또는 ADT 사인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기계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접근통제 여부	-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설 이용시간,

공간명	CPTED 5대 원리	현장조사 점검 사항
		시설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 사인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영역성 확보 여부	- 외부 보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명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활동의 활성화 여부	- 현장 점검 시 잠겨있고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
	- 유지관리 여부	- 시설 앞에 불법 쓰레기물이 많은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시설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 시설 노후도 수준은 어떠한가?
공공 및 가로공간	- 자연적, 기계적 감시 확보 여부	- CCTV 또는 ADT 사인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기계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가? - 광장, 공원 내 수목이 정리되어 있어 보행자의 시선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거리에 가로등, 솔라 표지병이 배치되어 있는가? - 가로등의 노후화 정도는 어떠한가?
	- 접근통제 여부	- 막다른 골목에는 안내 사인이 부착되어 있는가? - 빈집, 나대지 등에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영역성 확보 여부	- 공원, 광장에 대한 안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 활동의 활성화 여부	-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텃밭이 있는가? - 벤치나 운동기구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유지관리 여부	- 거리에 불법 쓰레기물이 많은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가로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출처: 최영신&강석진(2012, pp.292-300)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2. 설문조사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에 대한 내·외국인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형성 및 분화과정을 파악하고, 하위공간별 내외국인들의 인식과 행태 분석 등 내외국인의 근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귀중한 연구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담당자 : 임보영 부연구위원(☎ 044-417-9876), 허재석 연구원(☎ 044-417-9699)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건축공간연구원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조사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 면접원 확인

- ①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인근 ② 경남 김해시 동상동 인근
- ③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인근 → 그 외 지역 조사 중단

SQ2. 귀하가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대한민국 → 조사 중단 ② 외국 ▶ 태어난 국가명(국적) : (_____)

SQ3. 귀하는 (SQ1) 지역 주민이신가요?

- ① 지역 주민이다 → SQ3-1로 ② 타 지역 사람이다 → SQ3-2로

SQ3-1. 귀하가 (SQ1)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15년 미만 ⑥ 15년~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 응답 후 SQ4로

(SQ1. 조사 지역에 맞게 ① 보기 표출)

SQ3-2.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 ① 관악구/김해시/음성군 ② 이외 지역 → 조사 중단

SQ3-3. (SQ1) 지역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 ▶ 월 (_____)회 → 월 2회 미만 조사 중단

SQ3-4. (SQ1) 지역에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방문하십니까?

▶

SQ3-5. 귀하가 (SQ1) 지역에 주로 방문하는 요일과 머무르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구분	방문 및 머무르는 시간대
1) 방문 요일 (복수응답)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 ⑤ 금 ⑥ 토 ⑦ 일
2) 머무르는 시간대	▶ 오전/오후 ()시

SQ3-6. 귀하는 (SQ1) 지역으로 이사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있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S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5.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A. 외국인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동네와 지역(도시), 대한민국(한국) 전체를 비교해 가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예, 동네에서의 생활, 거주 지역(도시)에서의 생활, 한국에서의 생활)

A1. 귀하는 다음 각 지역에서의 현재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서울/경남/충북)에서의 생활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의 생활	①	②	③	④	⑤

A2. 다음 각 지역에서 귀하가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심리적 안정감은 해당공간에서 얼마나 편안·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는지, 자신감이 높아지거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등에 대한 감정

	매우 불안하다	불안한 편이다	보통이다	편안한 편이다	매우 편안하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서울/경남/충북)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다음 각 지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부감이 전혀 없다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거부감이 매우 크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부감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서울/경남/충북)에서의 거부감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의 거부감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는 다음 각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서울/경남/충북)에 대한 소속감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 대한 소속감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는 다음 각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십니까?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희망한다	매우 희망한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거주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서울/경남/충북)에서 계속거주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계속거주	①	②	③	④	⑤

지금부터는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동네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A6.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동네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거리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채 버려진 빈집, 빈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6) 낯선 언어로 표기된 공간, 상업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정체성이 불명확한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7) 낯선 사람들이 주택가에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8)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공공간(쉼터, 정자, 벤치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응급 또는 위기 상황에서 몸을 숨기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공원, 광장, 산책로와 같은 공공공간이 지저분하고,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접근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양육자, 어린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거리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동네의 5가지 주요 공간에 대한 예시입니다.
 각 공간별 설명과 예시 사진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공간 :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숙소(아파트, 빌라, 기숙사 등)와 주변 외부 공간



2) 소비공간 : 시장, 마트, 식료품점, 옷가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및 주변 외부 공간



3) 여가(문화/체육/휴식)공간 : 쉼터, 체육시설, 도서관, 카페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취미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종교 활동 등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4) 노동/업무공간 : 공장, 농장, 또는 사무실 등 평소 일하는 공간



5) 공공 및 가로 공간 : 공원, 광장, 도로 등의 공간



A7. 귀하께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다음 각 공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주거공간(살고 있는 집과 주변 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소비공간(시장, 상가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가공간(유희터, 문화·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업무공간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및 가로 공간	①	②	③	④	⑤

A8. 다음 각 공간에서 귀하가 느끼는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심리적 안정감은 해당공간에서 얼마나 편안·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는지, 자신감이 높아지거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등에 대한 감정

	매우 불안하다	불안한 편이다	보통이다	편안한 편이다	매우 편안하다
1) 주거공간(살고 있는 집과 주변 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소비공간(상가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가공간(공원, 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업무공간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및 가로 공간	①	②	③	④	⑤

A9. 다음 각 공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매우 어둡고 어지럽다	다소 어둡고 어지럽다	보통이다	다소 밝고 정돈되었다	매우 밝고 정돈되었다
1) 주거공간(살고 있는 집과 주변 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소비공간(상가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가공간(공원, 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업무공간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및 가로 공간	①	②	③	④	⑤

C3. 다음 각 지역에서의 **범죄 피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한국 전체에서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①	②	③	④	⑤

C4.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한국 전체에서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는 다음 각 공간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느낀다	매우 크게 느낀다
1) 주거공간(살고 있는 집과 주변 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소비공간(상가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가공간(공원, 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업무공간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및 가로 공간	①	②	③	④	⑤

C6. 다음 범죄 유형별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범죄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이나 물건을 훔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안에 강도가 침입하여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집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집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9) 외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C7. 귀하가 **살고 계신 동네의 범죄에 대한 소식**은 무엇을 통해 접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 2순위(____) [1순위 필수]

-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신문 ⑤ TV
 ⑥ 유튜브 ⑦ 라디오 ⑧ 잡지 ⑨ 기타(_____)

D5. 현재 살고 계신 동네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웃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웃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웃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웃사람들은 동네 각종행사 및 모임에 협조하여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D6. 귀하는 평소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센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DQ. 응답자 특성 및 거주 현황

DQ1. 귀하가 **한국에 거주(체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_____년 _____개월

DQ2. 귀하가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체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다?

- ① 취업(외국인 근로자) ② 국제결혼(다문화 가구)
- ③ 유학 ④ 가족과의 동거(한국거주 친척/ 가족 등과 동거)
- ⑤ 기타(_____)

DQ2-1. 그렇다면, **현재 귀하의 대한민국 체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변함없다(입국했을 때와 같다)
- ② 취업(외국인 근로자) ③ 국제결혼(다문화 가구)
- ④ 유학 ⑤ 가족과의 동거(한국거주 친척/ 가족 등과 동거)
- ⑥ 기타(_____)

DQ3. 귀하가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셨습니까? 아는 범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DQ3-1.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처음 거주했던 곳과 같다
- ②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DQ3-1. ② 응답자만)

DQ3-2.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일자리) 때문에 ② 주거비 부담 때문에
-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지역사회(외국인) 네트워크 때문에
- 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 ⑥ 생활 인프라(교육/의료/문화체육/상업시설 등)이 갖춰진 곳이라서
- ⑦ 기타(_____)

DQ4.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다세대·다가구 주택 ③ 단독주택
 ④ 오피스텔 ⑤ 기숙사·고시원 ⑥ 기타()

DQ5.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DQ6으로 ② 전세 → DQ6으로
 ③ 월세 → DQ5-1로 ④ 기타() → DQ6으로

DQ5-1. 현재 매월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 ()만원

DQ5-2. 현재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DQ6.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이나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거주하고 싶으신가요?

지역	체류 희망 기간					
1) 현 거주 지역에서	① 1년 정도	② 2-3년 정도	③ 4-5년 정도	④ 6-7년 정도	⑤ 8-9년 정도	⑥ 10년 이상 거주
2) 한국에서	① 1년 정도	② 2-3년 정도	③ 4-5년 정도	④ 6-7년 정도	⑤ 8-9년 정도	⑥ 10년 이상 거주

DQ7. 귀하는 혼인 상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 ③ 기혼(배우자는 외국에 거주)

DQ8. 귀하의 현재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매우 서툴다	서툰 편이다	보통이다	능숙하다	매우 능숙하다
1)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2) 듣기	①	②	③	④	⑤
3) 읽기	①	②	③	④	⑤
4) 쓰기	①	②	③	④	⑤

DQ9.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재학/졸업 ⑤ 대학교 재학/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

DQ10.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학생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직/노무직 ⑥ 주부 ⑦ 기타()

DQ11. 실례지만,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DQ12.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② 없다

DQ13. 한국에서 본인의 사회적 계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중간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지금까지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소중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본 조사와 별도로 “지역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외국인”을 직접 만나, 생활환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에 동의하신 분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동의하시면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신 정보는 해당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후 즉시 파기됩니다.

- 제 공 처 : 건축공간연구원, (주)엠브레인퍼블릭
- 이용목적 : 개별 심층인터뷰 진행 (답례비 :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

